青陽의 歲時風俗

2002. 10.

青陽文化院

靑陽의 歲時風俗

임동권, 정형호, 임장혁 공편

2002. 10.

靑陽文化院

발 간 사



安鍾日 청양문화원 원장

세시풍속은 1월부터 12월에 이르는 1년 동안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반복되어 왔던 주기 전승의 다양한 민속현황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음력의 월별, 절후, 명절에 따른 전통적 민간신앙, 민속놀이, 구비전승, 의식 행사, 풍속습관, 의식주 생활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세시풍속을 선인들은 세시, 세사, 절서, 월령, 시령 등으로 불러 왔다. 이러한 세시풍속의 개념과 역사 속에 우리 고장 청양에서는 세시풍속을 잘 지켜오고 있는데도, 이를 전문성이 없어 학술조사로 발굴하여 책자로 집대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우리 고장 출신 任東權 박사로 하여금 발굴조사를 통해, 청양의 민속이란 소중한 책을 발간하게 됨을 참으

로 기쁘게 생각한다. 따라서 내 고장에 전하는 소박하고 전통성이 있는 세시풍속의 전모와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세시풍속을 형성시킨 자연 문화적 배경과 세시풍속의 범주를 두루 살펴서 그 형성과 내용 등을 체계화시키는데 심혈을 다 기울인 임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우리 군민은 일찍이 세시풍속을 통하여 삶의 안정을 찾았고,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왔다. 사회의 가치관이 무너져 가는 시대에 우리 삶의 지표가 될 이 한 권의 책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신적 거울이 되고 뿌리가 될 것을 기대하며, 이는 또한 군민 모두의 문화공동체 의식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02. 10.

序 文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오래 살다보면 그 나름대로의 하나의 관습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 관습을 해마다, 또는 같은 계절이 되면 반복하는 생활을 세시풍속이라 한다.

청양은 복판에 숲이 우거진 칠갑산(七甲山)이 자리하고 있으며, 지천(之川)의 막은 물이 흐르고 있어 산자수명(山紫水明)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근래에는 스스로 알프스라 자랑하고 있다. 개발되지 않은 것이 산업쓰레기로 오염을 피할 수 있어 오히려 다행한 일로 여기게 되었다.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고장의 영향을 받아 생활하고 자연환경이 맞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산을 등지고 맑은 물을 마시며 어울려 농사를 짓고 사노라니 청양의 세시풍속이 성립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청양의 세시풍속이라 해서 유별나게 동떨어져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세시풍속의 테두리 안에 있음은 물론이다. 같은 민족이 같은 역사 속에서 살아 왔으니, 같은 문화를 공유(共有)하게 된다. 따라서 청양의 세시풍속도 한국의 세시풍속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는 농자 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해서 농경민족

(農耕民族)임을 스스로 자칭하며 살아 왔다. 즉 농사를 생존의 근본으로 삼아 가장 소중히 여겨 왔다. 따라서 세시풍속도 농경 위주로 형성되어 전승되었다. 둘에서는 논농사를 짓고, 산이 많으니, 산골에서는 야산에 밭을 일구어 밭일도 많이 했다. 칠갑산은 산자락이 넓어서 산채(山菜)를 생산했고 땔감과 건축자재를 공급해 주었다. 그리하여 청양은 산야의 혜택을 많이 본 셈이다. 남쪽 목면과 청남면은 금강(錦江)에 접해 있어서 그 혜택도 보고 있는 셈이다.

새해를 맞이하면 뒷산에 있는 산신을 모신 산신당에서 제사를 올리고 마을 입구에 장승, 솟대를 세워 풍년이 들고 일년 신수가 평안하기를 비는 동제를 올리고, 농악을 치고 신명풀이를 하여 서로의 우의를 다지고, 상호 협동하는 마을 공동체 의식을 다졌다. 아낙네들은 때를 맞추어 직조(織造)를 하였으니, 모두가 세시풍속으로 엮어져 왔다.

작년도의 구비문학 조사에 이어 금년도는 내 고장 생활사의 지식과 세시풍속을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고 교육자료로 삼고자 하는 청양문화원의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애호하고자 하는 큰 뜻에 의해서 기획되고, 여기에 동참하여 조사의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세시풍속의 조사란 원래 2년 계획으로 하는 것이 상식이다. 첫 해에 현장에서 기록하고 같은 행사가 동시에 다른 마을에서 있을 때에는 날짜가 겹쳐서 다 볼 수가 없으니, 다음 해에 현장기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의 여유가 없어 사

업을 완료하고 납기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한 시기에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따라서 구전을 통해서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이 민속조사에 경험이 많은 두 교수와 민속학과 학생들의 참여가 있어서 그런 대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었다. 조사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 조사자

임동권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정형호	안양대학교 겸임교수
임장혁	중앙대학교 조교수

■ 조사보조자

이동아	민속학과 졸업(전국문화원연합회연구원)
최지연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4학년 재학
송지영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4학년 재학
김현정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2학년 재학
류재인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2학년 재학
오애정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2학년 재학

■ 편자 소개

임동권 충남 청양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저서 ≪한국세시풍속연구≫ 외 다수

정형호　　충북 보은 출생
문학박사
안양대학교 겸임교수
저서 ≪양주별산대놀이≫ 외 다수

임장혁　　서울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조교수
저서 ≪기우제의 비교민속학적 연구≫ 외 다수

目　次

■ 발간사 / 3

■ 序文 / 5

■ 目次 / 9

세시풍속의 입문 / 15

1월의 세시풍속 / 23

1. 설 23

1)설과 정초세시　2)정조차례(正朝茶禮)　3)세배　4)성묘

5)덕담　6)복조리　7)설빔　8)세화

9)여자들의 외출삼가기　10)곡식 안 내가기　11)정초　12지일

12)패일(敗日)　13)인일(人日)　14)용날　15)인동일(人動日)

16)귀신날　17)곡식날 占치기　18)고양할미

19)부자집 벼 훔치기　20)정초 근신

2. 입춘일 37

1) 입춘(立春)　2) 문배　3) 보리뿌리점(麥根占)

3. 정월 14일 39

1) 밥 얻어먹기　3) 동물소리 듣기(청참)

4) 14일 수세(잠 안 자고 불 밝히기)　5) 벼뿌리 훔치기

6) 복토 훔치기　7) 모닥불　8) 금식수(물 안 내주기)

9) 적선(착한 일 하기)　10) 모기조롱　11) 마당찧기

4. 정월 보름 43

1) 백가반(百家飯)　2) 까마귀밥 주기　3) 소에게 밥 주기

4) 개보름 쇠기　5) 용알뜨기　6) 밥 9번, 나무 9짐 하기

7) 더위팔기　8) 머리카락으로 바늘쌈지 만들기

9) 달맞이　10) 나무 시집보내기　11) 등거리 입기

5. 정월의 시절음식 50

1) 차례상　2) 떡국　3) 약과　4) 오곡밥과 진채식

5) 귀밝이술(耳明酒)　6) 부럼 까기　7) 찬밥 먹기

8) 김치 안 먹기　9) 솔떡　10) 장 담그기

6. 정월의 세시놀이 61

1) 쥐불놀이　2) 쥐불싸움(횃불싸움)　3) 연날리기, 연싸움

4) 윷놀이　5) 널뛰기　6) 기세배　7) 정초 걸립　8) 범놀이

7. 정월의 세시신앙 76

1) 동화제　2) 용왕제, 샘굿　3) 산신제　4) 정자나무제, 거리제

5) 장승제　6) 성주, 터주, 조왕고사　7) 안택고사　8) 보름고사

9) 정월의 점　10) 토정비결　11) 제웅　12) 액막이

2월의 세시풍속 / 121

1) 콩 볶아 먹기 121

2) 경칩일 122

3) 개구리알 먹기 123

4) 노래기 124

5) 머슴날 124

6) 대청소 125

7) 청명일 125

8) 한식(寒食, 淸明節) 125

9) 꽃샘 127
10) 2월의 점 128
11) 2월의 생업세시 130

3월의 세시풍속 / 131
1) 삼짇날 131
2) 화류놀이(꽃놀이) 132
3) 풀쌈놀이 133
4) 풀각시놀이 134
5) 공치기놀이 135
6) 화주 담기 137
7) 논점 137
8) 3월의 생업세시 138

4월의 세시풍속 / 139
1) 초파일 연등 139
2) 봉숭아 물들이기 140
3) 날씨점 141
4) 4월의 생업 세시 141
5) 수신제(水神祭) 142

5월의 세시풍속 / 143
1) 단오 143
2)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148
3) 날씨점 148

4) 풍년제와 사직제 148
5) 기우제 149
6) 5월의 생업세시 151
7) 두레와 품앗이 152
8) 두레싸움 158

6월의 세시풍속 / 161

1) 유두 161
2) 유두차례 161
3) 약수(藥水) 162
4) 하루걸이 치유법 163
5) 6월의 생업세시 163

7월의 세시풍속 / 165

1) 칠석 165
2) 칠성제, 칠성고사 167
3) 백중(머슴날) 169
4) 호미씻이 171
5) 천렵 171
6) 복날 172
7) 두레 먹기(먹두레) 173
8) 삼삼기 174
9) 7월의 생업세시 175

8월의 세시풍속 / 177

1) 추석 177
2) 친정 가기 178
3) 송편 179
4) 목화꽃 눈 치료 179
5) 토주고사 180
6) 조왕고사 180
7) 8월의 세시놀이 180
8) 8월의 생업세시 181

9월의 세시풍속 / 183

1) 중양절 구일차례 183
2) 술 담그기 184
3) 가을 씨름판 184
4) 소풍 185
5) 9월의 생업세시 185

10월의 세시풍속 / 187

1) 가을고사 187
2) 성주제, 성주고사 189
3) 조왕고사 191
4) 터주고사 191
5) 시제 193
6) 김장하기 194
7) 손돌이추위 196

8) 무오(戊午) 말날(馬日) 197
9) 메주 쑤기 198
10) 10월의 절식 199
11) 10월의 생업세시 199
12) 10월 산신제와 장승제 200

11월의 세시풍속 / 203

1) 동지(冬至) 203
2) 동지팥죽 203
3) 메주 띄우기 206
4) 11월의 절식 206
5) 11월 산제 207

12월의 세시풍속 / 209

1) 납일과 납향 209
2) 첫눈 210
3) 참새잡기 210
4) 제석일 211
5) 12월의 산신제 213

윤달의 세시풍속 / 219

▣ 제보자 명단 / 221

세시풍속의 입문

- 세시풍속의 의미와 형성 -

1. 세시풍속의 의미

세시풍속은 일상생활에 있어 계절에 맞추어 관습적으로 되풀이하는 민속을 말한다. 설날, 상원(上元), 단오,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오랜 관습에 의해서 새 옷으로 단장하고 주찬(酒饌)을 장만하여 조상과 제신(諸神)에게 제사하는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 이러한 행사는 오랜 생활문화를 이루고 있으며, 매년 반복되는 관습이어서 세시풍속(歲時風俗)이라 한다.

세시풍속이 생활에 정착한 시기는 일정한 것이 아니겠으나,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거나 필요에 의해서거나, 또는 당위에 의해서 관습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이 같은 자연환경과 같은 역사 속에서 생업을 같이 하고, 동일한 언어를 쓰고 살아오는 동안, 생활관습의 동질성(同質性)을 낳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즉 세시풍속은 생활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고, 계절적으로 반복되는 생활 그 자체가 세시풍속이다. 생활에 있어 한 번, 또는 몇 번 채택되었다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사라진 것은 세시풍속이라고 할 수 없다.

세시풍속은 넓은 지역에 있어 향토문화 현상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민족·국민을 단위로 나타나는 생활 현상이다. 이러한 대단위는 그만큼 공감에 의해서 채택되고 토착화해서 전파되고 전승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한번 토착하면 생활양식이나 의식에 큰 변화가 없는 한은 오래 지속되기 마련이다.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반복되는 생활관습일 때에 그 세시풍속은 확고한 뿌리는 내리고 있다.

세시풍속은 일반성을 띠면서도 이웃과 다른 수도 있다. 즉 보편성을 지니면서 개성을 드러내는 수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종교, 또는 가문(家門)이 관련되는 수가 있다.

유불선은 일찍이 한토(韓土)에 들어와 토착해서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고 생활화하고 있다. 게다가 근대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들어와 외래문화를 도입하여 재래의 관습에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로 이웃에 살면서 일반성이 아닌 특수한 의식 속에 살게 되고, 따라서 전반적이거나 부분적으로 관습을 달리하게 되는 수도 있다.

한편 '가가례(家家禮)'란 말이 있다. 가문에 따라 가훈이 다르고, 제의(祭儀)에도 차이가 있어 특수한 예이기는 하나, 풍속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예는 많은 것은 아니다.

우리의 세시풍속은 반복되는 시계(時季)의 산출을 태음력(太陰曆)에 의했다. 중국 하대(夏代)의 역법인 음력 정월을 설로 삼는 역법을 채택, 계승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으로 여기고, 농경생활을 위주로 하였던 우리는 태음력에 의해서 세시풍속을 구성하였다.

근대화 물결에 따라 고종대(高宗代)에 태양력(太陽曆)이 실시되고, 오늘날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 공식적으로는 양력을 규준(規準)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농·산촌은 물론 도시에 있어서도 세시풍속만은 아직 태음력에 따르고 있는 보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세시풍속은 하루 이틀의 짧은 시일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생활경험에서 느껴서 필요했고, 그래야만 했기에 채택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세시풍속의 공감성과 문화성이 있다. 하나의 세시풍속이 정착하기까지에는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린 것도 있을 것이다. 역사가 오래고, 뿌리가 깊은 만큼 확고하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세시풍속은 냉큼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강인성이 있다.

서구문물을 받아들이고 행정력으로 권장하고 법제화하였어도 여전히 음력이 생활문화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음력을 기준으로 세시풍속의 전개를 언급코자 한다.

2. 세시풍속의 형성

(1) 자연환경

문화형성에 자연환경이 주는 영향은 거의 결정적이며, 세시풍속도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지구상에는 다양한 자연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여러 지역이 있다. 산악지대와 평야지대, 해안과 내륙지대, 또는 한대와 열대, 습

기가 많은 곳과 건조한 곳, 그리고 우량(雨量)이 많은 곳과 적은 곳, 이러한 자연환경 차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교통이 편리한 곳과 벽지에서 교통이 불편한 곳의 차이도 있다. 산촌에서는 산악에 의존하고 산에서 경작하고, 여기에 알맞는 곡물을 재배하며, 산과(山果)와 산약(山藥)에도 의존하게 된다. 한편 수렵이란 특수 산업이 성립되며, 산신이 숭상되고, 산에 의존해서 살기에 알맞은 신앙과 생활이 토착해서, 세시풍속이 이루어진다. 평야지대에서는 쌀밥으로 대체되었으나, 산촌에서는 아직도 조밥, 수수떡이 명절의 음식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자연환경의 영향이다.

태백산맥 줄기의 산촌(山村)에 통나무집이나 너와집이 남아 있고, 산삼을 캐는 심마니가 남아 있는 까닭도 자연환경의 소치이다.

평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은 평화롭고 타협적이며, 계절을 크게 의식하였는데, 우리의 세시풍속은 대체로 여기에 해당한다. 우순풍조(雨順風調)는 농경생활에 있어 가장 기대되는 것으로, 그래야만 농작물이 순조롭게 성장하여 사람들은 생존하고 생활의 안정을 누릴 수가 있었다.

평야에서 오랫동안 정착하여 사는 동안 경험에서 얻은 지혜가 관습을 낳게 되고, 세시풍속으로 반복되어 정착하기에 이르렀다. 한 두 사람이 느끼고 필요해서가 아니라, 만인의 공감에 의해서 채택되었다.

한국의 자연은 온대에 속하고 삼면이 바다이고, 도작농경에 알맞다. 우리의 건물과 의복과 식생활과 그 위에 구축된 생활관습은

자연환경에 알맞게 이루어졌다.

자연환경이란 말은 풍토(風土)란 말로 바꾸어 부르는 수도 있다. 식물, 동물이 풍토에 맞아야 무성하고, 또 풍토에 맞는 동식물만 생존하듯이 세시풍속도 풍토에 알맞게 형성된다. 따라서 지구상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세시풍속은 그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풍토의 영향 아래 이루어졌음을 인정해야 한다.

(2) 생업

인간의 생업은 다양하다. 농경, 어로, 수렵, 상공업 등 여러 가지의 생업이 있다. 생업(生業)은 생을 보장하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어떠한 생업이든 갖게 된다.

생업인 생산양식은 생활양식을 결정하며, 세시풍속에 영향을 준다. 생업에 따라 계절을 의식하게 되고, 일의 완급이 있고, 근(勤)과 한(閒)이 있다. 농가에서는 겨울이 되면 한가하지만 수렵꾼이나 명태잡이를 하는 어부들은 명절에도 바쁘기만 하다. 이 상반되는 현상은 세시풍속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

어민들은 고기잡이가 생업이기 때문에 조류와 바람과 간만(干滿)에 관심이 많다. 따라서 그들의 세시풍속은 농부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내륙 사람들이 산신을 소중히 하는데 대해서, 어민은 해신(海神)을 신앙하는 마음이 강하다. 선내에는 배서낭이 있으며, 출어기에는 정성을 드려 고사를 지낸다.

산삼을 캐는 채약인(採藥人)들은 산신에 관한 의식이 강하고, 여기에 따라 금기제의가 행해진다. 수렵은 각절계(各節季)에 하게 된다. 모두 생업과 세시관습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세시풍속은 거의가 농경생활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고대에 5월과 농공(農功)을 마치고 가을에 하늘을 제사한 것이며, 10월을 상달이라 해서 일년 중에서 가장 높은 달, 즉 하늘을 제사하는 달로 여기는 의식이 있었으며, 정초에 풍년들기를 예축(豫祝)하고, 봄에 역귀(疫鬼)를 예방하는 행위 등 세시풍속은 농경생활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이다.

생업은 먹고사는 현실 문제이다.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계절의 변화를 잘 활용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적기(適期)에 파종하고, 적기에 거두어들여야 했다. 계절을 놓치면 1년 동안 헛수고를 하거나, 소기의 수확을 거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계절에 맞추어 관습적으로 농작을 해야 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생산양식에 맞는 생활양식인 세시풍속을 이루게 되었다.

(3) 역사

어느 민족이건 민족사의 기점으로 시조를 가지고 있다. 실제일 수도 있고, 신화일 수도 있으나, 여하튼 시조에 의해서 민족사가 전개되고 나라가 건국되고 있다. 이러한 시조와 관련되는 기념일은 어느 민족에 있어서나 축일(祝日)로 축하하고 쉬는 세시풍속으로 되어 있다. 우리의 개천절도 그러한 날이다.

불교의 전파, 유교의 전래는 우리 세시풍속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춘추(春秋)의 석존(釋尊)을 각 향교에서 거행하고 있으며, 초파일의 현등(懸燈)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유교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생활화되어 의식과 생활현상에 현저하게 작용을 했다.

설날 차례(茶禮)를 지내고, 세배를 하고, 성묘를 하는 행위는 유교가 가르친 추원보본(追遠報本)사상에서 연유했다.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생활관은 인간 본래의 것이어서 유교에서는 특히 강조했으며, 신라가 당나라의 힘을 빌어 삼국을 통일한 이후로 중국의 문물이 쏟아져 들어왔고, 중국의 풍속이 우리의 풍속으로 정착하기도 했다. 특히 주자가례(朱子家禮)는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사례(四禮)를 정립하는데 결정적인 구실을 했고, 그 영향은 세시풍속에도 미쳤다.

역사상의 변혁이나 제도의 개폐(改廢)는 세시풍속에 영향을 주었다. 갑오경장으로 근대화를 시도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지만, 그 영향이 전통보다는 현실과 실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풍조가 생겼고, 근래에 와서는 신생활 운동의 하나로 마련한 가정의례준칙은 우리 관습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세시풍속이 법제화보다는 생활공감에 의한 것이었으나, 농경 위주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관습이 도시와 산업시대에 있어서는 거추장스럽고 불합리하며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 행정적으로 생활개조를 하고자 가정의례준칙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성은 현실적으로 현대인의 생활에 변화를 요구하고 새로운 관습을 인위적으로 형성시키려고 한다.

역사는 세시풍속을 낳는데 공헌을 했으나, 세시풍속은 생활의식으로 굳어져서 새로운 역사를 낳게 하는 밑거름이나 계기를 만들기도 한다.

(4) 사회

세시풍속은 개인이나 특수인에 한한 것이 아니라, 만인의 것이요, 그 집단에 속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것이기에 사회성을 띠고 있다.

사회관습은 만인에 공감을 주고 오랫동안 한 사회에서 반복되어 세시풍속으로 정착되어 왔다.

'백리부동풍(百里不同風)'이란 말이 있다. 백리를 서로 떨어져 있으면, 그 지역차도 있거니와 교통이 불편했던 옛날에는 문화가 정체(停滯)되어 작은 사회 내에서의 관습이 이루어지고, 그 사회 나름의 세시풍속도 있게 된다.

한 마을에 있는 행사가 이웃 마을에는 없는 일이 있다. 또 한 현상이 마을에 따라 해석이 다르고, 따라서 세시풍속이나 관습에 있어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사회성의 영향으로 그러는 것이다.

유교사회에서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불교나 기독교 사회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고, 불교사회에서 크게 평가되는 것이 유교사회에서는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고 버려지는 수도 있다. 사회의식이 세시풍속의 농도와 강약을 나타내는 수도 있다. 우리의 명절이 기독교인에 의해서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종교의식이면서 사회성과 세시풍속의 관련을 뜻하는 것이 되기도 하다.

공시성(共時性) 속에서의 세시풍속의 농도의 차이는 사회의식에 의해서 작용되는 수가 많다. 사회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과 같아서 생활현상인 세시풍속의 변용(變容)에는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하여 왔다.

1월의 세시풍속

1. 설

1) 설과 정초세시

- 정월 초하루를 '설', 또는 '연종'이라고도 했다.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목면 안심리 김재복. 남양면 구룡리 김동수)

2) 정조차례(正朝茶禮)

- 설날 아침 일찍 세찬과 세주를 마련하여 사당에 진설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정조차례라고 한다. 사당은 지손은 모시지 않고 장손이 모시는데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 4대조의 신주를 모셔 두며 정조차례 때에는 차례대로 제사하고, 보통 제사 때에는 해당되는 분에게만 제사하게 된다. 5대조 이상의 신주는 각기 분묘 옆에 묻어 집에서는 지내지 않고 10월에 있는 시제 때에만 제사를 지낸다.
- 차례 때에는 원근에 있는 자손들이 모두 장손 집에 모여 함께 지내는데 단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다. 옛날부터 의 오랜 관습

에 의해 원단과 추석날은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끼리 지내며 이 때에 하는 행사는 차례가 중심이 된다. 지금도 연말과 추석명절에 교통이 대혼잡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 차례를 지내기 위하여 고향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3) 세배

- 차례 지내고 집 어르신부터 세배를 한다. 동네세배는 어르신이 있는 집만 하러 간다.

  세배를 한 사람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했다고 한다.

  남자가 먼저 세배를 하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세배한 후에 세배를 한다. (대치면 산정리 김계순.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남양면 구룡리, 김동수.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 세배를 하면 떡과 술만 대접하고, 세뱃돈은 최근에 생긴 것이다. 또한 대접할 것이 없는 집에서는 그냥 돌려보냈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설날 아침에는 차례를 지내고 아버지, 어머니 뵙고, 집안 및 동네 어른을 찾아뵈었다. 설날 온 손님들 중에 애들한테는 산과, 약과, 강정 등을 주었고, 어른들한테는 편탕을 끓여서 술을 대접했다. 나이 많은 분과 어린 사람이 겸상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이 많은 분이 허락을 한 경우에는 겸상을 하기도 했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설날 아침 차례 지내고 떡국을 먹은 후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어른에게 세배를 했다. 세배를 안 하면 후일에 어른에게 걱정을 들었고, 젊은이도 깨름찍한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예전엔 어른 공경하는 마음이 컸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어떤 사람은 피백이라고 하며 부모부터 절을 하고 나서 집안 어른의 순으로 세배를 한다. 세배는 방에 들어와서 하며 며느리는 바빠서 절을 받아본 적도 없다.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 설날에는 마을별로 세배가 있었는데, 박정희 때에 없어졌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른들에게 했다. 복조리가 있었다. (남양면 매곡리 1구, 최창호).
- 차례가 끝나면 일동은 자리를 정리해 앉는다. 이때 조부모, 부모, 백숙부모, 형제 등 차례로 절을 하고 새해 첫인사를 드리는데 이를 세배라고 한다. 집안에서 세배가 끝나면 차례 지낸 세찬과 떡국으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일가 친척과 이웃 어른을 찾아가서 세배를 드리게 되는데 사당을 모신 집이 있으면 먼저 사당에 절을 한 다음 세배를 드린다. 세배를 받은 측에서는 어른에게는 술과 음식을,(酒食) 아이에게는 과자와 돈으로 대접하며 정담을 나누기도 한다. 일가 어른이 먼 곳에 살 때에는 수십리 길을 찾아가서라도 세배를 드리는 것이 예의로 되어있으며, 세배를 할 줄 모르면 교양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다. 먼 곳에는 정월 15일까지 찾아가서 세배를 하면 인사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4) 성묘

- 설날에는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께 세배를 하며, 성묘를 갔다온다. 집안끼리는 세배를 먼저 하고 성묘를 한다. 그리고 이웃 어른들은 성묘를 갔다와서 세배를 한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 설날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 성묘를 한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다는 인사를 조상의 묘에 고하는 것이다. 생존한 어른에게는 세배를 하지만 이미 사별한 조상에게도 생존시처럼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수많은 자손들이 나이 많은 어른을 앞에 모시고 조상의 효열담(孝烈談)을 들어가면서 줄을 지어 눈길 속에 성묘가는 모습은 아름다운 정경이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5) 덕담

- 덕담은 보통 "어른들 모시고 잘 살아라", "건강하라", 학생이면 "공부 잘하라", "몸 조심 하라", "복 많이 받아라"라고 말한다.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목면 안심리 김재복)

-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라고 말한다. 그러면 윗사람은 "1년 내내 건강하라."라고 말한다.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 차례를 지낸 후 집안 어른과 마을 어른들께 세배를 하러 다니고 세배를 할 때에는 "몸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등의 인사를 한다. 그러면 어른들은 "몸 건강하고 공부 잘 해라"라고 하며 덕담을 해준다. (≪청양군지≫, 1995)

• 정초에 어른이나 친구를 만났을 때에 말로써 세배인사를 교환하는데 이를 덕담(德談)이라고 한다. 이때에, "과세 안녕하셨습니까?" 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며, 어린아이들이게는 "새해 복 많이 받게" 또는 "새해에는 소원성취하게" 하는 등으로 처지와 환경에 알맞은 말을 한다. 덕담은 새해를 맞이하여 서로 복을 빌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축하의 뜻을 표시하는 것이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6) 복조리

• 복조리는 설 전에 상인들이 갖고 다니는 것을 2~3개씩 산다. 상인들이 문 안쪽으로 던지고 가서, 나중에 돈을 받으러 오기도 한다. 또한 집안의 어른들이 사온다. 그 속에 쌀, 돈, 초.(합천리)를 넣어두기도 하며 아무 것도 넣어두지 않는 집도 있다. 복조리는 문 위에 놓아두며, 보름이 지나면 떼어서 쓴다. (남양면 구룡리, 김동수)

• 복조리 장사는 10여 년 전에 없어졌다. (화성면 합천리, 이한숙)

• 정월 초하루 대나무로 복조리를 만들어 팔았고, 집집마다 이것을 사서 문 앞에 걸어두었다. 그 안에 쌀이나 돈을 넣었다고 한다.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 복조리는 보름날 아침에 두 개정도 사서 걸어두었는데, 그 안에 쌀, 돈, 실을 넣어두었다.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 보름날에는 복조리를 산다. 이는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서이고 새벽에 장사꾼이 마당에 복조리를 던져두고 갔다가 날이 새면

돈을 받아간다. 이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 온 장사꾼이며 복조리 값으로 곡식이나 돈을 준다. 복조리는 대개 2개로 사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사놓은 복조리는 안에 쌀, 엿, 성냥 등을 넣고 안방문 위에 걸어놓는다. (≪청양군지≫, 1995)

7) 설빔

- 옷은 어른들이 해오는데, 비단 끊어오면 비단옷을 입고, 무명을 갖다 주면 무명을 입는다. 옷은 설 20일 앞부터 만들며, 신발과 버선도 사주셨다. 남자들은 바지저고리에 여자들은 색동저고리에 분홍치마를 해 입었다. 한 해 입을 옷을 설빔과 함께 설전에 모두 만든다. (화성면 합천리, 이한숙)
- 없는 집은 설이 돼야 짚신을 겨우 사줄 수 있었으며, 좀더 좋은 집은 나무괴(나무신발)를 사줬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설빔은, 잘 사는 집은 명주로 옷을 해 입었고, 가난한 집은 목화로 옷을 해 입었다. (남양면 구룡리, 김동수)
- 설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미리 마련해 놓은 새 옷을 입는데 이 새 옷을 '설빔'이라고 한다. 설빔을 위해 각 가정에서는 가을부터 옷감을 마련하였다가 주부는 미리 정성껏 만들어 둔다. 설빔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살림정도에 따라서 마련하거니와 어린아이는 설빔에 대한 기대가 크고 서로 자랑도 하게 마련이다.

옛날 같으면 어른은 두루마기 또는 도포를 비롯하여 버선·대님까지 새로 한 벌을 하며, 바지저고리에는 새 솜을 두어 엄동설한에도 추위를 모르게 한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한 벌을

마련하여 색동옷으로 곱게 단장한다.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을 입으므로 마치 꽃밭처럼 아름답다. 설빔으로 옷을 갈아입은 뒤에야 차례를 지낸다. (임동권, ≪한국세시풍속≫, 서문당, 1999)

8) 세화

- 대문에, 갑옷을 입고 한 손에 도끼를 들고 서 있는 장군상을 그려 붙였는데 이를 문배(門排)라 부른다. 민가에서 붙이는 문배는 궁중속(宮中俗)인 문배에서 유래했으며, 궁중에선 1길이 넘는 문배를 대궐문에 붙였다. 또 문배에는 봉황과 까마귀를 그려 중합문에 붙이고 종도가 귀실을 잡는 세상이나 귀두상을 그려 문도리에 붙였는데, 그것은 病神, 액 앙 神, 火難, 災殃 등의 부정을 쫓으려는 목적에서였다. 또 옛날 궁중용 그림을 그리는 도화서에는 성수신여상(星壽仙女像)과 직일신장상(直日神將像)을 그려서 헌상하고 관아에 나누어주거나 선물로 주기도 했는데, 이를 세화(歲畵)라 했다.

  여염집에서도 상류 사회의 이와 같은 풍속을 본떠서 벽에 닭과 호랑이의 그림을 그려 붙였다. 닭과 호랑이는 "吉·양"을 뜻하는 동물일 뿐 아니라 정월은 인월(寅月)이므로 호랑이를 의미하며 재액을 물리치려는 생각에서 나온 민속이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9) 여자들 외출 삼가하기

- 여자들은 보름이 지나기 전에는 외출을 삼가했다고 한다. 남자들은 정초에 세배하러 다니지만 여자들은 집에서 손님접대를

계속했다고 한다. (대치면 산정리, 김계순)

- 정초에는 여자가 밖으로 마실가는 것은 안 된다. 보름이 넘어야 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여자는 식구들끼리만 세배를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세배를 하지 못하였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남자가 들어와야 그 해 재수가 좋고 여가가 들어오면 재수가 나쁘다고 한다. (화성면 합천리, 이한숙)
- 초하루날 여자는 집 밖으로 외출을 하지 못했다. 보름이 지나야 나갈 수 있다. 정초에 여자가 들어가면 그 집 삼베가 키가 안 큰다고 한다.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 정초에는 여자들이 남의 집에 가면 안되고, 정월에는 곡식이나 돈이 내가는 것을 꺼려했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10) 곡식 안 내가기

- 곡식은 보름 지나면 나가는데, 그 전에는 나가지 않는다. (화성면 합천리 이한숙)
- 양식도 내가지 않고, 왕골자리를 쓸면 먼지같은 것을 자리 밑에 넣어두어 보름이 지난 후에야 버린다.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 곡식 안 내기는 농가에서 정초에 자기 집 곡식을 팔거나 빌려 주지 않는다. 이는 이시기에 곡식을 내게 되면 자기 재산이 남에게 가게 된다는 속설 때문에 행해진 풍속이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2001, 집문당)

11) 정초 12지일

(1) 유모일 · 무모일

- 신나라 장군 때 털이 많은 날을 가렸는데, 털이 있는 날에 종자를 담근다. 이 날에 담그면 농사를 잘 짓는다고 했다. 털이 많은 것처럼 많이 자라는 것이란 뜻으로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다. 털이 없는 날에는 안 좋은 날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 그 해를 통틀어 봐서 유모일이 많으면 그 해 목화가 잘 된다고 한다.(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2) 상자일(上子日)

- 정월 첫째 자(子일)을 '상자일'이라 하는데 곧 '쥐날'이다. 이날 농부들은 쥐를 없애기 위해 들에 나가 논밭 두렁의 풀을 태우는데 쥐가 없어지고 해충이 제거되고 새싹의 발아도 촉진되어 그해 농사가 잘 된다고 하여 '쥐불놀이'를 한다. 요즘에는 보름날 밤에 횃불놀이를 겸해서 쥐불놀이를 많이 한다. 쥐날 밤 자시(子時)에 방아를 찧으면 쥐가 없어진다고 해서 부녀자들은 밤중에 방아를 찧는다. 방아에 넣을 곡식이 없으면 빈 방아라도 찧어서 요란한 소리를 낸다. 상자일엔 일도 하지 않고 백사(百事)를 금하고 놀았다고 하는데, 쥐가 곡식을 축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상자일 밤엔 불을 밝히지 않으며 길쌈을 하거나 의복을 짓는 일도 하지 않는다. 옷이나 천을 쥐가 쏠기 때문이다. 그러나 곡식을 볶아서 주머니에 넣으면 재수가 좋다고 전한다. 대궐에서는 주머니를 만들어 명주실로 끈을 만들고 큰 나비같이 두 귀를 싸서 문안(問安)오는 근신(近臣)이나 재상에게

나누어 주었다(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3) 상축일(上丑日)

- 정월 들어 첫 소날을 말하며 소달깃날이라고 부른다. 이 날은 소와 말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쉬게 하며 나무와 콩을 삶아 먹여 위로하고 살찌게 하기도 한다. 상축일에 연장을 만지면 농경 때에 장기나 보습이 부러지고, 방아를 찧으면 소가 일할 때에 기침을 하며, 식량을 집밖으로 내보내면 소가 죽거나 힘이 빠진다고 해서 금기로 한다. 그러나 멀리 가는 것은 탈이 없다고 한다. 제주도에서는 이날 관을 쓰는 일을 하지 않으며 또한 혼인식도 안 한다. 이날 혼인을 하면 흉사가 있거나 그 혼인이 불행해진다고 전하기 때문이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4) 상묘일(上卯日)

- 정월의 첫 토끼날을 말하는데 '상묘일' 또는 '토끼날'이라 부르기도 한다. 토끼날에는 남자가 먼저 일어나서 대문을 열어야 한다. 가장이 열면 좋으나, 가장이 없을 때에는 누구든지 남자가 먼저 대문을 열기로 되어 있다. 그렇게 하면 일년동안 가운이 융성하다고 한다. 만일 여자가 먼저 대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가운이 불길하다고 한다. 이것을 철저히 지키는 집안에서는 밥 짓는 일도 남자가 대문을 열고 밖에 나간 다음에야 방문을 열고 나와서 한다. 토끼날은 장수를 비는 날이기도 하다. 이날은 남녀 모두 명주실을 청색으로 물들인 명사(命絲)를 팔에 감거나 옷고름에 매달거나 문 돌쩌귀에 걸어 두는데, 그렇게 하면 명이 길어진다고 전한다. 또 상묘일에 실을 짜거나 옷을 지으면

장수한다고 해서 부녀자들은 실을 짜고 옷을 지으며 베틀이 있으면 한 번씩 올라가서 베를 짜본다. 그래야 장수한다고 전한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5) 상진일(上辰日)

- 정월의 첫 진일을 상진일이라고 하는데 용란을 뜨는 민속이 있다. 즉 상진일 이른 새벽에, 농촌에서는 부인이 남보다 먼저 우물에 가서 물을 긷는다. 상진일에는 천상의 용이 하강해서 우물에 알을 낳는다고 하여 아무도 길어가지 않은(우물에 일찍 가서 물을 뜬다는 것은)우물 속에 낳은 용란을 뜬다는 것이다. 이것을 '알 뜨기'라고 하는데 용알을 떠다가 밥을 지어먹으면 그 해는 농사가 잘 되어서 풍년이 든다고 전한다. 그래서 농촌의 부인들은 이른 새벽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간다. 용란을 먼저 떠간 사람은 용알 뜨고 없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짚을 우물에 띄운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보고 다른 우물을 찾아가기 마련이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6) 상사일(上巳日)

- 정월 들어 첫 사일을 '상사일' 또는 '뱀날'이라고 한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7) 상오일(上午日)

- 정월에 들어 첫 말날을 말하며 예전에는 말을 숭상하였으므로 이날 말에게 제사 지내고 찬을 주어 말을 위로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풍속은 희박해지고 10월의 말날에 집중되었다. 이날은 고사를 지내거나 장을 담그고 김장을 하는 수도 있다. 또 말의 해에 태어난 사람은 양기가 강하기 때문에 남자는 좋으나

여자는 팔자가 세다고 해서 혼처를 고르기 어려웠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8) 상미일(上未日)

● 염소날이라고 하며 이날은 거의 무관심하게 보내고 있다. 그러나 염소는 걸음걸이가 방정스러워서 어촌에서는 출항을 하지 않고 제주도에서는 이날 약을 먹어도 효용이 없다고 해서 먹지 않는다. 그러나 좋은 날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해가 없다고 한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9) 상해일(上亥日)

● 정월 첫 해일이 '돼지날'이다. 돼지날에는 얼굴이 검거나 피부색이 검은 사람은 왕겨나 콩깍지로 문지르면 살결이 희고 고와진다고 전한다. 돼지는 살결이 검고 거친데 그 반대의 뜻으로 이런 민속이 생긴 것이다. 상해일엔 바느질을 하지 않고 머리도 빗지 않는다. 바느질을 하면 손가락이 아리고, 머리를 빗으면 풍증(風症)이 생긴다고 해서 금하기 때문이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12) 패일(敗日)

● 매월 초닷세날을 패일이라고 하며 이 날은 액이 있고 불길한 날어서 출행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개 집에서 근신하고 부정하는 것을 보거나 접하는 것을 꺼려했다. 정월의 5일, 14일, 24일은 삼패일(三敗日)이라고 해서 조심하였으며 바느질을 삼갔다.(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13) 인일(人日)

- 인일은 초엿세날로 특별한 일은 하지 않는다.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 정초에는 남의 집에 가서 유숙하지 않지만 특히 7일 인일(人日)에는 외숙(外宿)하지 않는다. 이날 객(客)이 와서 묵고 가면 그 해는 불운이 든다고 한다. 부득이 객(客)이 와서 묵게 될 때에는 불운을 막기 위해서 주인과 객(客)은 머리를 반대로 두고 자야만 액운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옛날 나라에서는 인일제시(人日製試)를 하였는데 인일(人日)에 유생(儒生)들에게 시험을 보여 등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14) 용날

- 용날이 너무 많으면 그 해 물이 많거나 혹은 가뭄이 든다고 한다. 용날은 일년동안 다섯에서 여섯 마리 정도가 있는 게 적당하다. 용날이 많으면 용들끼리 서로 싸워서 물을 많이 주거나 서로 물을 주지 않는다고 싸워서 홍수나 가뭄이 든다고 한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15) 인동일(人動日)

-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날로,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 날은 책력으로 표시가 되어있으며 거의 달마다 있다고 한다. (운곡면 안심리 윤광희, 이계준, 양진석)
- 인동일은 책을 보면서 확인한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16) 귀신날

- 정월 열엿세날을 귀신일이라고 하며 아이를 데리고 마실도 못 갔다.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17) 곡식날 占치기

- 초여드렛날로 이날에 농사점을 친다. 농사점을 어떻게 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 정월 8일은 곡식날로 이날 곡식 심을 준비를 하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닭장을 치우고 돼지우리와 소 외양간을 쳐서 논밭에 내며, 보리밭에 거름을 준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18) 고양할미

- 하늘에 산다는 고양할미가 설날 지상에 내려왔다가 소의 날에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데 고양할미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는 자기가 먹을 곡식을 한 말 가지고 와서 하루에 한 되씩 먹는다고 한다. 10일 이내에 소날이 되어 승천하게 되면 곡식이 남게 되거나 가져온 것만 먹고 가게 되지만, 11일이 머물게 되면 열 한 되를 먹게 되므로 쌀이 한 되 모자란다. 그래서 꾸어다 빚진 채 승천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해 흉작이 든다고 하고 소날이 이 빨리 와서 곡식을 남기도 승천하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19) 부자집 벼 훔치기

- 정초에 밤에 몰래 부잣집의 논에 가서 벼를 훔치는데 벼의 뿌리와 밥을 부엌에 놓으면 부자가 된다고 한다. (운곡면 신대리 김재복)

20) 정초 근신

- 정초에는 재수 없다고 해서 개를 잡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다. 돈을 빌려주는 것도 낮에만 빌려주고 밤에는 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자기 복이 돈과 함께 간다고 믿었다.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 보름 안에 부모에게 꾸지람을 들으면 좋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큰일이 아니면 혼내지도 않고 매도 들지 않는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2. 입춘일

1) 입춘(立春)

- 입춘날에는 춘련 또는 입춘첩이라 하여 좋은 글, 곧 '입춘대길' 등을 써서 대문에 붙이고 일년이 길하기를 축원하였다. 이 날은 매운 생채 요리를 만들어 새봄의 미각을 돋게 했다. 또한 장을 담그는 시기이기도 하다. 음식으로는 탕평채, 승검초 산적, 죽순나물, 죽순찜, 달래나물, 달래장, 냉이 나물, 산갓 김치 등이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2) 문배

- 정월에 거북구(龜)자나 용 용(龍)자를 써서 붙였고 그림은 그리지 않는다. 그리고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으로 써서 붙이는데 한문을 많이 아는 향장(鄕長)이 써준다. 벽에 쓰는 것은 "안만건곤복만가"라, "안사오복강전무"라고 쓰는데 이 뜻은 집 앞에 와서 오복을 가지고 춤을 춘다는 뜻으로 복이 집에 가득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대문 벽에는 복만의 동서남북 아무 곳에 가도 복이 오라는 뜻의 한자를 써 붙인다. (대치면 농소리 최재만.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 용(龍)을 그려서 대문에 붙이고 기둥에도 글을 써서 붙이는데 붙이는 순서는 없고 모든 기둥에 붙인다.

  그 뜻은 "하늘은 세월을 더하고 사람은 목숨을 더하고 봄은 뜰앞에 가득하고 집안에는 복이 가득하다."라는 것이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입춘 때는 대문 앞에 용 '용(龍)'자 거북 '구(龜)'자를 써서 붙여두었다.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3) 보리뿌리점(麥根占)

- 입춘 때 보리뿌리 점을 보았는데, 보리뿌리가 세 뿌리가 나오면 그 해 보리 농사가 잘 된다고 하고, 더 적게 나오면 흉년이 든다고 했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입춘날 보리뿌리 점을 쳤다. 보리를 캐봐서 보리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해 풍년이 든다고 했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3. 정월 14일

1) 밥 얻어먹기

- 14일 밤에는 소쿠리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며 밥을 얻어먹으러 다녔다. 소쿠리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녔다. 여자들은 다니지 않고 주로 남자들만 다녔다. 밥을 얻어먹으면 부스럼을 방지한다고 한다. (대치면 농소리 최재만)

2) 밥 훔쳐먹기

- 정월 14일에 밥을 훔쳐먹는다.(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 정월 14일 밤이 되면 아이들이 남의 집의 밥을 훔쳐서 부엌에서 먹었다고 한다. 남의 밥을 훔쳐먹으면 더위가 안 든다고 했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3) 동물소리 듣기(청참)

- 14일 밤, 15일 새벽에 큰 동물소리를 들으면 좋다고 한다. 그래서 큰 동물소리 듣기 위해서 새벽에 멀리 가기도 한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새해 첫 새벽에 거리로 나가 방향도 없이 돌아다니다가 사람의 소리든 짐승의 소리든 처음 들리는 그 소리로써 그 해 1년 중 자기의 신수(身數)를 점치는데, 이것을 청참(聽讖)이라고 한다. 까치 소리를 들으면 그 해는 풍년이 들고 행운이 오며, 참새 소리나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흉년이 들고 불행이 올 조짐이라고

한다. 그리고 먼데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풍년도 아니고 흉년도 아닌 평년작이 들고, 행운도 불행도 없이 지낸다고 한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4) 14일 수세(잠 안 자고 불 밝히기)

- 14일 저녁에는 밤에 잠을 자지 않는데, 윷놀이나 윷점 등을 보면서 밤을 샜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14일 밤에는 잠을 자면 눈썹이 샌다고 해서 밤을 새었다. 밤새 윷놀이를 하면서 놀거나 고소설을 읽으면서 놀았다. 한사람이 읽으면 다른 사람들은 들으면서 밤을 새었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14일 저녁에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고 한다. (대치면 농소리, 최재만)
- 정월 14일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밤새 불을 밝혀두었다.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 수세는 섣달 그믐날 하지 않고 정월 열나흗날에 한다. 장독대에서 토지지신에게 올린다. 또한 터주가리를 해 놓기도 한다. 음식을 많이 해 놓으면 그만큼 수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올려 놓는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 정월 14일에는 집안이 맑으라고 등잔불에 기름을 넣고 밤을 밝힌다. 예전에 광산이 문을 열었을 때에는 광산에서 쓰는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며 잡신을 쫓은 적도 있었다. (남양면 매곡리 1구, 최창호)
- 정월 14일 밤에는 불을 끄지 않고 밤새도록 밝게 해 둔다. (정

산면 광생리 오세형)

5) 벼뿌리 훔치기

- 부자집 벼뿌리를 훔치면 부자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이 부잣집 논구덩이에 가서 정월 14일에 됫밥(벼뿌리)을 깨다가 부뚜막 조왕 앞에서 놓고서 밥을 해서 퍼놓았다.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6) 복토 훔치기

- 복토 훔치기는 부잣집의 흙을 몰래 훔쳐다 자기 집의 부뚜막에 발라 복을 기원하는 풍속이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7) 모닥불

- 14일 저녁이나 15일 아침에 마당을 쓸어 한곳에 모아 또 쓰레기를 얹고 그 속에 아주까리대·깨대·청죽·헌 대빗자루 등을 함께 태운다. 그러면 연기가 많이 나고, 타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서 마치 폭죽과 같이 된다. 이런 요란한 소리가 연속해서 크게 날수록 그 해의 통 농사와 보리 농사가 잘 된다고 해서 호남지방에서는 모닥불을 흔히 놓는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2001, 집문당)

8) 금식수(물 안 내주기)

- 14일에 남에게 물을 주면 김매는 날에는 폭우가 와서 논과 밭

두렁이 무너진다고 한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남에게 주는 것을 금하고 있다. 14일에는 남의 집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지도 않거니와 달라고 해도 좀처럼 얻어먹기가 어렵다. 또 이날에는 김치를 먹지 않으며, 특히 동치미 국물을 먹지 않는 곳도 있다.

상원날에 해뜨기 전에 우물물을 긷지 않고 저녁이 되야 긷는다. 그래서 14일 저녁에 미리 다음날 쓸 물을 넉넉히 준비한다. 만일 상원날에 물을 길으면 여름에 홍수가 나서 논밭의 둑이 무너지고 수해를 입어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9) 적선(착한 일 하기)

- 14일 밤에 당년의 신수가 나쁜 사람은 적선을 해야만 액을 면할 수 있다고 해서 개천에 다리를 가설하거나 유두돌을 놓는 일이 있다. 즉 액을 면하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되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람의 왕래가 많으나 다리가 없어서 불편한 곳을 찾아, 밤에 몰래 다리를 놓는 것이다.

유두를 놓을 때에는 섬 속에 돈을 넣어 두는 일도 있다.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이나 아이들이 주워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적선이 되는 것이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10) 모기조롱

- 정초에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14일 밤에 불태우는데, 이것은 여름에 모기가 없어진다고 해서 '모깃불'이라고 한다. 탈 때의 소리가 모기를 쫓아내고, 집안에 있는 잡

귀들도 달아나게 된다고 한다. 또 모기를 팔기도 하는데, "우리 마을 모기 다 가져가게"라고 하면, 다시 "자네 마을 모기 다 받았네"라고 외치며 매매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모기를 이웃 마을에 팔게 되면, 그 마을에는 여름에 모기가 없다는 것이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11) 마당찧기

• 14일 밤에 절굿공이나 떡메를 가지고 마당 네 귀를 찧고 다닌다. 이때에 여기도 내땅, 저기도 내땅이라고 한다. 그러면 연중 복이 가득하고 터주신이 만족해서 재물이 더욱 늘어난다고 한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4. 정월 보름

1) 백가반(百家飯)

• 보름날에는 백 집의 밥을 먹어야 좋다고 한다. 그래서 남의 집을 다니며 일부러 걸식을 해서 많은 집의 밥을 먹는 일도 있다. 백가반을 먹지 않으면 어린 아이가 봄에 발병하고, 몸이 마른다고 한다. 백가반을 얻어다가 절구에 올라타고 개와 마주앉아, 개에게 한 수저 먹인 다음에 자기도 한 수저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한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2) 까마귀밥 주기

• 보름 아침에 까마귀에게 밥을 주는데 이는 까마귀에게 밥을 주

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다른 새에게는 밥을 주지 않는다. (운곡면 안심리 윤광희, 이계준, 양진석)

3) 소에게 밥 주기

- 보름 아침에 소에게 밥과 나물을 주는데 소가 어떤 음식을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풍년과 흉년이 가려진다. 치 바닥에다가 나물(고사리, 취나물 등)하고 밥하고 놓아서 먼저 먹는 것으로 금년에 풍년, 흉년든 것을 점을 친다. (대치면 산정리 김계순)
- 정월 14일 저녁, 소에게 나물과 밥을 주는데, 소가 나물을 먼저 먹으면 흉년이 든다고 그랬고, 밥을 먼저 먹으면 풍년이 든다고 했다. (운곡면 안심리 윤광희, 이계준, 양진석)
- 정월 14일에 사람 먹는 데로 차려서, 치(키)에다 받쳐서 소에게 준다. 안 먹으면 그 집안에 액운이 낀다고 하고 다 먹으면 만사가 좋다고 한다. 어느 것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서 풍년이 든다고도 한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보름날 개에게는 밥을 주지 않지만, 소에게는 잘 차려 주었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보름날 아침에 짚을 깔고 위에 나물하고 밥을 놓고 소에게 먹였다. 소가 먼저 먹는 것으로 풍, 흉을 점쳤다.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 상원날 아침 일찍 소에게 밤과 나물을 차려 주는 풍속이다. 즉 찬밥과 나물을 상이나 키에 담아서 준다. 소는 농작에 큰 힘이 되고, 값이 비싸 큰 재산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소중히 다룬다. 따라서 소를 위하고 위로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이때에

소가 무엇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 연일(年事)을 점친다. 즉 소가 밥을 먼저 먹으면 농사가 풍년이 들고 나물을 먼저 먹으면 목화가 풍작이 든다고 믿었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2001, 집문당)

4) 개보름 쇠기

- 보름날에는 개밥을 아침 일찍만 주고 낮에는 주지 않았다고 한다. (대치면 산정리 김계순,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 보름날 개에게는 밥을 주지 않지만, 소에게는 잘 차려 주었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개는 아침 저녁에만 먹이를 주고, 낮에는 주지 않는다. 그러나 대보름에는 온종일 먹이를 주지 않고 굶긴다. 대보름날 개에게 밥을 주면 개가 마를 뿐 아니라, 파리가 꼬여 더러워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속담에 사람이 밥을 굶을 때에 '개보름 쇠듯 한다'는 말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다. 속담에 개팔자라는 말은 먹고 편안히 노는 사람의 팔자를 가리키나, 개도 상원날엔 굶어야 했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2001, 집문당)

5) 용알뜨기

- 보름 아침에 새벽에 일찍 갔다 오는데 먼저 떠간 사람이 임자이다. 표시는 하지 않는다.

그 물을 떠는 부엌에 놓고 절을 하고 밥을 해먹는다. 정월 보름날 아침 일찍 마을 우물물을 떠와 먹었다고 한다. 이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야한다. 제보자는 직접 하지는 않고 듣기

만 했다고 한다. (대치면 산정리 김계순, 운곡면 신대리 김재복, 화성면 합천리 이한숙)

- 시암(샘)에 일찍 가서 용알뜬다고 물을 뜨기도 했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용알이라고, 자고 일어나서 샘에 제일 먼저 가서, 채를 물에 담궈놓고 정월 보름날에 달을 떠서 그 물로 밥을 해서 놓고 빈다. 그러면 부자가 된다고 한다.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 정월 14일날 오곡밥을 만들어서 김에 싸서 보름날 새벽에 샘에 넣다가 빼곤 했다. 그 물을 떠다가 먹는데, 이것을 용의 알을 뜬다고 했다.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6) 밥 9번, 나무 9짐 하기

- 보름날에는 밥 아홉 번 먹고, 나무 아홉 짐 했다. 오곡밥을 해 먹고, 나물을 해먹었다. (대치면 산정리 김계순, 목면 안심리 김재복, 합천리 이한숙)
- 남자는 보름에 밥 아홉 번 먹고, 나무 아홉 짐을 했고, 여자는 밥 아홉 번 먹고, 삼 삼는 것을 아홉 번을 했다.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 정월 14일날 나무 아홉 짐과 밥 아홉 번을 먹는 풍습이 있었다. 이제 일을 부지런히 해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밥을 많이 먹고 일을 많이 한다고 한다. 14일 저녁은 해 지기 전에 먹고 보름날 아침에는 해 뜨기 전에 아침을 먹어야 한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나무 아홉 짐하고 밥 아홉 번 먹는 것은 얘기로 듣기만 했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상원날에 나무를 아홉짐하면 큰 부자가 된다고 한다. 상원은 명절이라 누구든지 즐겁게 논다. 밥도 여러 번 먹고 걸립패와 함께 농악을 치고 술과 음식을 마음껏 먹는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나무 아홉짐이나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는 데서 전해오는 것이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7) 더위팔기

- 정월 보름 새벽에 아이들이 식전에 일어나서 내 더위를 다른 사람에게 판다. 더위를 파는 방법은 "아무개!"라고 사람을 부른다.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대답하지 않고 "먼더위(먼저 더위)"라고 하면, 내 더위가 그 사람에게 간다고 한다. 또 사람들은 "아무개 자식, 더위 팔러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욕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더위를 팔러 온 것이 아니라면 "나 더위 팔러 온 거 아니야!"라고 해야, 상대편에서 대답을 하며 일을 볼 수 있었다.

  더위를 산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다시 판다. 이때 더위를 산 사람은 2배로 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더위를 팔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고 건강히 보낼 수 있다고 한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대치면 농소리 최재만,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 더위팔기는 "니 더위 내 더위 먼저 더위"라고 했는데, 보름 아침 일찍 불러서 대답을 하면 더위를 팔 수 있었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정월 보름날 아침에 해 뜨기 전 아침 먹기 전에 "내 더위 내 더위 먼저 더위" 하면서 더위를 팔았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보름날 아침에는 더위팔기를 했는데,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불러서 대답을 하면, "내 더위"라고 하면서 판다. 대답 대신에 "먼저 더위"라고 하면, 오히려 부른 사람에게 더위가 간다고 한다.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8) 머리카락으로 바늘쌈지 만들기

- 정월 보름에 머리카락으로 바늘 쌈지를 만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다.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9) 달맞이

- 보름에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였다.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 대보름날 밤에는 달맞이 풍속이 있다. 달맞이는 초저녁에 높은 곳으로 올라서 달을 맞는 것을 말하며, 먼저 달을 보는 사람이 길하다고 한다. 아울러 달의 형체, 대소, 출렁거림, 높낮이 등으로 1년 농사를 점치기도 한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2001, 집문당)
- 예로부터 보름달은 어둠을 몰아내는 밝음, 보다 밝은 세상을 약속하는 기원의 대상물로 숭상되어 왔다. 새해 들어 가득 찬 달을 맞이하며 민중들은 갖가지 놀이를 통하여 그들의 공동체의식을 새삼 일깨우는 한편 복된 앞날을 다짐하는 놀이를 벌여왔

다. 초저녁 홰를 가지고 동산에 올라가서 보름달이 솟기를 기다린다. 솟아오르는 보름달을 먼저 보아야 길하다고 하여 서로 앞을 다투어 마을 동산으로 올라간다. 달이 뜨면 홰에 불을 다리고 절을 하며 소망을 빈다. 지방에 따라 서는 이 날의 달빛을 보고 그 해 농사의 흉풍을 점치는데 달빛이 희면 비가 많이 내리고, 붉으면 가뭄이 들고, 흐리면 흉년이, 진하고 뚜렷하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 이날 저녁이 되면 달맞이를 한다. 이는 개가 계수나무를 집어(찢어) 먹으면 농사를 망친다고 하여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이다. 개가 계수나무를 집어 먹는 것은 구름이 끼어거나 구름이 끼지 않는 때라도 유난히 달이 어둡게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보름날 새벽 우물에 비친 달을 다른 사람들이 떠가기 전에 먼저 떠가면 그 집을 그해 부자가 된다고 한다. (≪청양군지≫, 1995)

10) 나무 시집보내기

- 보름날에 나무에 열매가 잘 열라고 오곡밥을 나무에 끼워 두었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설날이나 15일에 과수를 가진 집에서는 나무의 두 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 둔다. 이렇게 하면 그 해는 과실 풍년이 든다고 하는데, 이것을 과일 시집보내기라고 한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대추나무·감나무·밤나무·배나무 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둔다. 사람도 혼인을 해야 자식을 낳는 것처럼 나무도 시집을 보내야 많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임동권, ≪한국의 세

시풍속≫, 서문당, 1999)

11) 등거리 입기

- 상원날에 저고리의 일종인 등거리를 해서 입으면 1년 동안 신수가 좋다고 한다. 또 종이로 등거리를 만들어 저고리 속에 입었다가 보름날 저녁에 남 몰래 불에 태우면 액을 면한다고 한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입혔던 등거리를 벗겨, 남몰래 달집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달집 태울 때에 함께 타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고 무병한다고 한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5. 정월의 시절음식

1) 차례상

- 설날의 차례 진설법을 보면, 앞줄에 과일, 뒷줄에 채소류를 놓으며, 자세한 것은 잘 모른다. 과일로 배, 사과 등은 놓고 싶은 대로 놓는다. 요즈음 제사에는 기본적으로 사과, 배, 밤, 대추는 필수적으로 준비하고, 놓고 싶으면 참외, 수박, 포도도 놓는다. 나물은 3가지를 준비하고, 어느 집에서는 5가지를 놓는 집도 있다. 그리고 김과 조기를 놓으며, 술은 정종으로 한다. 또한 떡국과 김치를 놓는다.

한편 제사 지내는 전은 따로 있는데, 동그란 흰 전과 산적을 준비한다. 또한 고기를 넣어 만든 육전, 생선을 넣어 만든 어전

을 준비한다. 산적은 쇠고기하고 돼지고기를 넣어 만든 것이고, 닭을 놓을 때도 있고 안 놓을 때도 있다.

설날의 음식으로 예전 시어머니가 하던 법도를 따라서 팥시루떡, 떡국, 식혜, 수정과를 준비한다. 약과는 예전에 준비했지만, 지금은 귀찮아서 별로 하지 않는다. 한편 찹쌀을 물에 불린 다음, 이것을 말려서 튀겨 만든 한과를 만들어 먹었다. (운곡면 위라리, 윤빈귀)

- 국밥 나물 밥과 떡국 제보자의 모친이 돌아가시면서 밥도 함께 놓으라고하여 지금은 밥도 올린다. (대치면 산정리 김계순)
- 설 차례 음식으로는 밤, 대추, 곶감, 사과, 배, 김, 조기, 산적, 어적, 명태, 포, 도라지, 고사리, 숙주나물이 꼭 올라간다. 차례 후 음복 한 후, 동네 세배를 간다. 술은 집에서 만드는데, 찹쌀과 멥쌀 등을 섞어서 누룩으로 해서 만든다. 만드는데 일주일정도 걸린다.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 명절차례는 생선이 올라가지 않고 밥을 올리지 않는다. 삼색과일하고 전을 올린다. 대추는 씨가 하나라 왕이고, 밤은 3톨이라 삼정승이고, 감은 씨가 여섯이라 육조판서를 뜻한다. 배는 씨가 여덟이라 팔도를 의미한다. 옛날에는 사과를 올리지 않았다. 과일을 놓는 위치는 집집마다 다르다. 홍동백서, 조율이시, 좌포우회, 삼탕(육, 소탕), 전은 고기를 이용해서 만든다. 생동육서, 두동육서를 지킨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차례 상 음식은 여자가 장만하고, 진설은 남자가 했다. 적을 3가지 쓰는데, 털 달린 것, 깃 달린 것, 비늘 달린 것을 놓았다. 털 달린 것 중에서도 굽이 달린 것을 썼다. 돼지, 소 등을 썼는

데, 굽 달린 동물을 점잖은 동물로 본 것이다. 닭이나 꿩 등 털 달린 것은 벼슬 있는 것만 썼다. 생선은 비늘이 없는 것은 쓰지 않았는데, 비늘이 있어야 상고기로 생각했다고 한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설날에 차례 상 올릴 때는 밥과 떡국을 같이 올리지 않는다. 떡국 속의 고기는 소고기를 넣는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제사상에는 복숭아가 올라가지 않고 '치'자 들어가는 생선도 올라가지 않는다. 또, 양념으로는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고, 마늘도 들어가지 않는다.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 떡국을 해서 차례에 올리며, 만두를 넣지 않는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 설날 차례상에 떡국을 올린다. 그리고 만두를 준비해 떡국이 다 끓면 같이 넣는다. 만두 속에는 시금치·배추·다마내기(양파)·녹두나물 등을 넣는다. (비봉면 신월리 1구, 조성매 외)
- 차례상에는 일반 기제사와 달리 떡국을 올린다. 그밖에 배, 사과, 곶감, 밤, 대추, 술 등을 올리는데 술은 집에서 담근 동동주를 쓴다. 차례는 안방이나 대청에서 지냈는데 대개 안방에서 지낸다. (≪청양군지≫, 1995)

2) 떡국

- 떡국에는 만두를 넣지 않으며 닭고기를 넣어 먹는다. 꿩고기는 귀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다. 떡국은 있는 집은 쇠고기를 넣고 좀 가난한 사람은 닭고기를 넣었고 그렇지 못한 집은 두

부를 넣었다.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목면 안심리, 김재복)

- 설날 차례를 위해서 또 세배 오는 손님의 대접을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가지 음식을 세찬이라고 한다. 부유한 집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지만, 가난한 집에서는 그렇지 못하며, 또 차례를 지내는 집에서는 세찬을 넉넉히 만들지만 차례를 지내지 않는 집에서는 많은 세찬을 만들지 않는다. 설날의 세찬 중에서 어느 집에서나 만드는 것은 흰떡(백설)이다.

흰떡은 멥쌀을 가루 내어 쪄서 떡판에 놓고 메로 찧은 다음에 손으로 길고 둥글게 만드는데 칼로 썰어 국을 끓이면 '흰떡국' 이 된다. 흰떡국은 차례상에도 오르거니와 설날 아침에는 꼭 이 떡국을 먹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흰떡국을 먹었으니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고 한다. 흰떡국은 쇠고기 또는 닭고기 국물에 넣어서 끓이지만 원래는 꿩고기국에 끓였다. 그러나 꿩은 잡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 또 일반적으로 닭을 많이 사육하기 때문에 꿩대신에 닭을 쓰고 닭도 없을 때에는 쇠고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3) 약과

- 밀가루에다 참기름을 넣어, 소다를 조금 넣고, 막 치댄 후에 동그랗게 만들어 튀긴다. 음식 만드느라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한다. 그 외에 술, 다식, 한과, 산자, 약식, 전과, 식혜, 수정과 등을 만든다. (화성면 합천리, 이한숙)

4) 오곡밥과 진채식

- 대보름에는 오곡밥과 나무새(나물)를 준비해서 간단하게 먹는다. 나물은 보통 시래기나물, 취나물, 시금치나물, 콩나물 정도로 3~4가지 준비한다. 9가지 나물을 준비하기는 어렵다. 이날 오곡밥으로 쌀, 보리쌀, 콩, 팥, 조를 넣어서 해먹었다.

부럼은 예전에 밤을 깼으나, 요즘 세상에 그런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한편 귀밝이술은 예전에 어른들이 아래 사람에게 내렸다.

대보름날에 엿을 먹어야 일년 동안 밥맛이 좋다고 한다. 그래서 이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식사하기 전에 엿 한 숟갈을 퍼서, "이거 먹고 여름내 밥맛 좋으라"고 말하며 먹여 준다. 이때 엿은 집에서 고은 토종엿을 사용한다.(운곡면 위라리, 윤빈귀)

- 14일에 밥을 한다. 곡식으로는 수수쌀, 스습쌀(좁쌀), 팥, 찹쌀, 맵쌀, 콩이 들어가며 나물은 무나물, 고사리나물, 산나물, 콩나물, 숙주나물, 취나물이 들어간다. (화성면 합천리 이한숙)
- 보름날에 수수, 찹쌀, 좁쌀, 조 등으로 오곡밥을 지어 먹는다. (남양면 매곡리 1구, 최창호)
- 해 뜨기 전에 오곡밥(수수, 쌀, 보리, 콩, 조)을 먹었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오곡밥에는 찹쌀, 보리, 팥, 콩, 조, 수수, 좁쌀을 넣는다. 나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산나물이다. 이에는 취나물, 고사리, 콩나물, 숙주나물, 무나물, 고구마순, 피마자 등이 있다. 숙주나물은 값이 비싼 편이라 잘 사용하지 못 했다. 그리고 각 집집마

다 다니면서 얻어먹으면 좋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녔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오곡밥을 준비한다. 좁쌀, 수수, 맵쌀, 찰쌀, 보리쌀, 팥 등을 넣는다. 오곡밥은 농사가 잘 되고, 열매가 잘 열리라는 뜻에서 먹는다. 한편 녹두는 첨약을 먹을 때에는 같이 먹지 않는다. (비봉면 신월리 1구, 조성매 외)
- 오곡밥, 잡곡밥이 있다. 반찬은 콩나물, 호박가지, 시래기 삶은 것 등을 무친 나물이 있다. 오곡밥을 다하면 성주, 조왕, 터주대감께 오곡밥과 나물을 바치고 나서 삼갈래의 거리신에게도 음식을 바친다. 저녁이 되면 아이들은 오곡밥을 얻거나 훔치러 다니기도 했다. (≪청양군지≫, 1995)

5) 귀밝이술(耳明酒)

- 귀밝이술은 귀가 밝아진다고 해서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마시는데, 아이들도 마신다. 이것은 좋은 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는 뜻도 있는 것 같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 대보름날 아침에 귀밝이술을 먹는다. 이 날은 여자도 먹으며, 꼬맹이(아이)도 조금씩 먹게 한다. 일년 동안 좋은 소리만 들으라는 뜻에서 먹는다. (비봉면 신월리 1구, 조성매 외)
- 귀가 밝아지라고 밝이술을 먹었으며, 부럼으로 호도와 밤을 까먹었다. 대나무 통으로 깡통을 만들어 온암동하고 쥐불이 싸움을 했다. 예전에 정월 보름에 걸립을 했다. (남양면 매곡리 1구, 최창호)
- 집에서 담근 술을 가용주라고 하는데, 정월 보름날 아침에 밥을

먹기 전에 '귀밝이술' 이라 해서 술을 먹었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식전에 1년에 그 술을 먹고 귀도 밝고 일을 밝게 잘 하라는 뜻이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맑은 술이고 집에서 만들었다.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 아침에 귀밝이술을 먹는데, 귀가 밝아진다고 했고, 집에서 술을 담가서 먹었다. 아침을 먹기 전에 먹는다.(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 매일 아침 일찍 샘의 물을 찍어서 귀에 바르면 귀가 밝아진다고 한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이명주(耳明酒)·명이주(明耳酒)·치롱주(治聾酒)·총이주(聰耳酒)라고도 한다. 옛날부터 전해 오는 풍속으로, 정월 보름날 아침에 데우지 않은 술(청주) 한 잔을 마시면 귀가 밝아지고, 그 해 1년 동안 즐거운 소식을 듣는다고 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마셨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 정월 보름날 부럼을 까고 나서 귀밝이술을 마신다. 귀밝이술은 집에서 만든 것으로 용수로 가장 마지막에 걸러낸 맑은 술이다. 이 술은 이날 끼니때마다 한잔씩 마신다. (≪청양군지≫, 1995)

6) 부럼 까기

- 부럼을 까는 것은 치아가 1년 동안 수월하라는 뜻도 있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 정월 보름날에 밤, 호도, 은행, 땅콩 등의 부스럼을 깐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 식전에 호두, 반을 깨물어 먹지 않고 뱉는다. 부스럼이 나지 말고 치아에 좋으라고 부럼을 깨물었다.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 아침에 부름(부럼)이라 해서 호두나 밤을 깨물었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대보름 아침 동이 트기 전에 호도, 밤 등을 깨물어 대문 밖으로 힘껏 집어 던진다. 이것은 부스럼이나 피부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청양군지≫, 1995)
- 개인적인 의례로서, 대보름날 아침 일찍 일어나면 '부스럼 깬다' 하여 밤, 호두, 땅콩 등을 깨물며 일년 열두 달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도록 축원한다. 대개 자기 나이 수대로 깨문다. 여러 번 깨물지 말고 한 번에 깨무는 것이 좋다고 하여 한번 깨문 것은 껍질을 벗겨 먹거나 첫 번째 것은 마당에 버리기도 한다. 깨물면서 1년 동안 무사태평하고 만사가 뜻대로 되며 부스럼이 나지 말라고 기원한다. 이렇게 하면 1년 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으며, 이가 단단해진다고 한다. 보름날의 부럼을 위해서 14일 밤에는 미리 과실을 준비해 두고, 땅속에 묻은 밤을 꺼내어 깨끗이 씻어 놓는다(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7) 찬밥 먹기

- 보름날에는 찬밥이 좋다고 하는데, 더위 먹지 말라는 뜻이라고 한다. (대치면 산정리 김계순)

8) 김치 안 먹기

- 보름날에는 김치를 먹지 않는데, 여름에 쐐기가 살을 쏘아 마냥

따갑다고 해서 먹지 않는다. (대치면 산정리 김계순)

- 보름날은 동치미를 먹지 않는다. '생고자리'라고 해서 논에서 쏘는 벌레가 있는데, 보름날 동치미를 먹으면 그게 쏜다고 한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9) 솔떡

- 정월 대보름날 세웠던 볏가릿대의 곡식을 2월1일에 헐어서 흰떡을 한다. 이 흰떡은 솔을 깔고 쪄서 만들기 때문에 솔떡이라고 한다. 솔떡은 이웃끼리 나누어 먹기도 하고 머슴은 나이 수대로 먹게 하는데, 이렇게 해야 무병하고 건강해서 일을 잘한다고 한다. 솔떡은 큰 것은 주먹만하고 작은 것은 계란만하게 만들었으며 향유를 발라 먹었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10) 장 담그기

- 장은 돼지날과 말날에 담근다. 이때 장을 담가야 장이 달다고 했다. 정월 초사흗날 토정비결을 보았다. 정월에 운을 봐서 운이 나쁜 사람은 짚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거리에 내다 버렸다. (대치면 산정리 김계순, 운곡면 안심리 윤광희, 이계준, 양진석,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 말날에 장을 담그는데 최근의 일로 절에서 담근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장은 대개 정월에 담그며, 2월에 담기도 한다. 장은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을 담근다. 장을 닷샛날 담으면 달고, 엿샛날 담

으면 엿과 같다고 한다. 그리고 열흘날 담으면 버러지(벌레) 같은 것이 생긴다고 한다.

간장은 메주를 깨끗이 씻어서 소금물에 넣고 한 달을 담갔다가 그 다음에 대린다(다린다). 대릴 때에는 메주를 건져서 치대어 놓고 대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간장을 버리게 된다. 간장에는 고추도 넣고, 숯등걸이 있으면 3개 넣으며. 대추도 넣으면 맛이 좋아진다.

고추장은 밀가루로 죽을 쒀서 고춧가루와 엿기름 가루, 소금을 넣고 담근다. 잘 담는 사람은 엿과 고춧가루로만 사용한다.

청국장은 메주콩을 띄워서 금방 먹는 것이다. 장을 먹는 기간은 1년이며, 1년 후에 다시 담근다. (대치면 대치리, 강재금)

- 장은 정월이나 2월에 담근다. 장에는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등이 있다. 날짜는 대개 5일이나 25일로 잡는다. 간장에는 고추, 숯, 대추도 넣으며, 버선본을 하지는 않는다.

쌈장은 배추김치를 먹고 남은 국물에 메주를 빻아서 넣고 보리밥 섞는다. 그리고 무수(무) 같은 것을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서 넣으면 된다.

고추장은 예전에 많이 담갔다. 그러나 고추가 귀하기 때문에 어른이 먹는 것은 빨갛게 담고, 안식구들이 먹는 것은 하얗게 담는다. 밀가루와 찹쌀가루를 섞어서, 여기에 엿기름과 고춧가루를 넣어 담근다. (청양읍 군량리, 조명호)

- 장은 2월의 말날을 택해서 담근다. 왜 말날에 담그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른다. 옛날부터 해 내려오는 특별한 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에는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을 담근다. 간장에는 고

추, 숯, 대추를 넣으며, 버선본을 하지는 않는다. 고추장은 아무 때나 담그며, 엿을 사다 물을 부어서 끓인 다음, 퍼서 식히고 거기에 메주가루와 고춧가루를 넣는다. 또는 밀가루와 삭힌 엿기름을 넣어 담그기도 한다. 밀가루 대신 찹쌀가루를 쓰기도 하며, 거기에 엿기름, 소금 등을 넣어 담근다.

엿기름을 걸른 다음에, 밀가루에 개어서 미지근하게 끓이면, 삭아서 미음처럼 벌건 물이 된다. 이것을 퍼서 식을 동안에 고춧가루, 메주가루, 소금을 넣으면 된다. 이때 간을 맞추어야 한다. 한편 청국장은 메주를 아랫목에 따로 놓는다. 진이 나면 소금을 넣고 찌면 된다. 장은 딱 1년간 먹으며, 장이 너무 묵으면 시커멓게 변해서 좋지 않다. (운곡면 위라리, 윤빈귀)

- 장은 1~2월에 담근다. 주로 정월 10~20일 경에 담그는 경우가 많다. 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된장에는 집장, 퉁퉁장(청국장), 쩜장이 있다. 집장은 고추를 넣고 그 속에다 밀을 갈아서 띄어 먹었다.

간장에는 숯, 대추, 고추 등을 위에 올리는데, 특히 숯은 곰팡이를 예방한다. 한편 옻나무와 깨도 넣는다. 버선을 종이로 오려서 장독대에 그려 붙이고, 간장독에 솔잎을 왼새끼에 끼워서 두른다. 요즘도 외지에 나간 자식들에게 보내기 위해 장을 담근다.

한편 고추장에 박는 장아찌에는 참외, 무수(무), 오이, 호박, 수박장아찌가 있다. 호박장아찌는 시퍼렇고 연한 호박을 골라서 장아찌를 담는다. (비봉면 신월리 1구, 조성매, 명성옥, 김천수, 정풍자)

- 장은 음력 정월 하순이나 2월 초순경에 담근다. 간장독에는 숯,

고추, 옻나무를 올려 놓는다. 옻나무는 벌래가 생기지 말라는 뜻이고, 숯은 살균을 하며, 고추는 맛을 낸다. 그리고 금줄도 친다. 된장에는 집장, 청국장, 쪔장, 퉁퉁장이 있다. 일반적으로 청국장, 또는 담북장은 이곳에서는 퉁퉁장이라고 한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6. 정월의 세시놀이

1) 쥐불놀이

- 쥐불놀이는 논두렁에 불을 놓는 것으로 논의 벌레를 없애기 위해서 했다. 짚 묶음에 불을 붙여서 놀았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대치면 대치리에서 쥐불놀이는 남자아이들이 정월 보름에 놀던 불놀이이다. 여자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대치면 대치리, 강재금)
- 보름날 밤에 볏짚을 기다랗게 묶어서 불을 피워서 논에다 불을 놓았는데 이를 쥐불놀이라 했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 조병철 · 최종기)
- 청양읍 적누리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아이들이 '쥐불놀이 하자'고 하면, 깡통을 이용해 쥐불놀이를 하였다. 그러나 일제시대에는 깡통이 흔치 않았다. 다만 제보자는 홰를 돌리는 일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청양읍 적누리, 노병두)
- 청남면 천내리에선 정월 보름날 아이들이 모여 뚝에서 쥐불놀

이를 했다. 이것은 횃불놀이, 혹은 충 태우기라고 하는데, 쥐나 해로운 벌레 등을 태워버리는 의미가 있다. 제보자(85세)가 어렸을 적까지는 했으나, 요즘엔 화재의 위험이 있어 하지 않고 있다. (청남면 천내리 전철규)

- 청양지방의 농가에서는 옛날부터 쥐불놀이를 해왔다. 음력 정월 첫 자일(子日)을 쥐날이라 하여 농가에서는 이날에 방아를 찧으면 그 해 쥐가 없어진다는 속설이 있어와 밤중에 부녀자들이 빈방아를 찧은 일이 있다.

또한 농촌에서는 쥐불이라 하여 이날을 마을마다 청소년들이 자기네 동네 부근에 있는 밭둑이나 논둑에 불을 질러 잡초를 태운다. 들판에 불을 놓는 까닭은 쥐의 피해와 논밭에 해충을 제거하고 새싹이 잘 자라게 하는데 있다. 불은 사방에서 일어나 불바다를 이루어 장관을 이룬다. 이날 쥐불이 잘 타야 풍년이 든다고 믿어왔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2) 쥐불싸움(횃불싸움)

- 짚으로 한 묶음 묶어서 길게 말아서 돌렸다. 오래 타라고 길게 만든다. 새끼로 묶는데 촘촘하게 묶는다. 대에 불을 지피고 논두렁에 불을 지르는데 벌레 죽으라고 한다. 마을끼리 싸움도 했는데 이 때는 전쟁하듯 쫓겨나는 쪽이 지는 것이다. 이때 지면 1년 동안 재수가 없다고 했다. 지금은 깡통에 구멍 뚫어서 한다. 광생리와 역촌리가 많이 싸웠으며 이 때는 돌려서 던지는데 잘못 던지면 집에 불이 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서나 면사무소에서 못하게 말린다.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 지불싸움은 쑥으로 홰를 만들어서 싸웠는데. 길이는 1m정도 되고 촘촘하게 묶는다. 사람이 불을 지르면서 올라오는데, 그렇게 하면 불을 지를 땅이 모자라게 되므로 못 오르게 하기 위해서 싸웠다. 깡통으로 하는 것은 해방 이후의 일이다. 논에서 일할 때 주위에 불을 피워놓기도 하는데 이것으로 담뱃불로 쓰기도 했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밤에 쥐불놀이를 했는데, 짚을 중간중간 묶어서 거기에 불을 붙여 했다. 동네끼리 싸움도 했는데, 동네 싸움에서 지면 그 해 재수가 없다고 했다. 제보자는 직접 하지는 않고 얘기만 들었다고 한다.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 제보자가 20세 미만의 시절에 이웃 동네와 심하게 쥐불놀이 싸움을 한 적이 있다. 이곳 적누리는 인근의 정좌리, 금용리와 서로 맞붙었다. 쥐불놀이 싸움은 매우 격렬해서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았다. 밤에 맞붙을 때에는 막대기도 휘두르고, 돌과 흙을 던지면서 심하게 싸웠다. 이때 공비토벌을 하듯이 산으로 기어올라가 상대를 몰은 적도 있다. 이곳의 지형이 약간 높아서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다치는 경우는 있었으나, 이것으로 인해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식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을 던지거나 몸에 대지 않기 때문에 옷에 불이 붙는 경우는 없었다. 한편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 놀이는 어두울 때에 시작해서 약 3~4시간 정도 지속되었으며, 늦어도 12시 경에는 끝이 났다. (청양읍 적누리 1구, 노병두)
- 남양면 매곡리에서의 쥐불이싸움(쥐불놀이)은 정월 대보름에

깡통에 불을 붙이고 돌리거나, 빗자루 형태의 횃대에 불을 붙이고 돌리면서, 이웃 동네와 서로 싸우는 놀이이다. 이 마을에서는 인근 매곡 2리와 서로 맞붙었다.

이 놀이는 45~46년 전까지 하였으며, 이후는 조금씩 바뀌다가 95년 12월 5일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차츰 없어졌다. 특히 근래에 아이들이 없다보니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남양면 매곡리 김기창, 이향각, 최창호)

- 비봉면 신월리에서 정월 대보름날에는 깡통을 매고 하는 '쥐불여'라고 했다. 이웃 동네인 목맹이, 안부동 아랫동네 애들과 싸웠다. 보름날의 쥐불싸움은 있었으나, 이 마을에서 논매기할 때에 두레싸움은 없었다.(비봉면 신월리 1구, 조성매 외)
- 청남면 상장리에서는 정월 보름에 이웃의 아산리하고 쥐불싸움을 했다. 논두렁에 불을 놓고, 돌을 던지거나, 깡통을 던지면서 싸웠다. 이것은 옛날부터 하던 놀이로, 한 편이 20~30명씩 편을 지어 이웃 마을과 크게 싸웠다. 동네의 김인수씨 집안의 장광(장독)이 다 부서진 적도 있다. 한 쪽이 도망가면 지는 것으로, 쫓아가는 편이 이기게 된다. 남자 아이들이 재미로 하는 놀이이다. (청남면 상장 1리, 우성림)
- 목면 본의2리에서는 40년 전 까지만 해도 쥐불싸움이라 해서 깡통놀이를 했다. 통조림 통에 솔나무(광술)을 넣어서 돌리며 놀았다. 아이들은 10년 전에도 가끔 쥐불놀이를 하기도 했는데, 산불조심 때문에 지금은 하지는 않았다.(목면 본의2리 김천식)
- 동네끼리 쥐불싸움도 했는데, 서로 치고 받고 싸워서 서로 많이 태울 자리를 잡았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각 마을별로 서로 다투어가며 화세를 떨치는 풍습이 있어왔다. 그리하여 다른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거나 또한 쥐불싸움이라 해서 다툼도 일어나는 일이 있어왔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 정월 열나흗날에는 쥐불싸움을 한다. 특히 금정리와 봉암리에서는 매우 큰 횃불싸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 두 마을 경계에 있는 들판에서 마주 서서 쓰다 남은 빗자루에 불을 붙여 상대편을 향해 던진다. 불똥이 튀겨 얻어맞고 집으로 돌아오면 '병신'이라고 놀림을 받기도 하고, 싸우다 다칠 경우에는 자기가 치료를 할 뿐 고소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또한 마을 대항 '깡통돌리기'시합을 하는데 깡통에는 마른 나무, 솔방울, 마른 닭똥, 고무신, 송진 등을 넣고 돌리면 불꽃이 잘 타오른다고 한다. 마을 청소년들이 깡통을 돌리면서 마주걸어간다. 이때 물러서는 편이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정월 한달 내내 들판에 불을 놓는다. 이것은 병충해와 잡초를 없애기 위한 살충작업일 뿐 아니라 아이들의 흥겨운 놀이이기도 했다. 이날은 또한 자기 전에 심을 감춘다. 이것은 귀신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만일 신을 감추지 않으면 귀신이 자신에 맞는 것을 신고 가면 신의 임자는 죽게 된다는 것이다. (≪청양군지≫, 1995)
- 대보름 저녁에 청소년들은 횃불싸움을 한다. 대보름을 며칠 앞두고 청소년들은 횃불싸움을 위한 홰를 만든다. 낡은 마당비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대나무 또는 싸리로 홰를 필요한 수만큼 만들어 두었다가 보름날 저녁에 뒷산에 올라간다. 그러면 건

너 마을에서도 횃불싸움준비를 갖추고 청소년들이 모여들어 서로 대치한다. 둥근달이 동녘에 막 솟아오르면 대치하고 있던 패들은 서로 놀려주고 약을 올려 때로는 욕설까지 퍼붓는다. 이때 농악대들은 제각기 자기네 편의 기세를 올리기 위해서 신나게 한바탕 농악을 울려 흥을 돋운다. 흥분이 고조에 달했을 때에 용감한 청년이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 맨 체 손에 횃불을 들고 앞장을 서 싸움을 시작한다. 이때에 소년은 소년끼리, 청년은 청년끼리 싸우게 된다. 횃불을 든 수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횃불을 휘두르며 싸우는데, 서로 함성을 지르면서 때리고 차고 심지어는 옷까지 태우고 하는데 매우 용맹스러워 보인다. 부상을 당하거나 횃불을 빼앗겨 항복한 사람이 많거나 또는 후퇴한 편이 패하기 된다.

횃불 싸움은 협동정신을 기르고 남성적인 용감성을 나타내는 놀이로서 고대 전투의 연습이기도 했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3) 연날리기, 연싸움

- 정월 초부터 보름까지 날렸으며 방패연을 주로 날렸고 신문지나 조선말에는 한지로 만들어 날렸다. 끊어서 날리는데 액을 날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 연은 원래 방패연만 있었고, 일제시대에는 태극을 보통 넣었다. 일제 말에는 태극도 마음대로 넣지 못했다. 꼬리는 연이 돌지 말라고 다는데, 방줄을 잘못 매면 연이 돌게 된다. 정상적으로 잘 올라가는 연은 가운데에 한 개만 단다. 도는 연을 개똥이라

고 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양쪽에 꼬리를 단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연은 정월부터 2월 사이에 날렸으며, 주로 정월에 날렸다. 실을 감는 패는 나무로 직접 만들었으며, 실은 명주를 사용했다. 연줄에 사금파리를 먹여서 연싸움을 하지는 않았다. 보름에 액을 날려보내기 위해 연을 하늘에 날리는 것은 이곳에는 없었으며, 다른 마을에서 한다는 말은 들었다(청양읍 적누리 1구, 노병두).
- 정산면 광생리에서는 연싸움을 했다. 풀을 되게 해서 흰 사발을 곱게 빻아서 실에 바른고, 정초에 아이들끼리 서로 연싸움을 했다.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4) 윷놀이

- 윷은 한 뼘 정도 되는 크기로 밤나무로 만든다. 윷판은 세로가로 6개씩 사각형이다. 말을 편을 나눠서 짝수로 맞춰서 놀았다.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 새해에 대표적 놀이로 윷놀이를 했는데, 나무는 대개 밤나무나 참나무를 썼고, 길이는 20센티미터 정도였다. 새해에서 보름까지만 윷놀이를 했는데, 보름 지나서 하면 보리 흉년이 든다고 했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윳놀이를 했으며, 어른들은 윳점을 쳤으나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정초에 십이지를 따져 첫 번째 날에 특별히 금하는 일은 없으나, 따져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었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 대치면 광금리에서는 윷놀이를 척사대회라고도 한다. 산제가 끝

나면 마을로 내려와서 윷놀이를 하며 놀았다. 편을 나눌 때에는 남, 여를 골고루 섞어서 나누는데, 이때 각 편의 이름은 수답과 봉답이라고 이름한다. 수답이 이기면 수답은 물이 많아서 비가 잘 안 오므로 그 해 농사는 가물어서 망치게 되고, 봉답이 이기면 풍년이 된다고 한 해 농사를 점쳤다. 이는 마른갈이에 비가 자주 와서 골고루 물이 내려온다고 이긴다고 한다. 이 동네는 물이 적어서 중요하다고 한다. 풍년 들라고 일부러 봉답이 이기게 하지는 않는다. 윷은 밤나무로 만드는데 길이는 어른 손 한 뼘 정도이며, 굵기는 손가락 두 개 정도이다. 뒷토는 없으며 지금도 산제사 지내고 난 뒤에 즐기는 놀이이다.(대치면 광금리, 노광호)

- 목면 본의2리에서는 제가 끝나면 기금이 남은 것으로 제가 끝나면 다음날 생필품 사다가 편을 짜서 윷놀이하고 논다. 예전에는 편을 짜서 누구네가 이기면 풍년이 든다고 정하고 놀았는데 요새는 그렇게는 안 놀고 풍물치고 그날그날 어느 팀이 이기면 풍년든다고 정해서 놀기도 한다.(목면 본의2리, 김천식)
- 정산면 송학리에서는 동화제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한다.(정산면 송학리, 오영삼)

5) 널뛰기

- 널은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고, 널판은 한 자 정도, 길이는 10m 정도 되었다. 아이들은 작게 만들어서 뛰었다. 날뛰기는 여자들 중심의 놀이였다. 널은 소나무를 베어서 쪼개 만든다. 잣나무는 널이 뛰었을 때 발이 아프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 널뛰기는 여자들의 놀이로 마당이 넓은 집에서 행해진다. 널뛰기 할 때에는 공중에 뜬 사람은 한쪽 다리를 대문 쪽으로 뻗으며 "밥상 들어간다"라고 소리치거나 양다리를 양쪽으로 뻗으면서 "대문 열어라"라고 소리친다. 그네뛰기는 마을 정자나무에 줄을 매달아 놓고 뛴다. (≪청양군지≫, 1995)
- 설날이나 팔월 추석 한가위 때 여인들이 많이 하여왔다. 길다란 널판을 짚 묶음이나 가마니뭉치 위에 절반을 걸쳐놓고 널판 양 끝에 한사람씩 올라서서 서로가 구르면서 몸 솟음을 하여 오르락내리락 뛰는 것인데 젊은 여자가 빛깔 찬란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새해 새날의 공중을 서로가 번갈아 뛰어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며 노는 것이다. 높이 뛰고, 오래도록 실수 없이 잘 뛰는 것 등이 중요하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6) 기세배

- 정월에는 기세배를 했는데, 제일 오래된 기를 연배가 높은 것으로 쳤다. 어린기가 풍장을 치면서 세배를 하러 왔다. 모곡리의 기는 '용'이 그려져 있는 "용대기"라고 했다. 기의 길이는 7자에서 여남은 자 정도 됐고, 대나무 깃대에 꿩작목(깃털)을 꽂았다. 이곳에서는 기세배하러 연양리로 갔다.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 마을의 기끼리 인사를 하는 것을 용대기라고 한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보통 보름때 많이 한다. 여름에 두레할 때도 한다. (운곡면 안심리 윤광희, 이계준, 양진석)

• 정초 14일부터 마을 농부들은 농악을 치면서 집집마다 다니며 돈과 곡식을 얻는 걸립을 하여 경비를 마련해서 14일 밤이 되면 마을 당산에서 농기에 대한 제사를 올린다. 상원날 아침에 여러 마을의 농기가 한곳에 모여들고, 농기의 수만큼 농악대도 모여 제각기 방위를 맞춰 정렬한 다음 대장기에 대해서 차례로 기를 숙여 세배를 한다. 이때에 상대리(上大里)의 농기가 대장기가 되며, 나머지들은 만들어진 순서대로 형제관계를 정한다. 기세배 때에는 서로 먼저 절을 받으려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세배할 것을 다투다가 때로는 싸움이 벌어져 서로 농기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때에 농기 뺏기가 벌어진다. 농기 뺏기는 상대편 농기 꼭대기에 올라가 위에 꽂힌 꿩으로 만든 기를 뺏으면 승리하는 것이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7) 정초 걸립

• 정초에 부락에서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걸립을 한다. 2개의 영기를 앞세우는데, 농기는 두레할 때에만 들고 나간다. 농기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쓰여 있다. 영기는 테두리가 파란색이고, 가운데는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令'이라고 쓴다. 영기 뒤에는 '날날이'를 부는 사람이 따른다. 다음에 상쇠, 부쇠와 징, 장고, 북잽이가 따른다. 법고가 있는데,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다. 면 단위 대회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두 사람이 아이를 어깨에 메고서 다니며 무동을 타기도 한다. 이것을 꽃내비라고 한다.

걸립은 길면 5일 동안 실시한다. 부락에서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한 충분한 돈이 걷힐 때까지 계속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 필요하면, 이 돈이 다 걷힐 때까지 걸립을 한다. 풍장은 동네사람들이 치며, 모든 집을 다 방문한다. 이곳에서는 본의실과 같이 걸립을 했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 걸립은 1월 12일~13일 2일간에 걸쳐 실시한다. 이곳은 동네가 크기 때문에 2일에 나누어 실시하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한 집에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 따라서 한 집에 대략 20~30분씩 머무르며, 마당-부엌-장광(장독대)-샘-마당의 순서로 이동하며 친다. 부엌에서는 조왕을 위하고, 장광에는 당산을 위하며, 샘에서는 샘제를 지낸다. 그리고 부엌과 장광(장독대)에서 하는 가락은 동일하다고 한다. 각 가정에서는 돈과 쌀을 내 놓으며, 이것은 마을 기금으로 사용한다(청남면 인양리, 김명하).
- 정초에 걸립 할 때에도 풀물을 쳤다. 보통 1월 3일에 치며, 이 때에 각 집에서는 보통 1말 정도의 쌀을 내 놓는다. 이렇게 모은 쌀은 자루에 넣어서 화주 집으로 옮긴다. (대치면 대치리, 염태섭)
- 정초에 걸립을 할 때에 각 집집마다 다니며 풍장을 친다. 이 때 각 가정에서는 쌀을 1말, 또는 5되를 내놓는다. 제보자는 걸립의 경험은 없고, 20대 초반까지 걸립을 구경 한 적이 있다. 따라서 정초의 걸립은 40여년 전에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산제당에 올라가서 다음 날 새벽에 닭이 운 다음에 내려온다. 그리고 풀물을 치면서 동네 각 가정마다 돌아다니며 지신밟기를 한다. 이때 쌀을 성의껏 받아 동네의 기

금으로 사용한다. 소지는 마을의 남자만 올려준다. (청남면 동강리 한호분, 윤치순, 김방순)

- 정초에 걸립을 할 때에 각 집집마다 다니며 풍장을 친다. 이 때 각 가정에서는 쌀을 1말, 또는 5되를 내놓는다. 제보자는 걸립의 경험은 없고, 20대 초반까지 걸립을 구경 한 적이 있다. 따라서 정초의 걸립은 40여년 전에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양읍 적누리 1구, 노병두)
- 정초에 부락에서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걸립을 한다. 걸립은 길면 5일 동안 실시한다. 부락에서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한 충분한 돈이 걷힐 때까지 계속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 필요하면, 이 돈이 다 걷힐 때까지 계속한다. 풍장은 동네사람들이 치고, 모든 집을 다 방문한다. 이곳에서는 본의실하고 같이 걸립을 했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 정월 보름과 16일 날에 풀물을 치면서 집집마다 다녔다. 이때 각 집안에서는 쌀 1말을 '불받이'(촛불받이 쌀)로 담아서 내 놓았다. 이것을 걷어서 동네 기금으로 사용했다. (남양면 매곡리 1구, 최창호)
- 걸립은 간혹 하는 경우도 있다. 마을에 사정이 어렵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거의 하지 않는다. (청남면 상장리 1구, 우성림)
- 청양군 비봉면의 경우 정월대보름에 지신밟기를 한다. 동네 어른들이 풍물을 치면서 집집마다 돌며 방문한 집에 부정이 없고 집안이 평안하기를 비는 것이다. 또한 정월보름에는 1년의 신수를 보기 위해 토정비결을 보거나 무당을 찾아가 한해의 운수를

점치기도 하였다. 보름날 즐기는 놀이로는 줄다리기, 연날리기, 윷놀이, 농악놀이가 있다. (≪청양군지≫, 1995)

- 정초에 부락에서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걸립을 한다. 2개의 영기를 앞세우는데, 농기는 두레할 때에만 들고 나간다. 농기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쓰여 있다. 영기는 테두리가 파란색이고, 가운데는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令'이라고 쓰여 있다. 영기 뒤에는 '날날이' 부는 사람이 따른다. 다음에 상쇠, 부쇠 징, 장고, 북이 따른다. 법고가 있는데 정해져 있지는 않는다. 면 단위 대회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무동을 타기도 했다. 이것을 꽃내비라고 한다. 두사람이 아이를 어깨에 메고서 다닌다.

걸립은 길면 5일 동안 실시한다. 부락에서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한 충분한 돈이 걷힐 때까지 계속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 필요하면, 이 돈이 다 걷힐 때까지 계속한다. 풍장은 동네사람들이 치고, 모든 집을 다 방문한다. 이곳에서는 본의실하고 같이 걸립을 했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8) 범놀이

장평면 도림리마을에는 범놀이가 잔승되는데, 이것은 범의 형태를 만들어 노는 놀이이자, 집안의 액운을 쫓는 신앙의 형태이다. 유래와 역사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밤놀이는 도림의 놀이라기보다는 마제마을에서 전해왔기 때문에 '마제범놀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한다.

범놀이는 도당리에서 매해 정월보름마다 빠짐없이 했던 놀이이다. 보름이 되기 3~4일 전쯤 시작하여 열 나흗날 밤까지 끝냈다.

보름날 당일은 범놀이를 하지 않았다. 보름날은 조용히 보내는 날로 여겼기 때문에 시끄럽게 놀지 않았다. 14일을 보름날로 간주해서 모든 것을 다했고 '자기 집 와주기 바라는 날' 로 여길 정도로 범놀이를 많이 한 날이다.

범을 만드는 방법을 보면, 한 발 정도 되는 긴 지게작대기 2개를 묶어서 두발이 되게 만든다. 그리고 두 장정이 그 작대기를 다리 사이에 끼고 허리를 꾸부린다. 구부린 장정의 등 위로 맥방석을 뒤짚어 씌운다. 범의 대가리는 짚쑤시미로 만든다. 그리고 짚을 뭉쳐서 얼굴형태를 만들고 창호지를 뒤집어 씌워 눈을 그려 넣는다. 이때에 짚은 썩지 않고 묵은 짚을 사용한다. 여기서 눈이나 범무늬 등의 문양은 짚을 태워서 그 재를 먹과 같이 갈아 만든 물감으로 칠한다. 범 엉덩이 쪽에는 꼬리도 만들어 끼우는데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 다 만들어진 범은 실제 호랑이와 같을 정도로 무서운 모습이다.

진행 순서 및 방법을 보면, 우선 범의 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범의 모양을 완성시킨다. 이때 들어가는 사람은 힘이 좋은 장정이라야 했는데, 그 이유는 2~3일간 온 동네를 돌며 많은 힘을 소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놀이를 관장하는 사람을 '호장'이라고 하는데 범놀이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다. 호장이 "입을 벌려라"라고 호령하면 범은 그대로 지시에 따라야만 한다. 호장은 군중을 이끌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주변이 뛰어나야 하기 때문에 엄선하여 뽑는다. 호장이 가장 앞에 서고 그 다음으로 범이 선다. 그 뒤로는 풍물을 치는 사람들이 뒤따르고, 마지막으로는 마을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따라

붙는다. 여기서 풍물을 치는 악기잽이들의 구성은 깽맥이(쇠)2명, 북, 장구, 징 각각 1명씩이다.

집집마다 빠짐 없이 들어가 노는데 만약 빠뜨리는 가구가 있으면 그 집에 액운이 따른다 하여 매우 불길하게 여겼다. 따라서 마을의 모든 집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린다. 범놀이패가 오면, 집주인은 문을 활짝 열어 놓고 환대한다. 도착한 범놀이 패는 마당을 한바퀴 돌고 제당 앞에서 고사를 지낸다. 마당에는 멍석을 깔고 상을 피고 쌀 1말을 사발에 받아놓고 가운데 초를 하나 꽂아둔다. 그리고 정수물을 한 그릇 받아놓는다. 상 위의 제물은 모두 범놀이 하는 사람이 갖게 된다. 돈은 주고받는 일이 거의 없었다. 고사를 지낸 다음 풍물을 치며 그 집의 장광으로 들어가 "이 집의 운수대통을 빕니다" 하고 장광제를 지낸다. 그 다음으로 부엌으로 가서 소도방(솥뚜껑)을 열어놓고 조왕신을 위한다. 놀다가 점심때쯤이 되면 밥을 얻어먹기 위하여 마을에서 부유한 집을 방문한다. 가면 자연스럽게 마을잔치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다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만들어졌다.

호별로 도는 순서는 마을의 서쪽에서부터 시작하여 동쪽으로 도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마을의 위쪽부터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였다. 범을 만든 집에서 가장 먼저 범놀이를 시작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놀이가 끝나면 범을 모두 해체를 시킨다. 지게 작대기는 주인이 도로 가져가고, 짚도 귀했기 때문에 따로 챙겼다. 범놀이는 한 해라도 빼놓으면 큰일이 난다고 하여 계속 했지만 6·25를 전후로 하여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쇠퇴하여 갔다. 이것이 없어진지는 약 30년 가량이 되었다. (장평면 도림리, 강영순)

7. 정월의 세시신앙

1) 동화제

• 정산면 송학리 하송마을의 동화제 : 하송마을에서는 정월 14일 밤에 동화제를 지낸다. 이 마을은 제당의 형태는 없고, 마을 회관옆 마당에서 나무를 쌓아놓고 제를 지낸다.

제사 준비는 부녀회장, 제주는 다복한 사람. 부부해로한 사람. 대동계장, 이장이 제물준비를 한다.

비용은 예전에는 걸립으로 마련했다. 정월 초에 하던지, 보름 뒤에 엿새날 했다. 보름날 써야되는 비용은 그전에 마련해 놓은 걸로 썼다. 요즘에는 걸립을 하지 않은지 오래됐다. 정월 초이틀부터 마을의 농악대가 걸립을 하여 동화제의 기금을 마련하였다. 현재 비용 마련 방법은 풍물패가 각종 대회(청양, 대전 등)에 나가서 입상하여 벌어온 상금으로 충당한다.

제물은 돼지머리를 올리는데, 돼지를 잡아도 돼지머리만 올린다. 이유는 어려운 동네여서 머리만 올리던 것이 지금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삶은 돼지머리를 올린다.

동화제는 나무 한 짐을 하는데 아마도 고랑덤불의 가시덤불을 제거하기 위해 했을 수도 있다. 잡목은 가시나무인 듯하다. 7매듭을 묶어서 세운다. 예전에는 등허리로 밀어서 세운다. 10명정도가 당기는 사람이 있으며 상목으로 세운다. 포크레인을 사용한 것은 3년정도 되었음. 짚을 해오는 사람은 나무를 못 가져오는 사람이 가져왔다.

저녁 해가 질 무렵이 되면 기를 앞세워 풍물을 치며 제장에 도착한다. 동화제의 불을 붙이는 것은 아들을 못 낳은 사람이나 총각이 불을 붙이는데 이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이다. 동화를 세운 곳에서 제물을 차리고 술을 올린 후에 축을 읽은 후에 절을 한 후에 소지를 올리는 것으로 제의는 끝이 난다. 제의가 끝이 나면 아이들은 쥐불놀이를 하며 논둑을 태운다. 동화제를 지내지 않았던 50년대 말에 마을에 불이 많이 난 적이 있었다.

제 이후에는 윷놀이를 하며 논다. 집집마다 다니며 농악치면서 가택을 위하는 굿도 한다. 자금이 없으니깐 가택굿을 하면서 쌀을 조금씩 받아서 마을기금으로 쓰기도 하였다. (정산면 송학리 하송마을, 오영삼)

- 남양면 온암리의 동화제 : 온암리에서는 1월 14일에 온암 2구 학교 바로 옆 논에서 동화제를 올린다. 동화는 약 10m 정도의 높이로 세운다. 이것을 "동화세운다"는 일으킨다는 의미로 "동화센다"라고도 한다.

소지 올리는 사람을 제주라고 하는데, 그 해에 생기복덕이 좋고 부정타지 않은 사람으로 뽑는다. 선정 시기는 정월이며, 제주는 1년 내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 일의 주관을 2구에서 하므로 제주는 항상 2구에서만 뽑는다. 제주는 해마다 돌아가면서 맡는다. 방승일(78세)씨가 왜정시대부터 제주를 많이 했다. 제주 집에는 금줄을 치며, 황토도 뿌려둔다.

비용은 동네기금으로 충당하며, 걸립은 하지 않는다. 또한 혼인, 환갑, 장례 때와 같은 큰 일이 있을 때, 동네에서 도와주면

나오는 수고비를 모아서 기금으로 사용한다.

제물로 돼지 한 마리를 바친다. 백무리떡을 시루 체 가져다 놓고 전(과), 과일(밤, 대추, 꽃감, 배) 등을 놓는다. 요즘은 술을 직접 담그지 않고 사서 사용한다.

나무는 14일날 아침에 베는데 나무를 베면 안 될 때는 밤에 저녁 먹고 가서 베어왔다. 솔나무 중에 쭉 뻗은 것을 작은 전주 크기로 베어서 넷이 지고 내려온다.

젊은이들이 열 명 이상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가지를 친 후에 통나무로 가져오고 잔나무를 통나무에 매단다.

동화는 밑이 넓고 위를 좁게 만든다. 나무를 벨 때에 제주는 가지 않는다. 밤10시에 동화제를 지내는데 저녁 먹고 풍물치며 돌아다니다가 밤 10시에 불을 붙이며 제사를 지낸다.

제사는 30분 가량 소요되는데, 소지하는 수에 따라 시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 동화가 넘어간 후에 술을 먹고 논다. 제가 끝나면 예전에는 매곡리, 온암리와 더불어 쥐불놀이싸움을 하였다. (남양면 온암 1리, 임형기)

- 정산면 남천리 새울의 동화제 : 정산면 남천리 새울에서는 1월 14일에 동화제를 지낸다. 이 마을은 지형상 '금체'라 불릴 정도로 좋은 곳인데, 여기에 정월 열나흗날 달 뜰 때 불꽃이 들어가면 더욱 좋다고 해서 시작되었다. 예전부터 새울에서 동화제를 계속하다가 10여년 전부터 5~6년 동안 중지했으나, 동네에 예상치 않은 불상사(교통사고 등)가 생겨, 5~6년 전부터 다시 부활해서 계속하고 있다.

  주관은 유사를 맡은 집에서 한다. 비용은 마을기금과 동화제

를 목적으로 조금씩 걷어서 한다. 제물은 밤, 대추, 곶감 등의 삼색실과와 흰무리, 포, 술 등을 준비한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마을 청년들이 제장과 개울 앞 청소를 한 후 짚으로 새끼줄을 꼰다. 가운데 세우는 긴 '고줏대'와 옆에서 작은 나무로 받쳐준다. 예전에는 나뭇짐을 집집마다 능력껏 마련하여 자기 집 대문 앞에 놓으면, 풍물을 치며 걷어 갔으나, 지금은 동네 인구의 감소로 몇몇 청년들이 산에 가서 준비한다.

특히 고줏대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집에서 준비한다. 저녁 7시 정도에 '동아대'를 세운다. 불을 붙인 후에 잔을 올리고 재배하며, 이어 축문을 읽는다. 그리고 풍물을 친 후에 다시 재배, 잔올리기, 재배, 소지 올리기의 과정으로 진행한다.

제사 지내는 동안, 대부분 풍물을 친다. 이것을 치는 것은 축원과 아울러서 주민들의 어울림과 화합을 뜻한다.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김원중. 정산면 남천리 이주기, 이운상)

- 대치면 농소리 놋점 마을의 동화제 : 농소리 놋점마을에서는 1월 14일 저녁에 50년 정도 된 정자나무 앞에서 동화제를 지낸다. 집집마다 한 다발씩 나무를 해서 정자나무 앞에 금줄을 치고 쌓아 놓는다. 산제를 지내러 올라가면 남은 마을 사람들이 불을 놓는다. (대치면 농소리, 놋점마을, 임춘재, 박신남, 복홍순)
- 운곡면 신대리의 동화제 : 신대리에서는 1월 14일 저녁에 장작을 쌓아 놓고 불을 놓는데 이것을 동화라고 한다. (운곡면 신대리, 윤광희, 이계준)
- 운곡면 안심리의 동화불 : 쥐불놀이 할 때에 마을제가 있었다. 정월 14일 저녁에 장작깨비를 쌓아서 불을 놓는데, 이것을 동화

불이라고 한다. 축은 읽지 않는다. (운곡면 안심리, 김재복)

2) 용왕제, 샘굿

- 청남면 왕진리 1구 창현마을의 샘굿 : 창현마을에서는 1월 14일에 마을 중앙의 공동우물에서 샘굿을 한다. 물의 깊이는 10미터 정도이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 군에서 문화마을로 지원을 받아 마을 샘을 깨끗하게 정리하였다. 따라서 우물 주위를 시멘트로 정리하고, 우물 위에 뚜껑을 새로 씌웠으며, 기와로 지붕을 씌웠다.

마을에서는 원래 '유왕제'라고 했으며, 제사 지내는 것을 '유왕제 모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2001년에는 이 명칭을 용왕제로 바꾸었다.

도유사 1인에, 유사 10명 정도를 선정한다. 이들은 음력 정월 3일에 뽑는다. 도유사를 정하고 나서는 마을 기를 그의 집으로 모신다. 유사가 하는 일은 제물을 준비하고, 소지를 올리며, 제사를 진행한다. 유사에는 장을 보는 유사, 물을 푸는 유사, 풍장(농악) 유사로 구분된다. 도유사가 초헌관이 되고 유사 중 하나가 아헌관, 종헌관은 유사중에서 정해서 한다.

비용은 음력 정월 3일에 가가호호 방문하여 성의껏 돈을 걷는다. 제사에 필요한 제물은 유사가 중심이 되어 1월 12~13일에 부여장(5일, 10일장)에서 구입한다. 대략 30여 가지를 준비한다. 삼색실과와 나물로 고사리, 무나물, 배추나물, 미역국, 탕(소탕), 소지종이 20권, 성냥, 양초 등을 준비한다. 장을 볼 때에 물건값을 깎을 수 없다. 탕과 미역국 사이에 돼지머리를 놓는다.

김에 밥을 싸서 북어에 묶어서 우물에 띄우는데, 이것으로 마을의 무사태평을 빈다. 제물을 진설하는 방향은 원래 북향이었으나, 요즘은 동향이다.

정월 초사흗날에 유사를 정하기 전에 걸립을 한다. 그래서 필요한 비용을 추렴한다. 그리고 도유사를 정한 다음에 기를 모신다. 1월 14일 아침에 우물의 물을 푸고 주위를 깨끗이 청소한다.

샘굿을 할 때는 샘 주위에 금줄을 친다. 그리고 유사 집에서부터 우물까지 황토를 일정한 간격으로 놓는다. 금줄에는 창호지를 꽂아 놓는다.

14일 저녁 6시 반에 농악(풍물)을 치면서 주민들이 우물에 다 모이면, 유사가 제물을 진설하고 초를 켠다. 진설을 할 때에도 풍물을 치며 제사를 지낼 때에는 중지한다. 진설은 원래 북향으로 진설했으나, 지금은 동향으로 제사를 지냈다.

술을 올릴 때에 도유사가 초헌관을 한다. 유사 중에 두 사람을 정해 아헌관과 종헌관을 한다. 술은 3번만 올린다. 술을 올린 다음에 도유사가 축을 읽고 불사른다.

이어 소지를 하는데, 유사들이 각 집안의 세대주들의 소지를 올려준다. 소지 종이는 약 400매를 준비한다. 소지 대상자가 400명이 되므로 여러 유사가 합심해서 올린다. 따라서 대략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소지를 올릴 때에는 각자 속으로 축원한다. 사람들이 모두 모참여하며, 출향민일 경우 부모가 대리로 소지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

한편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 호로병에 강물을 가득 채워서 뚜껑을 솔잎으로 막는다. 그리고 우물 '아구지'(위쪽)에 나무를 가

로질러 놓고 걸쳐놓는다. 그리고 거꾸로 매달아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한다. 따라서 마르지 않는 샘이란 뜻을 지닌다. 제사가 끝난 다음에는 솔잎을 빼놓고 물을 모두 비운다. 한편 제사 지낼 때에 북어를 우물에 묶어 띄우고, 제사가 끝난 후에 꺼낸다.

모든 제사가 끝나면 동네 사람들은 우물물을 제일 먼저 뜨면 좋다고 해서 서로 먼저 물을 떠가려고 한다. 한편 각 가정에서는 개인적으로 시루떡을 하고, 우물의 청수를 떠다가 치성을 드리는 경우도 있다.

다음에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여 술을 한잔 먹으며 척사대회를 실시한다. 그 장소가 예전에는 도유사의 집에서 했는데, 요즘은 회관에서 실시한다. 윷놀이는 예전에는 남자만이 참여했으나, 지금은 남녀 모두 참여한다.

음력 1월 3일에 도유사가 선정되면 그의 집으로 기를 모신다. 이 기는 제사 지낼 때에 우물에 가져와서 사용하지는 않는다. 기의 밑에는 또아리 식으로 짚을 엮어 받쳐 놓는다.. 기는 원래 2가지였다. 본래 큰 형태로 흰색이었으나, 근래에 와서 작은 기로 바뀌었다고 한다. 본래 기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쓰여져 있었으나 지금의 기는 용이 그려져 있다. 기는 제사가 끝나면 보름날에 기를 내리고 술을 한잔씩 한다.

이 샘제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6. 25 때에 한 해만 빠지고 그동안 계속해 왔다. 제사를 지내온 덕분에 그동안 우물에 많은 아이들이 빠졌는데도 죽은 적은 없다. 오히려 작년에 군에서 문화마을로 지정하면서 샘 주위를 정화했으며, 마을 주

민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마을 제사가 되었다. 한편 유왕제는 개인이 강에서 제사지내는 경우도 있다.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1구 창현마을, 김용구)

- 목면 신흥리 임장골의 용왕제 : 임장골에서는 마을 앞 강변에서 1월 14일 저녁에 요왕치기(용왕제)를 한다. 예전에는 거의 모든 집이 용왕제를 지냈지만 지금은 몇 집만 한다고 한다. 주로 정월 대보름에 하지만 섣달쯤 하는 집도 있다. 제의는 주로 여성들이 한다.

이날 저녁 무렵 각 집에서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지낸다. 제물은 시루떡, 밤, 삼색실과, 고기, 김, 돈, 초 등을 개인 정성에 따라 준비한다. 짚 위에 제물을 차리거나 짚 위에 상을 놓고 차린다.

제물은 강가에 조금 떼어놓고 남은 것은 가지고 와서 마을사람들, 식구들과 함께 나눠 먹는다. 이 때 강물을 떠 와서 식구들이 나누어 마신다.

제물 차린 뒤 절을 하고, 떡을 강의 동서남북 방향에 던진다. 떡, 김, 돼지고기를 싼 덩어리를 용왕님 몫으로 먼저 강에 넣고, 식구 수대로 제물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숫자대로 소지를 올린다. 예전에는 제의가 끝난 뒤 아이들이 떼어놓은 제물이나 돈을 줍고 다녔다고 한다.

이때 자손이 잘 되고, 사고 없이 한 해 보내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용왕님 가정 잘 평안하게, 병 없이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 가정 화합하게 해 주시고, 무사하게 하시고, 애들 있는 집은 물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원한다. 간혹 타지에

서 온 사람이 강가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사고가 없었다고 한다. (목면 신흥리 임장골, 안정옥, 임희열, 윤성갑, 임경빈)

- 청남면 내직 2리의 유왕제 : 내직 2리에서는 1월 15일 아침에 제방 앞에서 동쪽으로 상을 차리고 제를 올린다. 제단은 따로 없고 상을 가져가 차린다. 40여년 전 만든 제방이 마을의 모든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되면서 그 제방에 제를 올리게 되었다.

이장이 축을 읽는 축관과 술을 올리는 제관, 음식장만을 담당하는 제주를 생기복덕을 따져서 운이 닿는 이로 선정한다. 제관은 일주일전쯤 선정하는데 제관 혹은 제관의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기면 다시 선정한다.

제의 비용은 마을의 공동소유인 논에서 돈으로 마련한다. 7~8년 전에는 마을을 돌며 걸립을 하였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이장과 제주가 장을 본다.

제물로 특이한 것은 미역을 올리며, 제가 끝난 후에 물 속에 넣는다. 떡은 큰 시루에 팥 시루떡과 흰 시루떡을 각각 올린다.

마을 사람이 제의 과정에 모두 참여한다. 제물을 들고 올라갈 때는 풍물을 치며 올라간다. 풍물은 마을의 남자들이 연주하며 상쇠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의가 모두 끝난 뒤 음식을 모두 같이 나눠먹고 내려온다. 풍물은 제가 끝나고 내려오는 길에도 계속한다.

소지는 유황소지를 먼저 올리고 동네소지와 개인소지를 올린다. 각자 소원성취를 위해 개인소지를 올리고 한줌씩 소지를 태워 동네 소지를 올린다.

부정한 사람은 제를 지내러 올라가지 못한다. 상갓집이나, 생리중인 여자는 제에 참가하지 않는다(청남면 내직2리, 김태홍).

- 남양면 매곡리 용왕제 : 매곡리에서는 마을 안쪽의 샘터에서 정월에 좋은 날을 택해서 용왕제(샘고사)를 지낸다.

샘고사는 동네의 여자들이 마을 안쪽 사각형의 샘터에서 지내는데, 현재는 빨래만을 한다. 제의 절차는 정월 좋은 날을 택해서, 저녁 먹고 어두워지면 제사를 지낸다. 요새는 옥련암 스님이 대신 빌어준다. 스님이 '관세음보살 용왕님네, 부자 되게 해 주세요'라고 물에 빌면 좋다고 해서 3년 전까지 시행했다. (청양군 남양면 매곡리 1구, 강산분)

- 청남면 왕진리 1구 원왕진의 유왕제 : 1월 15일 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산신당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이어 내려오면서 거리제를 지내고 유왕제(용왕제)를 지낸다. 유왕제의 제물은 새로 차려서 놓는다. 앞의 제사에서 한 번 쓴 것은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 소지를 올리며, 축문은 없다. 소지를 올리면서 "동네 아무런 사고없이 잘 지내게 해 주십시오. 동네 남녀노소 모두 물 관계로 사고 안 나게 용왕님께 축원합니다."라고 기원한다. (청남면 왕진리 1구 원왕진, 김정운)
- 대치면 농소리 놋점마을의 용왕제 : 놋점마을에서는 1월 보름에 집의 우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떡을 올리고 절을 한다. 밥을 김에 싸서 물에 담그기도 한다. (대치면 농소리 놋점마을, 임춘재, 박신남, 복흥순)
- 대치면 오곡리의 유왕제 : 1월 14일 저녁에 집 앞 우물에 밥한 그릇과 불을 밝힌다. 불은 무수(무)를 파서 심지를 꼽고, 홈

에 기름을 붓은 다음에, 바가지로 받친다. 한편 바가지에 쌀을 담아 초를 꼽기도 한다. (대치면 오곡리, 박선자, 김성아)

- 화성면 합천리의 용왕제 : 용왕제는 정월 초순에 하는데, 밥과 미역국을 놓고 1년 내내 자손이 번창하기를 빈다. (화성면 합천리 이한숙)
- 목면 안심리의 샘고사 : 샘물 먹는 사람들에게 쌀을 조금 걷어서, 무당이 14일 저녁에 샘고사를 지낸다. 그리고 떡을 나눠 준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3) 산신제

- 청남면 원왕진리 산제 : 원왕진리에서는 1월 15일에 산제당에서 산제를 올린다. 산제 또는 산신제라고도 부르며 '산제잡순다'고도 한다. 이것은 산제 기도를 드린다는 뜻으로 보인다. 원왕진에서는 대개 산제-유왕제-거리제의 순서로 진행된다.

음력으로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유사 3사람이 모여 합숙하며 목욕재계하고 기도를 드리며, 14일 오후에 산제당으로 올라가서 산제를 지낸다. 밤 12시에 소지를 올리고 새벽 5시에 내려오며, 이어 아침에 강가에서 유왕제, 마을 입구에서 거리제를 지내고 끝낸다.

유사는 모두 3인으로 매우 엄격하게 뽑는다. 유사는 장을 보는 유사, 음식을 장만하는 유사, 제사를 지내는 유사로 각각 구분한다. 선정할 때에 집안 여자 중에 월경이 있어도 안 된다.

산제 지내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제시대까지 걸립을 했다. 그래서 각 집집마다 얼마씩 돈을 추렴했다. 그러나 지금

은 외지에서 협조를 받아 마련한 동네 기금으로 제사를 지낸다.

제물은 삼색실과 밀가루 부침개, 다시마, 통팥을 넣은 시루떡, 약주 등을 준비한다. 예전부터 술은 장에서 약주로 구입했다. 그리고 돼지는 사용하지 않았다. 제물은 각각의 제의 때마다 새로운 것을 올린다. 절대로 한 번 올린 것을 쓰면 안 된다.

1월 12일에 당산재라는 산 밑에 있는 산제당에 금줄을 치고 외인의 출입을 못하게 한다. 여자도 제의에는 참가할 수 없다. 그리고 유사 3사람이 아침저녁으로 목욕재계하고, 그곳에서 먹고 자면서 14일날 점심때까지 기도를 드리고, 그곳에서 재물을 준비한다.

그 산제당은 제보자가 출생하기 전부터 있었는데, 근래에 허물어졌다. 그래서 한동안 가정집을 빌려 사용했는데, 지금은 마을회관에서 먹고 자면서 기도를 올린다.

그리고 오후 4~5시경이 되면 풀물(풍장)을 치면서 산제당에 올라간다. 이때 유사는 음식을 들고 올라간다. 이때 풀물 치는 사람 약 4사람 정도 합쳐서 모두 7~8인이 함께 올라간다. 여자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소지는 밤 12시경에 올린다. 소지 올리는 시간을 제외하고 계속 풀물을 치며, 내려올 때에도 악기를 친다. 소지가 모두 끝나는 시간은 새벽 5시경이다.

유사들은 마을 호당 소지를 올려준다. 자손들의 이름을 적어 주면, 이들의 이름을 부르면 모두 소지를 올려준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 모두의 소지를 올려주게 된다. 한편 외지 사람들은 마을에 일정하게 돈을 내면 소지를 올려준다.

한편 동네에서는 맞추어 각 가정에서는 여자들이 미리 당산(장광, 곧 장독대)에 떡시루를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 그리고 산제당에서 제물을 진설하고 나서 징을 크게 울리면, 이 신호에 맞추어 각 집집마다 치성을 드리고 식구들의 소지를 한다. 마을 회관에 축문이 비치되어 있다.

소지는 유사가 올리며 마을사람들을 모두 해준다. 이때는 생년월일은 부르지 않고 사람 이름만 부른다. 소지를 올릴 때는 조금씩 돈을 내야 한다. 유왕제를 지낼 때는 대표로 소지를 올린다.

산제기는 산제 지낼 때 가지고 간다. 약 10m 정도의 길이로, 흰천으로 되어 있으며 아무런 글씨가 쓰여 있지 않고, 위에는 꿩털, 실, 색실을 꽂았다. 마을 회관에 보관해 놓는다.

산신제를 지낸 다음에 거리제와 용왕제를 지낸다. 그리고 정월 15일에 동네분들이 다 모여서 대동계를 한다. 이 때는 회계 관련 내용을 책임지는 사람이 보고를 한다. (청남면 왕진리 1구 원왕진, 김정운)

- 화성면 광평리의 산신제 : 광평리에서는 정월 초사흗날에 마을 어귀에 작은 산에 암석으로 된 곳에서 산신제(산제)를 지낸다. 원래 12시에 했으나, 요즘은 저녁 6~7시경에 제를 지낸다.

  제일 3~4일전인 섣달 그믐에 마을 회관(예전엔 큰 사랑방)에서 회의를 하여 주당 2명(부부)을 선정하는데 그 해에 복록이 있는 사람으로 내외를 선정한다. 책을 보고 계장이 뽑는다. 가장 복덕 닿는 사람으로 뽑는다. 축사(축관) 1명은 축문을 읽는 사람으로 소지를 올려가며 절을 한다.

비용은 풍장을 치며 가가호호를 다니며 5000원 정도씩 갹출한다. 전체 비용은 30만원 정도 소요된다.

제물은 떡시루(2개-요왕제, 산제), 청수(우물을 깨끗이 퍼낸 뒤). 제물(떡, 물)을 준비한다. 백설기 한 시루 해서 올리고, 청소 깨끗이 하고, 우물물 퍼내고 새로운 깨끗한 물 퍼서 바친다.

3일 전부터 계장이 음식 준비를 한다. 소지 올리며 축원을 일일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림. 풍물패는 밑에서 기다림. 산제에 정성을 드린다는 뜻으로 계속 풍장을 친다. 제사에는 3명만이 올라간다.

한편 산제기는 3일 동안 걸어놓으며 태극기를 먼저 위에 달고 밑에 단다. 5년 전만 해도 산제당 앞으로 상여가 지나갈 수 없었다. (화성면 광평리, 김진섭)

- 화성면 구재리 어재울의 산신제 : 어재울에서는 1월 3일에 산신제를 지낸다. 어재동의 평강 채씨 문중에서는 일제 강압기인 1944년까지 8대(약240년 정도)째 독산제식으로 산제를 지냈다. 그러다가 살기가 어려워지자 동네에서 산제를 지내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자꾸 떠나 사람수가 줄어들자 1994년에는 어재동과 구수동이 함께 산제를 지낸다. 산제는 산신령을 위하고 일년동안 마을 사람들이 무사히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지내며, 마을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다.

제관을 '제관' 또는 '주당 닿은 분', '생기복덕 닿은 분'이라고 부른다. 선정된 제관은 제일 사흘 전부터 삼일동안 바깥출입을 삼가고 찬물로 목욕재계를 한다. 또 부부 간에는 삼일동안 함께 잠을 자지 않는다.

비용은 60년대까지 걸립으로 충당했다. 돼지를 잡아놓고 마을 깃대를 높게 올리며 풍장을 치면서 집집마다 쌀을 세 되씩 걷었다.

산제를 모시는 날에 마을 사람들은 절대 술을 마시지 않는다. 또 나무를 하다가 잘못해서 피가 날 때에는 부정하다 해서 그 날은 나무를 하지 않는다. 만일 제를 지내기 전에 마을에서 초상이나 출산이 생기더라도 그 집사람만 참석을 하지 않는다.

주민들이 저녁에 산신당에 올라가서 제물을 준비하고, 밤 12시경에 제사를 올린다.

제 지내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향을 피우고 청수를 올린다. 제관이 절을 한 후에 소지를 올린다. 예전에는 산신축을 축관이 읽었으나 지금은 읽지 않고 있다. 먼저 산신소지를 올리고 호당 대주 소지를 올려준다. 이어서 객지에 나갔거나 군대에 간 사람의 소지를 올려준다.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의 소지도 올려준다. 소지를 올릴 때에는 "금년 한 해에도 무사하게 잘 지내게 해주십시요"라고 기원한다. 내려오면서 마을 수호신인 선돌에 간단히 제물을 차리고 절을 한다. (화성면 구재리 어재울 윤복성, 이상두), 채규섭)

- 청양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월의 산신제 시기는 1월 14일 가장 많으며, 그 외에 마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① 1월 2일 : 화성면 화암리 산신제

  ② 1월 3일 : 화성면 광평리 산신제, 화성면 구재리 어재울 산제

  ③ 1월 5일 : 대치면 장곡리 산신제(예전 1월 4일), 화성면 매산리 산동마을 산신제

④ 1월 7일 : 청남면 청소리의 산신제와 하산제

⑤ 1월 14일 : 청남면 동강리 산신제, 청남면 원왕진리 산제, 청남면 천내리 산신제, 청남면 인양리 성황당(산신제), 대치면 광금리 산신제, 대치면 시전리 비끼네 산신제, 비봉면 중묵리 먹벵이 산신제

⑥ 1월 15일 : 화성면 홍산 1리 통뫼마을 산신제, 비봉면 관산리 산제

⑦ 1월 15일 이전 택일 : 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 산신제

화성면 화암리의 산제의 경우, 산제당 안에 탱화가 있었는데, 가로 80㎝, 세로 150㎝ 정도로 산신과 호랑이가 그려져 있었는데, 전쟁 때 없어졌다. 대치면 장곡리의 산신당의 산신도를 마을 사람들은 '산신도 화상'이라 부르며, 50년 이상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1940년대 중반 이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산신도에는 칠갑산 산신령과 산신령이 데리고 다닌다는 호랑이가 그려져 있다. 마을이 칠갑산 밑에 있어서 칠갑산 산신령을 위해야 마을이 평안해지므로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의 경우도 예전에 동네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개를 다 잡아서 제를 지내게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제를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대치면 광금리 산제당은 상당과 하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당은 산신을 모시는 곳으로 제단이 있으며 옆에 제관들이 쉴 수 있는 당이 있고, 하당은 청양에서 제일 큰 참나무(1000년 이상의 수령)옆에서 하당제를 지낸다. 금줄도 쳐져 있고 함석으로 지었고, 짚풀로 지었다가 다시 지었다. 아랫당은

나무이기 때문에 돼지머리를 놓지 않고, 윗당은 산신이 호랑이라 고기를 좋아해서 돼지머리를 놓는다. 산신령(호랑이)에게는 돼지머리를 생것을 올린다.

또한 대치면 시전리 비끼내 마을이나 비봉면 관산리 등에는 산제계가 있어 마을의 산제를 주관한다.

4) 정자나무제, 거리제

- 남양면 봉암1리의 향단제 : 봉암 1리의 향단제는 1월 7일에 은행나무를 모시는 제사이다. 향단제는 해마다 음력 정월 초이렛날 마을에 있는 은행나무를 모시는 제이다. 향단제가 언제 어떻게 해서 생긴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마을 사람들은 이 마을이 생기면서부터 지내왔다고 한다. 다만 이 마을에 살던 천석꾼인 조영도씨의 생가가 지금도 남아 있고, 그 집 마당 안에 이 은행나무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다. 향단제는 마을 사람들이 한해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지낸다.

약 열흘 전에 경로회장이 책을 보고 생기복덕을 보아 화주와 축관, 이장을 선정한다. 특히 화주와 축관은 대개 나이가 50세 이상된 사람으로 제일의 일진이 좋은 사람을 뽑는다.

비용은 옛날에는 풍물을 쳐서 집집마다 성의껏 낸 쌀로 마련했으나, 1970년대부터 400평 가량의 마을 논에서 수확한 곡물로 제의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제비는 약 15만원정도이다. 제기는 옛날부터 있었고 보충해서 산 것도 있으며 매년 산제당에 보관하고 있다.

제를 지내기 3일 전에 동회장과 이장이 시장에 가서 제물을 사서 산제당에 보관하게 된다. 이 때 가릴 것은 상주집의 물건을 사지 않고, 물건값을 깎지 않으며, 눈이 또렷한 명태, 흠집이 나지 않은 과일을 골라 성의껏 장을 본다. 제물은 사과, 배, 대추, 밤, 곶감, 산자, 포, 과자, 김, 약과, 향, 소지종이(5권)를 산다. 또 제가 끝나고 동네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을 음식도 준비한다. 소주 1박스와 과일, 음료수, 동태 반 상자 등을 장만한다.

선정된 화주와 축관은 부정한 것을 보지 않기 위해 부정한 자리를 피하며 삼일동안 목욕재계를 하여 몸을 정갈하게 한다. 특히 화주는 제 지내기 3일 전부터 은행나무 옆에 지어놓은 산제당에 들어가 삼일동안 밤낮으로 기도를 드린다. 산제당을 청소하고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마다 길지를 꽂은 금줄을 치고 황토를 세 군데씩 뿌려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 또 은행나무와 산제당에도 금줄을 쳐서 부정을 막는다. 이 때 금줄은 화주가 직접 만든다.

마을 사람들은 예전에 제일전 일주일동안 나무를 하러가지 않다가 지금은 삼일동안 산에 가서 나무를 하지 않느데, 그 이유는 피를 보게 되면 부정을 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만일 제를 지내기 며칠 전에 마을에 출산이나 초상, 가축이 죽는 일 등이 발생하면 부정하다고 여겨 날을 연기해서 다시 잡는다. 실제로 향단제가 끊긴 해는 한번도 없었고, 해방 전의 홍역이 돌았을 때와 화주가 부정한 마음을 먹어 산 닭이 차려놓은 제물 위에서 죽은 일이 발생해서 날을 물린 경험이 있다.

제의 절차를 보면, 제일 저녁 6시쯤 되면 화주는 화주집에서

빻아온 떡쌀을 산제당 안 부엌에서 찌개 된다. 1987년까지 화주는 산제당에서 잠을 자며 일주일동안 기도를 드렸고, 산제당에서 직접 1말 3되 3흡의 쌀을 담그어 이장, 축과과 함께 절구에 빻아서 큰 시루에 떡을 찌었다고 한다. 이 때 떡은 백무리를 한다. 또 예전에는 솥에 쌀을 넣고 화주가 산제당 부엌에서 나무불을 때서 밥을 지었으나, 91년부터 보온밥솥에 밥을 지어 사발에 퍼서 제단위에 올린다. 마을 사람들은 제물 준비 등에 있어 시대에 따라 자꾸 간소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제 지내기 약 1시간 전인 저녁 7시부터 마을 중앙에 있는 노인회관 옆에서 화토불을 피워놓는다. 이것은 제단 주위의 모든 부정한 잡귀잡신을 정화하기 위해서이다.

저녁 7시 50분 정도가 되면 화주는 제단 위에 제물을 진설해 놓는다. 먼저 제단 양쪽에 놓여있는 초에 불을 켠다. 맨 앞줄에 대추, 통밤, 곶감, 배, 사과, 귤, 산자, 약과를 차례로 놓는다. 뒷줄에는 식혜, 무나물, 김, 포, 과자를 놓는다. 이 때 배는 전체를 깎고, 사과와 귤은 위아래 양쪽만 깎아 놓는다. 또 원래는 나물이 3종류여야 한다는데, 화주가 직접 산제당에서 음식을 만들므로 무나물만 간소하게 한다. 무나물에는 고춧가루나 매운 것을 넣지 않는데, 예부터 제사지내는 음식에는 매운 것을 넣지 않았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옛날부터 고기를 쓰지 않았고, 술 대신 식혜를 쓴다는 점이다. 식혜는 정성이 깃들여야 하므로 화주가 직접 산제당에서 담은 것으로, 제단 위에 올려놓은 식혜는 잔대에 대추를 세 개 띄우고 국물 없이 건더기만 올려놓는다. 제주로 쓰는 식혜는 국물을 주전자에 담아놓는다.

이렇게 제물 진설이 끝나갈 무렵 밤 8시부터 노인회관 옆 3갈래 길에서 마을사람들은 풍물 장단을 맞춰보는 등 풍물연습을 하기 시작한다. 밤 8시 10분부터 풍물패가 3갈래 길에서부터 풍물을 치면서 제단 밑으로 일렬로 걸어 들어와서는 제단 앞에서 원을 그리며 빙빙 돈다. 풍물패의 구성은 꽹과리 2명, 징 1명, 장구 1명, 북 2명으로 무도 6명이다.

이때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나와서 구경을 한다. 그러나 새 한 마리라도 죽였다던가 생리중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은 스스로 나오지 않아야 한다.

산제당에 화주는 제단 오른쪽에 놓인 떡시루 옆에 청수를 내려놓고 밥과 떡뚜껑을 연다. 이때 풍장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울리면서 풍물패가 제당 밖으로 퇴장한다. 제를 올리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처음에 화주가 분향을 한다. 이때 풍물은 멈춘 상태다. 화주는 재배를 올리고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식혜를 올릴 자세를 갖춘다. 이장이 옆에서 식혜를 따라주면 화주가 받아서 축관에게 올려주고, 축관은 제단 위 땅에 쏟아버리고 제단 위에 놓는다. 화주, 축과, 이장이 함께 절을 올린다. 화주가 다시 식혜를 한 잔 올리고 젓가락을 모아 '톡톡'하고 제단을 두 번 친다.

이어 축관이 축문을 읽는다. 축문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한 해 농사가 잘 되고 가축도 잘 크게 해 달라고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 축관, 화주, 이장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앉아 있다가 축이 끝나면 함께 재배를 올리고 두 손을 한

데 모은다.

마지막으로 소지를 올린다. 소지 올릴 명단을 읽을 때는 밝아야 하므로 제단 왼쪽에 있는 촛불을 가져온다. 또 소지를 올릴 때 뜨거우므로 꽹과리를 가져다 놓고 받쳐 올린다. 소지는 이장이 접어 축관이 불을 부쳐주면 화주가 띄워 올린다.

소지올리는 순서는 대동소지를 한 장 올리고 이어 연령순으로 호주소지를 올린다. 이제까지 조용하고 엄숙하게 뒤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라들은 소지를 올릴 때부터는 장난도 치고 웃으며 떠들썩하게 서서 지켜본다. 또 자신의 소지가 올라갈 때를 기다려 그 때가 되면 소지가 높이 올라가 한 해 동안 모든 것이 잘 되게 해달라고 마음 속으로 기원을 하게 된다. 아이들도 많이 나와서 구경을 하는데, 소지를 태운 재를 손으로 잡기도 하고 이리저리 뛰어 다니기도 한다. 축문은 태우지 않고 해마다 보관하며, 제가 끝나면 제단 위에 제물을 남겨두지 않는다.

화주가 동네 샘에서 향단제를 지낼 청수를 떠가면, 마을 아낙네들은 몰래 숨어 지키고 서있다가 앞을 다투어 청수를 떠간다. 그 이유는 먼저 물을 퍼 갈수록 더 좋다고 믿기 때문이다. 저녁 무렵 각 가정에서는 직접 절구에 빻은 세 되 세 홉의 쌀로 부엌에서 백무리를 찐다. 마을에서 향단제를 지내고 있을 무렵 장과에 짚을 깔고 백무리 위에 불밝이쌀을 올려놓고 동네 샘에서 떠온 청수를 옆에 놓는다. 이어 방 웃목 한가운데에 백무리와 청수를 옮겨 놓는다. 이 때 각각 재배를 하는데, '우리 가정이 좀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원한다. 그리고 나서 백무리를 식구들끼리 나눠먹는다.

밤 9시 15분 경에 향단제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회관 앞에서 둥글게 원을 그리고 서서 풍물장단을 맞춰보며 배우기도 하고, 어깨춤도 흔들며 흥겨워한다. 회관에서는 마을어른들을 모셔놓고 동태찌개를 끓여 술과 함께 대접하며 음복을 한다. 이때 고기는 살생이므로 부정하다고 여겨 먹지 않고 다음날부터 고기를 먹는다. 밥, 떡, 식혜 등의 음식을 재수가 좋아진다고 서로 권하며 오늘 지냈던 향단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이장은 올해 향단제에 들어간 비용 등 결산보고를 한다. 또 소득작물 등 농사일에 대해 토론하고 마을회의도 하며 함께 밤을 샌다.

향단제를 지낼 때 외지인들의 출입은 절대 금지되었다가, 몇해 전부터 외지인들의 출입을 허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봉암리 사람들은 향단제를 지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범죄가 없어졌고 교통사고도 난 적이 없으며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한다. 향단제는 마음으로 지내는 제사이고 전해내려온 전통이므로 앞으로 계속 간속하게나마 지낼 것이라고 한다. (남양면 봉암1리 이정남, 정삼용, 정창환), 정한기)

- 정산면 남천리의 노신제(거리제) : 남천리에서는 1월 14일 저녁에 노신제를 지낸다. 한때 인근 남천리 새울의 동화제가 중단되어 이곳에서도 중단하려고 했으나, 논란 끝에 계속하게되었으며, 다행히 남천리가 곧 복원되어 지금은 같이 전승하고 있다. 이곳 노신제가 먼저 지내며, 이곳이 끝난 다음에 인근 남천리로 옮겨 동화제에 참여한다. 그래서 두 마을이 어울려 밤을 새우며 풍장을 치며 논다.

정월 14일 저녁에 남천리의 이웃인 우성면 봉현리에서는 노

신제를 지낸다. 제사는 저녁에 시작해 대략 9시 경에 끝나며, 시작 시간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난다. 원래 이곳 노신제는 정월 15일에 지냈으나, 약 20~30년 전에 돌아가신 한 노인이 다른 마을에는 보름 행사가 모두 14일이라고 해서 날짜를 15일에서 14일로 바꾸었다. 따라서 정산면 남천리의 동화제와 같은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실시한다. 시간상으로 이곳 노신제가 약간 먼저 끝나며, 이 마을 주민들은 이웃의 남천리의 동화제 장소로 이동하여 동화제에 참여한다.

제관은 1월 3일에 걸립을 하고 화주를 정하며, 화주 집에서 술을 담근다. 걸립을 할 때에는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풀물을 치며 집집마다 다니며 쌀과 돈을 걷는다.

우선 학교 앞에서 위쪽으로 길가에 홰를 설치한다. 제의는 풍물을 앞세우고 우선 샘에서 '유왕제'를 지낸다. 거듭 확인했으나, 이곳에서는 용왕제가 아니고 유왕제라고 발음하였다. 이 샘은 제보자의 집 앞에 있으며, 1월 12~13일에 금줄을 치고 깨끗하게 품어낸다. 현재는 폐샘이 되었으나 지금도 이곳에서 유왕제를 지낸다.

이어 홰에 불을 붙인 다음에, 개울가의 느티나무(길 옆 가게 앞에 위치했으나 고사함)가 있던 곳에서 거리제(노신제)를 지낸다. 홰는 20호에서 2개씩을 준비해서 모두 40개를 세운다. 각 가정에서 2개씩을 준비하는 이유는 집안의 대주가 부부를 합쳐서 2인이기 때문이다. 유왕제를 지내고 거리제 지내러 갈 때에 불을 붙인다. 일제히 불을 붙이면 학교 앞 큰 길이 꽃밭과 같다고 한다. 제물로 쓰는 떡은 쌀 3되를 사용해 흰무리를 한다.

예전에는 무당을 불러 축원을 했다. 이때 복을 비는 대상은 2인의 대주로 각각 권명대주, 곤명대주이며, 이들은 각 집안의 세대주와 그 부인을 일컫는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축문을 읽지 않는다. 그러나 근래에는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무당을 부르지 않고 화주가 대신 축원을 한다.

마지막으로 소지를 올릴 때에는 화주부터 먼저 올린다. 그리고 각 집의 호주(대주)들의 나이를 따져 나이 순서에 의해 차례로 소지를 올린다.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김원중)

- 목면 본의2리 노신제 : 본의 2리에서는 정월 14일 저녁에 마을 입구의 정자나무에서 노신제를 지낸다.

마을 입구의 길가에 있는 "바깥정자"는 남자이고, 마을 안쪽으로 있는 "안정자나무"는 여자이다. 원래 바깥정자는 30년전에 죽었는데 몇 년전에 다시 심고, 안정자나무는 살았는데 고목이 되어있다. 새로 심은 바깥정자나무 옆에는 노신제에 대한 비석을 세워놓았다.

바깥정자나무에 먼저 제를 올리고 다음으로 안정자나무에 제를 지낸다. 제물을 올리고 절하고 술 올리고 축 읽고 소지를 올리는 순으로 제를 지냈다.

소지를 올릴 때는 노신님 소지라고 해서 정자나무를 제일 어른이라고 해서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는 동네소지라고 해서 동네 잘 되라고 올리고 객지에 나간 사람들의 소지도 올린다. 소지는 노신소지, 동네소지, 제관소지, 동네사람 소지, 객지소지등을 올린다. 제를 지내고 돌아올 때도 풍물을 치면서 오며 돌아와서는 결산보고를 한다. (목면 본의2리, 김천식)

• 청양 지역의 정자나무제의 제의 날짜는 주로 1월 14일에 실시하며, 그 이외의 날짜는 매우 적은 편이다.

① 1월 7일 : 남양면 봉암 1리 향단제

② 1월 14일 : 운곡면 모곡리 정자나무제, 정산면 송학리 정자나무제, 정산면 남천리 노신제(거리제), 청남면 인양리 노신제, 화성면 화암리 동제, 목면 본의 2리 노신제, 청양읍 학당리 여의실마을 고목제

③ 1월 5일~15일 사이 : 화성면 매산리 산동 3반 정자나무제

④ 1월 손 없는 날 : 남양면 매곡리 거리제

특이한 것은 정산면 송학리 정자나무제는 정월 14일 밤에 동화제를 지내는 동안에 아녀자들이 모여 정자나무제를 지낸다. 제의 주관은 스님이며, 축문 대신 경는다.

한편 청남면 인양리에서는 1월 14일 저녁에 노신제를 지낸다. 동네 큰 정자나무가 고목으로 50년대 말에 고사한 다음에 60년대 중반에 노신제가 중단되었으나, 일부 옛 것을 되살려보자는 의견이 있어 2000년도에 부활화였다. 그러나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 중심으로 없던 것을 굳이 살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2001년에는 다시 중단되었다.

청남면 내직 2리의 경우, 예전에 마을 경지정리를 하러왔던 사람이 포크레인으로 나무 가지를 상하게 했다가 그날 집으로 가는 길에 차가 구르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또 한번은 마을 주민이 나무를 상하게 하고는 병을 앓아 나무에 정성을 들이고 회복하였다고 한다.

이 지역의 정자나무제에는 대부분 풍장을 치며, 거리제의 형

태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5) 장승제

- 정산면 송학리 상송마을의 장승제 : 상송마을에서는 1월 15일 새벽에 장승제를 지낸다.

상송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장승이 양쪽으로 2기가 있고, 오릿대가 1기, 솔가지대가 1기 세워져 있다.

새 장승을 세우고 오래된 장승은 뽑아서 제를 지낸 후에 때워버린다. 오른쪽 장승은 남장승으로 양지에서 나무를 베어오고, 왼쪽 장승은 여장승으로 음지에서 베어온다.

동화제 이후에 같이 먹고 놀지만 장승제를 지낼 사람은 오지 않고 집에서 근신하다가 제를 지낸다. 장승을 깎는 사람을 따로 부른 이름은 없고 잘 깎으니깐 계속 깎는다.

나무 장승 옆으로 시멘트로 제작한 장승 1쌍이 있는데 이것은 마을 분이 개인적으로 세워서 정성을 드리는 장승이라고 한다. 장승에는 "천하축귀대장군"과 "지하축귀여장군"이라고 쓰여져 있다.

제물 장만은 제의 전날 정산시장에 가서 장을 본다고 한다. 장을 보는 가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시장을 다니면서 물건이 좋은 것을 선택하여 산다고 하며 장을 볼 때 물건값을 깍지는 않는다고 한다. 따로 정해둔 가게는 없고 물건을 봐서 좋은 것으로 산다. 물건값을 깍지는 않는다. 사온 제물은 좋은 장소를 선택하여 보관한다고 한다.

제물로는 북어, 백무리떡, 탕, 간장, 동치미, 대추, 곶감, 제주

를 올린다. 제주는 20일전에 담그는데 쌀, 누룩, 솔잎을 넣어서 만든다. 술 담글 때 넣는 솔잎은 산에 가서 따다가 넣는다. 이 때 북어는 5마리를 올리는데 오방을 상징한다고 한다.

제주는 20일전에 선출. 장승 세우는 분과 깎는 분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고 사람이 없어서 같이 깎고 세운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만 청결히 한다. 제주의 집은 금줄을 치는데 금줄에 종이와 솔잎을 끼워둔다. 문 앞에 산에서 퍼온 황토도 뿌려둔다. 정결하고 깨끗한 곳에서 퍼 온 황토로 부정한 사람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이다.

정월 보름날 새벽에 제를 지내는데 정월 열나흘날 낮에 장승을 깎을 나무를 해오는 것에서부터 제의는 시작이 된다.

제의 전날 오전에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와서 장승을 깎는다. 부정이 없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 남장승은 양지에서 여장승은 음지에서 소나무를 베어온다. 오릿대도 이때 같이 베어온다고 한다. 베어온 소나무로 남장승을 먼저 깎은 후에 여장승을 깎는다. 그 후에 오릿대도 깍아서 세울 준비를 한다.

남장승에는 "동남방청적제축귀대장군(東南方靑赤帝逐鬼大將軍)" 여장승에는 "서북방백흑제축귀대장군(西北方白黑帝逐鬼大將軍)"이라고 붓으로 쓴다.

장승깎기가 끝나면 먼저 남장승을 세우고 오릿대를 끼우고 솔대를 끼운 후에 여장승을 세우고 오릿대를 끼우고 솔대를 끼운다. 장승에 치마라고 불리는 한지를 입힌다. 한지를 입히는 것은 장승에게 옷을 입히는 의미라고 말씀을 하셨다.

장승을 세우면 어른들은 장승이 바르게 서야 훌륭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아마도 아들의 탄생과 관계된 것이 아닌가 싶다.

장승을 다 세운 후에는 두 장승을 잇는 금줄을 치는데 이 금줄은 왼새끼의 금줄이며 금줄에는 한지를 끼운 것을 친다. 금줄을 다 친 후에는 장승앞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변 쪽으로 황토를 양쪽에 뿌린다. 잡인의 출입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신다.

정월 보름날 새벽 5시경에 제의를 시작하는데 이때 풍물을 치면서 장승이 있는 곳으로 간다. 장승거리에 도착을 하면 두 장승 사이에 자리를 펴고 상을 놓고 제물을 올린다.

제물을 진설하고 나면 잔에 술을 붓고 재배하고 다시 잔을 내리고 술을 붓고 독축한 다음 재배한다. 이어 젓가락을 두 번 치고 잔을 내리고 재배하고 다시 술잔에 잔을 채운 후 재배를 하고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상송마을 전체를 위한 대동소지를 올리고 장승소지, 화주소지 순으로 올린다. 소지를 올리고 나면 제의는 끝나고 제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간단히 음복을 하는 것으로 제의는 모두 끝난다.

비용은 정초에 풍물을 치면서 가가호호를 다니며 갹출한다. 장승제 제주는 청결히 해야 하는데 특히 눈부정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

장승 옆으로 보면 시멘트로 제작한 장승 한 쌍이 있는데 이 장승은 몇 년 전에 동네 한 주민이 청년시절에 장을 뽑아 버려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정신적 고통을 입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시멘트로 장승을 세우고 매년 제를 지낸다고 한다. 장승의 모습은 2m가량의 크기의 남녀 한쌍으로 남장승에는 '천하축귀대장

군' 여장승은 '지하축귀여장승'이라고 한글로 쓰여져 있다.

이 장승 옆에 있는 집을 장승집이라 부르는데 그 집에서는 할머니가 계실 때는 제를 지낸 후에 1달에 1번 제를 지냈는데 지금은 별도로 지내지 않는다. (청남면 송학리, 오영삼)

- 대치면 대치리의 장승제 : 대치리에서는 1월 15일 새벽에 장승제를 지낸다. 장승을 깎는 것은 1월 14일이며, 남녀장승을 만든다. 남장승은 배가 나오고, 여장승은 배가 들어간 형국이다. 따라서 나무를 선택할 때에 이미 이런 모양의 나무를 선택한다. 장승을 세우는 시간은 1월 14일 저녁 4~5시이며, 제사는 다음날 새벽에 실시한다. 남자 장승 몸통에는 "天上天下逐鬼大將軍"라고 새기며, 여자 장승에는 "東西南北逐鬼大將軍"라고 새겨 넣는다.

음력 1월 15일 새벽 3~4시에 제사를 지낸다. 화주의 선정은 제일을 택할 때 함께 선정한다. 깨끗한 사람 중에서 화주와 축관 1인을 뽑는다. 화주는 제사를 주관하며, 축관은 장승축을 읽는다. 예전에는 축문을 읽지 않았다.

부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걸립을 실시하는 정월 1월 3일부터 1월 15일 제사 지낼 때까지 지속된다. 상여를 보거나, 상처가 나거나 출산은 부정으로 본다. 한편 짐승을 잡는 경우, 초상을 당한 경우도 모두 부정이다. 화주는 부인이 달거리(월경)를 하는 경우에도 부정이라 하여 맡을 수가 없다. 따라서 식구가 많은 집에서는 화주를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비용은 군의 지원금과 마을을 돌며 쌀이나 돈을 약간씩 걷어서 충당한다. 제물은 제일 1-2전에 제주가 구입을 한다. 제물은

삼색실과, 백무리(백설기), 담근 술을 사용했다. 그리고 막걸리는 주민이 먹고 놀기 위해 구입한다. 예전에는 돼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10년 전부터 돼지를 잡는다.

술을 올리고 절을 하는 방식은 다른 곳과 같다. 소지는 한 집에 호주만 올, 특별히 군대에 갔거나 외지에 나간 자식을 위해 올리는 경우도 있다. 제의가 끝나면 북어와 삼색실과를 백지에 싸서 새로 세운 장승의 목에 매단다. (대치면 대치리, 염태섭)

- 정산면 용두리 1구의 장승제 : 용두리에는 1월 14일에 마을 어귀에 있는 정자나무 옆의 장승에서 장승제를 지낸다.

장승은 1쌍을 세우며, 작년 것과 합치면 모두 2쌍의 장승이 서 있다. 옆에는 솟대를 오리모양으로 조각해서 세워놓는다. 장승에는 "天上天下逐鬼大將軍之位"와 "東西南北中央逐鬼大將軍之位"라고 새겨져 있다. 장승제는 이 마을이 칠갑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 호랑이, 살쾡이, 멧돼지 등의 피해를 막고 역질 등의 전염병을 예방해 마을의 화평과 풍농을 염원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제관으로 축관 1명, 화주 1, 화주는 정월 초사흘에 뽑고 제일 당일까지 새벽에 목욕을 해야 한다. 예전에는 마을 우물에서 물을 받아다 목욕을 했는데 지금은 간소하게 집에서 한다. 그리고 우물은 화주가 먼저 물을 받아와야지만 마을사람들이 떠갈 수 있었다고 한다. 화주가 하는 일은 음식을 장만하고 부부끼리 같이 하는 것이다. 생기가 닿아야 할 수 있으며, 책을 봐서 누가 적당한가를 따져 뽑는다. 혼자 사는 사람은 될 수가 없다. 화주로 뽑히면 집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린다. 한문을 많이 아는

사람이 주로 했는데 지금은 40대 젊은 사람이 한다.

비용은 20-3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정초에 풍물을 쳐서 걸립을 하기도 하고 소지 올릴 때 돈을 조금씩 내는 것을 보태기도 하고 마을을 떠난 사람들이 조금씩 보태준다. 일정한 금액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고싶은 만큼낸다.

제물은 제일 하루 전날인 정월 열사흗날 마을 임원들이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청양읍내에서 구입하여 화주집에 가져다 놓는다. 제물로 올리는 것은 돼지머리, 삼색실과, 나물, 명태 2마리, 무수탕(무탕), 떡 한 시루(백무리), 술, 밥 등을 준비한다. 지내고 나면 북어를 꽂아놓기도 한다.

금기로 화주는 찬물로 매일 같이 목욕한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정성을 드린다. 마을 정자나무에 금줄을 쳐서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금줄은 왼 새끼에 고추, 솔잎, 숯을 걸어 놓는다.

장승제에는 동네 남자들이 모두 참여하지만, 부정한 것을 본 사람은 가지 않는다. 따라서 깨끗한 사람만 간다. 여자들은 음식을 장만하고 참여하지는 않는다.

제물을 준비하는 화주의 집에는 금줄을 치고, 양쪽에 3군데에 약 50cm 정도의 간격으로 황토를 놓는다. 그리고 화주 집에서 신작로까지 황토를 갖다 놓는다.

한편 마을 입구에서부터 장승에까지 황토를 뿌려놓는다. 황토는 동네 젊은 사람이 맡아서 뿌린다. 또한 청소는 제사 지내는 날에 깃대를 세우면서 한다.

예전에 주민들이 하루거리에 걸린 적이 있는데, 장승을 함부

로 만져서 병에 걸렸다고 여겨서 다음부터는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

기는 1월 3일에 화주가 선정되면 그의 집에 갖다 놓는다. 기를 놓을 바닥에 짚을 깔아놓는다. 그리고 기를 줄로 묶어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리고 화주는 우물에서 물을 떠서 기 앞에 놓고 절을 한다. 이 물은 매일 아침에 한 번씩 갈아 놓는다.

화주는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우물에 가서 목욕을 한다. 그리고 우물에서 물을 떠서 기 앞에 놓고 매일 절을 한다. 예전에는 아침에 화주가 먼저 물을 떠가야지 다른 사람이 물을 떠 갈 수 있다. 이곳에서는 아주 정성을 들인다.

기는 제일 근력이 센 사람이 들고 가며, 마을회관 옆에 둔다. 기에는 '천하지대본'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 두레기가 장승제기로 바뀌었다.

장승에 쓸 나무는 열나흗날에 베어 오며, 당일로 세운다. 주로 소나무를 쓰며, 방향을 봐서 그 해 운이 닿는 방향에서 선정한다.

장승을 세우러 가는 것을 '장승을 갔다 모신다'고 하는데, 이때에는 풍장을 친다. 제사를 지내러 갈 때에는 풍장을 치지 않는다. 저녁을 먹고 장승제를 지낸다. 이때 동네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며, 깃대도 들고 간다.

14일날 아침이 되면 산에 가서 장승을 만들 나무를 베어온다. 이때는 미리 점을 봐서 그해 맞는 방향에 가서 나무를 해온다. 나무를 하러 갈 때는 지게를 지고 간다. 그리고 나무를 베어오면 마을회관(예전에는 화주집)에서 장승을 깎는다. 그리고 몇몇

사람이 장승이 세워놓은 곳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전체 모여서 점심을 먹는다. 그런 다음 먼저 장승을 갈아 세워놓고 다시 마을로 돌아온 뒤 조금 있다가 장승제를 지내러 가는 것이다. 장승을 갈아세울 때는 풍장이 따라가나 장승제를 지낼 때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지금은 장승나무를 베러 갈 때는 경운기가 간다고 한다.) 예전에는 저녁에 지냈는데 요즘은 해가 지면 바로 장승제를 지낸다. 제물을 차리고 떡과 밥을 해 놓은 다음에 큰 대를 세워 놓고 물을 떠놓는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절을 한다.

한편 화주는 집집마다 소지를 올려준다. 소지는 한 집에 호주 한 사람씩 올리지만, 군대에 간 사람도 올려준다. 한편 다른 마을로 출향한 사람들도 식구들이 원하면 올려준다. 이때 축관이 옆에서 마을 호주의 이름을 불러준다.

소지 올릴 때에 일정하지는 않지만, 각자 알아서 얼마간의 돈을 낸다. 대략 오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낸다.

박정희 정권 시대에 얼마동안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마을 안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려 싸움이 있었으며, 젊은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제사를 없앴다. 중단된 3~4년 동안에 마을 안에서 자꾸 젊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 그래서 다시 지내자는 의견이 나오자 전혀 나쁠 것이 없다고 해서 다시 지내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다.

요즘에는 5년마다 한번씩 장승제를 지내기 위해 서울의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올라간다. 이 때에 마을 주민이 모두 한복을 입고 풍장을 치며 제사에 참여한다. 간지가 4년이 되었으므로 내년에 다시 올라갈 차례이다. 장승제를 지낼 때에는 구경꾼들이

많이 오고 기자들도 참석한다.

이 마을의 풍장은 징, 꽹과리, 북, 장고가 있고 복장은 따로 갖추지 않는다. 두레가 40년 전에 없어졌다. (청양군 정산면 용두리 1구, 이신우)

- 운곡면 위라리 1구의 성황제(장승제) : 위라리 1구에서는 1월 15일 새벽에 장승제를 지낸다. 성황제는 장승에게 지내는 일종의 장승제이다. 원래 1월 14일에 장승을 베어서 15일 새벽에 지냈다. 나무를 벨 적에는 인근 산에 가서 적당한 소나무를 골라 벤다. 그리고 3~4명이 하루 종일 걸려서 장승을 깎는다. 장승을 깎는 사람은 해마다 바뀐다. 장승을 세울 때에 오리(일종의 솟대)도 같이 세운다.

근래에는 11월 1일의 산제 지낼 때에 통합해서 지낸다. 산제 지낼 때에는 풍장을 치지 않지만, 성황제 지낼 때에는 풍장을 친다.

현재 이곳은 원래의 목장승 대신에 약 3년 전부터 해마다 깎는 번거로움을 피해서 석장승으로 대체했다. 원래 이곳 장승은 인근 대치면 이화리의 장승과 비슷하다. 인근 농소리에서도 장승을 지낸다. (운곡면 위라리 1구, 장인환)

- 장평면 미당리의 장승제 : 미당리에서는 매해 음력 정월 열나흗날에 산신제를 지내고 음력 정월 보름날 아침 10시쯤부터 장승제를 지낸다. 제주가 찬물에 목욕을 하고 정성을 지극히 하여 드렸다.

장승제에 필요한 돈은 집집을 돌아다니며 건립을 하여 마련하였다. 건립할 때 받는 것은 제각각이었는데 돈은 아니었고 주

로 쌀 다섯 되나 한 말 정도를 주는 데로 받았다. 제주와 유사를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장승제를 지내는 과정에서 지시를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

장승은 2~3일에 걸쳐 열 사흗날까지 목수 여러 사람이 깎는다. 나무는 솔나무를 썼고 방향을 꼼꼼히 따져서 선정하여 그곳을 가서 나무를 찾아 깎았다. 장승의 길이는 3m 정도가 되었고 두께도 매우 두껍다. 다 깎은 장승은 두 사람 이상이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시켰다. 적어도 열 나흗날 아침에는 장승을 모두 세우고 풍장을 치며 놀아야 한다. 장승은 오방장승으로 동서남북, 중앙(중앙은 장승 대신 미륵불이 위치.)에 세웠다. 장승을 세우는 순서는 동쪽부터 세우고 그 다음은 서, 남, 북 순으로 세우고 중앙은 세우지 않는다. 예전에는 장승제를 1년에 한번씩 꼭 지냈으나, 6.25 이후로 소멸되었다. (장평면 미당리, 강평길)

6) 성주, 터주, 조왕고사

- 운곡면 모곡리의 성주신앙 : 모곡리에서는 1년에 2번, 정월과 가을 농사 후에 성주를 모신다.

정월에는 날을 봐서 좋은 날로 택일을 한다. 위하기 위해 떡을 하는데, 가을에는 추수하고 햅쌀로 떡(케떡)을 해서 부엌, 장광, 방 세 곳에서 위하고 나눠먹는다. 부엌을 주왕이라고 하고, 장광을 토주라고 하며, 방을 성주라고 한다.

크게 정성들일 때는 법사를 모셔와 경을 읽고 성주를 단다. 이것은 주로 가을에 올린다. 오늘날 성주를 모신 집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정월에 시루떡을 물과, 불밝기와 함께 장광에 올리는

것은 계속 하고있다. (운곡면 모곡리, 곽주순, 송명구)

- 대치면 농소리의 조왕, 성주신앙 : 조왕은 정월에 부엌에서 백무리를 찌고 뚜껑을 열어놓는다. 부엌에 있는 조왕에게 먼저 바치는 것이다. 가을에도 케떡을 쪄서 물을 떠놓고 절을 한다. 떡시루 쪽을 향하여 절을 올리는데 적어도 일곱 번 이상을 올려야한다. 토주는 부엌에서 찐 시루를 시루 째로 들고 장광으로 가져간다. 가을에는 장광에는 짚을 놓고 떡시루를 놓고 상을 놓고 물을 놓는다. 토주에게는 동서남북의 사방으로 절을 한다.

  성주는 장광에 올렸던 시루를 다시 방으로 가지고 들어온다. 안방의 윗목에 하얀 종이를 접어 그 안에 쌀을 담아놓은 성주꽃을 모셔 둔다. 따로 성주의 신체를 모시지 않았을 경우에도 방의 윗목을 향하여 절을 올린다. 성주는 성주만보고 절한다. (대치면 농소리 임춘재, 박신남)

- 청남면 동강리의 터주신앙 : 정월 열나흗날 지낸다. 장광에 떡시루, 밥, 미역국, 무수나물을 놓고 지낸다. 다른 과일들도 놓으면 좋다. 바닥에 짚을 깔고 그 위에 올려놓는다. 이유는 알 수 없다. 시어머니(80대, 인터뷰 가능)가 하는 것을 보았다. 절을 하고 소지를 올린다. 비손은 하지않았다. 마짐시루라고 한다. 장광에서 위하고 나면 그 시루를 방으로 들고와 방 윗목에 잠깐 놔두었다가 식구들이 나눠 먹는다. 방에 놓는 것은 성주이다. 예전에는 꽃봉오리 모양으로 모셔두었는데 그 안에는 쌀을 조금 넣어둔다. 지금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집을 새로 지을 때쯤 해서 없어졌다. (청남면 동강리, 한호분)
- 화성면 구재리의 조왕, 토주신앙 : 부엌(조왕), 장광(토주)신에

게 정월과 10월 가을 곡식이 나면 제를 지냈는데 요새는 절에 가는 것으로 대신한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가을에 떡을 해서 부엌, 장광, 방에 놓고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화성면 구재리 3반, 김이순)

- 화성면 산동마을의 조왕, 터주, 성주신앙 : 산동마을에서는 정월 15일 안으로 하거나 10월 상달에 햇곡식이 나면 가신을 위한다. 떡을 해서 점쟁이를 데려다 굿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떡을 해놓고 성의껏 빈다. 제물을 조왕(부엌)에 놨다가 터주(장광)로 갔다가, 성주(방)로 옮기면서 빈다. 50년 전까지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하는 집이 없다.

성주로 꽃 종이를 오려 붙여 놓는 집도 있고, 신체가 없는 집도 있었다. 성주는 집에서 가장 높은 신격이다. (화성면 산동 3반, 최희선, 김순)

7) 안택고사

- 안택고사는 하는 집도 있고 하지 않는 집이 있는데, 보통 고사를 지낸다. (운곡면 안심리 김재복)
- 정월 내 좋은날을 택일해서 안택고사를 지냈는데 앞마당에서 터왕(터주)께 제를 지내는 집도 있었다(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 풍장 치면서 동네어른들이 많이 쳤는데 젊은이들이 깨알친다고 하여 못치게 한 이후에 있는 집은 쌀 몇 말 정도 내놓고 대게 촛불 켜놓고 사발에다가 놓고 시루도 해서 놓고 시루 안에다 사발에 쌀을 소복히 놓고 한다(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 정월 14일날 장광, 성주 등에 떡을 해서 놓았다. 장은 정월이나

2월에 좋은 날을 잡아서 담갔다(운곡면 모곡리 김경혜, 최병희).

8) 보름고사

- 떡을 많이 해서 이웃집에게도 나눠주며 집 생일에도 고사를 지낸다. 보통 정월 14일에 한다.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 장광부엌에 잡귀물러가라고 풍물을 쳤다. 술도 내놓고 염불, 고사지낸다고 하지, 쌀도 한말정도 해서 놓고 보름쯤에 돌아다녔다. 풍물치는 사람들이 돌고 구경꾼들이 따라 다닌다. (운곡면 신대리, 양진석)
- 성주님께 떡 받치는 것인데 14일날에 한다. 떡은 시루떡과 찰떡을 한다. (화성면 합천리 이한숙)
- 정월에 믿는 사람은 하는데 쌀을 모아 지내는데 생기복덕을 봐서 날을 잡는다.

  일생생기, 이중천리, 삼화정책, 사중요원, 오삼사회, 육중복덕, 칠화절명, 팔중기호,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로 그날 복덕이냐 생기냐를 따져서 잡는다. 손가락 마디 하나가 2시간으로 잡는다. 화해절명 닫는 날은 시집,장가 안간다. 있는 집들은 계속 놓는데 없는 집들은 해가 바뀌면 떡을 해서 먹는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설날에 초닷세날이나 엿세날이나 날 받아서 시루만해다가 약주 놓고 북어놓고 사과, 밤 한접시 놓는다. 떡은 성주께 놓고 공부하는데 놓고 학생 있으면 책상위에도 놓는다. 손을 빌지는 않고 마음으로 여러 사람 잘되게 해달라고 빈다. (화성면 합천리, 이한숙)

- 정월 14일날 밤 4~5시쯤에 동제를 지내는데, 시루 하나와 돼지 머리, 포, 과일, 막걸리를 놓고 축문 읽으면서 제사를 지낸다. 축문 읽는 사람은 매해 바뀌는데,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한글로 옆에 토를 달아두고 그걸로 읽는다. 제상은 마을 입구에 그냥 차려놓는데, 편편한 돌을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지낸다. 제관은 축관과 잔 올리는 사람으로 두 사람을 뽑는데, 제관은 근신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부부 잠자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예전엔 다같이 온천에 가서 깨끗이 씻었는데, 지금은 목욕을 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제관은 마을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기가 깨졌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 제사비용은 동네 재산으로 충당하는데, 모자라는 경우에는 성의껏 성금을 하기도 한다. 제사가 끝난 뒤에는 마을 사람들끼리 풍장을 치면서 동네를 도는데, 집집마다 지신밟기를 했다. 예전에는 사람이 많아서 신나게 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얼마 없어서 오래 하지 않는다. 지신밟기 할 때에는 쌀이나 돈으로 성의껏 정성을 표했다. 한국전쟁 이후에 10여년 정도 제사를 하지 않다가 사람들이 나가서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생겨서 다시 지내게 되었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보름 전후로 해서 점쟁이가 봐서 어른신이나 애들신이 동티가 났을 때는 고사를 지냈는데, 이때는 부엌, 장광, 안방, 마당에서 내보내는 순으로 이루어졌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정월 대보름날 각 가정마다 편안하게 해다라는 의미에서 좋은 날을 택하여 고사를 지낸다. 제물로는 흰무리만을 쪄서 장광에 놓고 소원을 빌려 절을 한다. (≪청양군지≫, 1995)

9) 정월의 점

(1) 날씨점

- 보름에 날이 좋아야 달이 화창하게 밝아야 한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정초에 날씨가 좋아야 그해 날씨가 좋다고 했다.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 초하룻날(매달)에 비가 오면 그달 장마진다.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2) 달점

- 달 주변에 띠가 있는데 그 띠를 보고 날씨점을 쳤다.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 안개 끼고 특별히 달같은 망월이 있는데 그것보고 어디는 풍년들고 어디가 가뭄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달이 두껍게 들면 좋은 것이다.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3) 농사점

- 정월보름날에 까치가 울면 흉년이 들고 까그뭬(까마귀)가 울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또한 까그뭬가 울면 그해 늙은이들이 많이 죽는다고 한다.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 용(龍)으로 농사점을 치는데 큰 용의 개수가 많으면 풍년들고 적으면 흉년든다. 용이 많으면 싸우느라고 비가 적고 용이 적으면 혼자다니니깐 비가 많다고 한다.

  이 용은 달력에 나와있는데 정초부터 용날을 센다. 정초부터 둘째 날에 나오면 둘이고 셋째 날에 나오면 셋이다. (운곡면 안심리 윤광희, 이계준, 양진석)

• 정초의 점치기로는 정월 초이렛날 해 뜨는 위치를 보고 그 해 남자가 많이 상하느냐. 여자가 많이 상하느냐를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초여드렛날 날씨가 좋지 않으면 곡식이 잘 여물지 않는다고 한다. 정월 초이렛날은 사람날이고, 초여드렛날은 곡식의 날이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 정초의 첫 번째 12지일 중에서 인날은 날씨가 맑고 칼칼하면 사람에게 좋다고 한다. 말날은 집집마다 장을 담근다. 돼지날은 집집마다 토주에 제를 지낸다. (≪청양군지≫, 1995)

(4) 콩점

• 정월14일에 강낭콩을 까서 콩을 12개를 넣어서 실에 감아서 물에 담궈놓는다. 이튿날 아침에 까보면 콩이 더 불은 달은 비가 많이 온다고 한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정월 14일 밤에 쑥대에 콩을 열 두개 넣어서 물 담은 통에 넣어두고 그 이튿날(정월 보름날 아침) 꺼내서 많이 불은 콩의 달에 물이 많다고 한다. 정월 보름날 키에다 밥, 나물, 목화씨 등을 넣어놓고 소가 먼저 먹는 게 그 해 풍년이 든다고 한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달붙이는 대보름 전날 저녁에 콩 12개에 12달의 표시를 하여 수수깡 속에 넣고 묶어서 우물속에 집어 넣어 콩알이 붙는가 안 붙는가에 따라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풍속이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5) 좀생이점

• 14일에 달보다 먼저가면 흉년이 든다고 하고 달보다 늦게 가면

풍년이 든다고 했다.

달을 밥광우리(그릇)으로 생각하여 애들이 먼저가면 배가 고프니깐 흉년이 든다고 한 것이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6) 실점

- 실을 꼬아서 가족수대로 놓는다. 접시에 기름을 담그고 실을 담궈서 불을 붙이는데 그중 불이 잘 안 타는 사람의 것은 운이 좋지 않다고 한다.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7) 떡점

- 제주도에서는 상원날 마을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 떡을 하는데, 그 떡의 됨됨이를 보아 신수를 점치는 방법이 있다. 한마을의 여러 사람들이 각각 쌀을 가지고 오면 모두 합하여 가루를 만다. 제각기 자기 몫을 얻어 떡가루 밑에 가지의 성명을 적은 종이를 깔고 한 시루에 찐다. 전체가 잘 되는 수도 있으나 누구의 몫은 잘 안 익고 누구의 몫은 잘 익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자기의 떡이 설면 불길하고 잘 익으면 길하다는 것이다.

  떡이 설어서 불길한 사람을 떡을 먹지 않고 삼거리나 오거리 복판에다 버린다. 그러면 액운을 면할 수가 있다고 한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10) 토정비결

- 동네마다 봐주는 사람이 있어 많이 봤다. 월별로 나오는데 평소에는 기억을 못하다가 그 달에 가면 좋지 않으면 정초에 본 토정비결에 나온 것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다(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 토정비결은 글 배운 사람이 무료로 봐주었다고 한다. 정월에 점

쟁이한테 솔나무 잎을 뽑아서 가져가서 점을 본다. (남양면 구룡리 김동수)

- 토정비결볼 때는 돈을 내지 않고 보는 사람이 있어서 보았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토정비결은 많이 배운 사람이 책을 보고 봐주었다. 정초에 지신밟기를 했는데, 집안의 부엌, 장광 등 구석구석을 돌며 지신을 밟는다.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 일년의 달력을 봐서 용날이 3번 정도 나오면 날씨가 좋고, 그 이상이 나오면 홍수가 난다고 한다. 지금의 청양농고 근처에서 정월 보름날 밤에 장승제가 있었는데, 6.25전쯤(50~60년 전쯤)에 없어졌다고 한다. 음식으로는 쌀떡과 청수를 놓고, 풍장을 치며 했다. 제관은 꼬마 애들이 있는 집에서는 하지 않고 한사람 정해서 했다. 정월 보름날이면 종지하나에다 실 여러 가닥을 (가족수대로) 해서 타는걸 보고 그 한해 운수를 점쳤다. 끊기지 않고 잘 타면 좋은 것이고, 중간에 뚝뚝 끊기거나 불이 꺼지면 좋지 않은 것으로 봤다. (남양면 구룡리 김동수)
- 정초에 토정비결을 보았다. 처음 듣는 동물소리로 점을 쳤다. 까치가 울면 그 해 운수가 좋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11) 제웅

- 짚으로 사람을 만들어 보렸다. 배에는 좀 볼록하게 하게 돈 1원 정도를 넣어 4거리에 버리거나 태우기도 하였다. 이 인형은 가져가지 않고 가져가면 재수없다고 하였다. 허수아비와 비슷하

다.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 "거리제"라고 하며 안에 동전을 넣는다. 운수가 나쁘면 쪽다리 놓는 것과 같이 한다. 짚으로 조그만하게 섬을 만들어 안에 돌을 넣어서 냇물에 놓기도 하고 짚으로 사람을 만들어 세워놓기도 한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것이다. 남에 좋은 일을 한다는 뜻으로 섬을 만들고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악귀는 허수아비가 잡고 운수나쁜 사람은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쟁이(섬)를 만들어 돌을 넣어서 다리 건너다니게 한다. 지금도 하는 곳이 더러 있다. 정월달에 냇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쪽다리를 만들어 놓는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액막이로 정월 14일날 짚으로 인형을 만들어서 삼거리에 내다 버렸다고 한다. 따로 부르는 말은 없고, 제보자가 직접 하지는 않고 듣기만 했다고 한다(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제웅은 짚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든 것이다. 제웅은 직성(直星)이 든 사람의 나쁜 운수를 대속시키기 위한 주술심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데, 직성이란 액년이 든 것을 말한다. 이 직성은 남자 11세, 여자10세를 시작으로 9년만에 한번씩 돌아온다고 한다. 즉, 직성이 든 사람은 액운이 있어 만사가 신통치 않고 벼잉 들거나 큰 화를 입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제웅이었던 것이다.(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12) 액막이

- 정월14일에 밥을 해서 뱃섬이라고 김 위에서 밥을 싸서 매깽이

라고 묻힌 실하고 감아서 열섬, 스무섬, 서른섬을 해놨따는 거야. 상 그렇게 해서 널어놓고... 산꼭데기에 놓는다. 바가지에 넣었다. 각자 밥을 먹고서 나중에 먹는다.

장가 시번(3번)든 사람, 처출. 제출, 삼출든 사람은 보리를 몰래 훔쳐다가 떡어다 섞어서 먹었다. 또는 이 사람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어느 집의 먹는 잎새귀를 안보게 뜯어와서 먹기도 한다. 그리고 식구 숟가락으로 쌀을 나이대로 세어서 국화떡을 해먹었다. 이는 안 좋은 해, 제 운이 나쁜 달에 만들어 먹는다.

그해 시절이 불란하다고 병해가 많다고 해서 액이 들어오지 말라고 특별히 떡을 해먹는다. 식구들의 숟가락을 가지고 쌀을 퍼서 그 쌀로 떡을 해먹는다. 이 떡은 마당에다가 우해 놓고 장광에는 갖다놓지는 않는다. 이 떡은 액이 든다는 소리들은 지사흘 안에 떡을 해 놓는다.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 괴질이 돌면 동네에서 액막이를 하는데, 짚으로 사람이나 말을 만들어서 그것을 말에다 태워서 고사를 지내고 불태웠다. 이 액막이는 택일을 정월에 하는데, 보름 안에 하는 경우도 있고 날짜를 봐서 좋은 날로 했다. 또, 그 해 운이 좋지 않거나 환자는 짚으로 사람모양의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환자 옷을 입히고 네거리에 버린다. 바가지에 칼을 꽂아 놓고 네 방향으로 된장국을 뿌렸다. 제보자는 직접 하지는 않고 듣기만 했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2월의 세시풍속

1) 콩 볶아 먹기

- 2월 초하룻날에 볶고 논으로 갈려면 '해물볶고' 밭으로 갈려면 '지신볶아'라고 말한다. 지신은 밭메는 풀이고 해물을 버러지(벌레)이다. 콩을 볶으면서 '금자볶자', '해산볶자'라고 말한다(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 2월 초하루에 콩을 볶아 먹는다. 마을 어른들이 봄에 기후가 좋고 그날 바람이 불면 풍새가 좋다가 해서 콩을 볶아먹으면 불 때면 콩이 잘 볶아지면 벼가 잘 넘는다고 생각했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 2월 초하루은 콩 볶는 날이며 콩을 볶으면서 쥐 볶는다, 쥐 볶는다 하고 볶았는데 쥐가 덜 들어오라는 것이다. (대치면 산정리 김계순, 화성면 합천리 이한숙,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 콩 볶아 먹는 것은 바람 불지 말라는 뜻이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2월 초하루날 콩을 볶아 먹는 날이었다. (운곡면 모곡리 김경혜, 최병희, 윤주완)
- 초하룻날 곡식을 쥐가 먹지 말라고 콩을 볶아 먹었다. 해방 전

까지 했다고 한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2월 초하루 아침에는 일꾼들이 일년 중 마지막으로 쉬는 날이라고 해서 콩을 볶는다. 콩을 볶을 때는 소금을 약간 뿌린다. 또한 이때 "쥐부리 볶는다. 쥐부리 볶는다"라고 하며 볶는다. 이는 잡초(피)를 없애고 곡식 알맹이만 남으라는 뜻이라 한다. 그리고 콩을 볶아 뿌리거나 밭의 네 귀퉁이에 묻는다. 이는 잡귀잡신을 쫓고 콩넝쿨이 지거나 두더지가 발을 망가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행한다고 한다. (≪청양군지≫, 1995)
- 각 가정에서는 2월 1일에 콩을 볶는다. 솥에 불을 지피고 콩을 넣은 후 주걱으로 타지 않게 젓는다. 볶은 통은 식구들이 나누어 먹고 아이들은 좋아라고 주머니에 가득 넣고 다니며 먹는다. 콩을 볶을 때에 주걱으로 저으며 새알볶아라, 쥐알볶아라, 콩 볶아라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새와 쥐가 없어져서 곡식을 축내지 않는다고 한다. 2월 1일에 콩을 볶는 것으로 가을 수확을 미리 예상하기도 하는데, 그 방법은 콩과 약간의 보리를 섞어 한되를 솥에 볶는다. 다 볶은 다음 담아 보아 한 되가 더 되면 풍년이 들어 추수가 많으며, 한 되가 못되면 흉년이 든다고 전한다.

  또 이날 콩을 볶아 먹으면 집안에 노래기가 없어지고 청결해서 좋다고 한다. 제주도와 호남지방에서는 산에 가서 칡을 캐어 먹으면 약이 된다고 해서 칡뿌리를 캐어 먹는 풍속도 있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2) 경칩일

- 천(天) 세력에 정해져 있는 경칩무렵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초

목의 싹이 돋아나며, 동면하던 짐승들도 땅속에서 나온다. 이날 농촌에서는 논이나 물이 고인 곳을 찾아가서 개구리알을 건져다 먹는다. 개구리알은 몸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경칩일에 흙일을 하면 탈이 없다고 해서 벽을 바르거나 담을 쌓기도 한다. 일설에는 경칩일에 벽을 바르면 빈대가 없어진다고 해서 일부러 흙벽을 바른다고 한다. 빈대가 심한 집에서는 물에 재를 타서 그릇에 담아 네 귀퉁이에 노아 두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빈대가 없어진다고 한다.

경칩일에 보리싹의 성장을 보아 일년의 풍흉을 점치며 단풍나무를 베어, 나무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 위병이나 성병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3) 개구리알 먹기

- 아픈데가 덜 아프라고 경칩날 개구리알을 먹었다. (남양면 구룡리, 김동수)
- 도룡용알은 독기가 있어서 먹지 않고 개구리알을 먹으면 기력이 향상된다고 한다. 경첩이라고 빨간 개구리알만 먹는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경칩 때 개구리알을 먹는데, "경칩 먹는다"고 했다. 고단백으로, 소화가 잘되고 남자나 여자의 아래가 습이 많은 사람에게 좋다고 한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경칩 때 약이 된다고 어른들만 개구리 알을 먹었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경칩 때는 위장에 좋다고 해서 개구리 알을 먹었다. 어른들만

먹었다.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 경칩에는 개구리 알을 먹는다. 이것은 남성들이 먹는데 정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하는 것이다. (≪청양군지≫, 1995)

4) 노래기

- 노래기는 우렁 잡아서 혀바닥 쭉 배놓고 나오는데 그거 잡아서 놓으면 노래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노래기는 짚 썩은 곳에서 나온다. 노래기는 솔잎에 물을 뿌려셔 "노랑각시잡자, 노랑각시잡자"라고 말했다(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5) 머슴날

- 머슴날은 농가에서 머슴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며 즐기도록 하는 날로, 노비일 또는 일꾼날이라고도 한다. 가을 추수가 끝난 다음, 머슴들은 겨울 동안 크게 힘든 일 없이 평안하게 지냈으나 2월에 들어서면 서서히 농사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고된일이 시작되기에 앞서 일꾼들을 하루 쉬게하여 즐겁게 놀도록 하는 것이다. 머슴들은 농악을 울리며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즐기는데, 주인들은 머슴들에게 돈을 주어 쓰도록 한다. 많은 노비를 거느린 대가에서는 떡도 하고 많은 음식을 준비한다.

  소년들은 신체가 건강해도 어른들과 노동력을 맞교환하는 품앗이를 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그 해에 20세가 된 젊은이는 이날 동네 어른들과 성인 머슴들에게 술과 음식을 한턱 낸다. 그러면 그 해부터는 어른으로 취급받아 성인과 품앗이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방에 따라서는 20세가 되어도 머슴날 성인들에게 한턱 내지 않으면 성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머슴날에 이렇게 성인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두레가 났을 때 하는 수도 있다. 이처럼 머슴날은 평소에 대접받지 못했던 머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어, 그 해의 농사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여는 농경의례의 하나인 것이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6) 대청소

- 2월 1일 농가에서는 대청소를 한다. 집 안팎을 깨끗이 쓸고 닦으며, 거미줄을 털고 외양간도 거름을 치워 둔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7) 청명일

- 청명일은 한식 하루 전날이거나 때로는 한식과 같은 날이 된다.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청명일을 위해 봄일을 시작하므로 이날에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대궐에서는 버드나무와 느릅나무에 불을 붙여 각 사(司)에 나눠주었는데 불을 소중히 여기는데서 유래했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8) 한식(寒食, 淸明節)

- 한식 때 맑은 술을 가지고 성묘하러 갔다. 과일로는 대추, 밤, 감, 배를 가지고 갔는데, 대추는 헛것이 없다해서 자손 번성의

의미를 가졌고, 밤은 잡것이 없다고 한다. 감은 교육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이 올라가고 '치'자 들어가는 생선은 놓지 않는다. 제사음식은 양념을 쓰지 않고 간장으로만 간을 하고 고추나 설탕, 마늘은 들어가지 않는다.

한식날에 한식차례를 지냈다. 5대 위로는 시제를 지냈다. 청명·한식 때를 다른 때보다 날씨가 좋고 흙을 다룰 때도 좋다고 해서 이장을 하거나 무덤을 고치거나 했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포, 삼색과일만 가지고 산소에 가는데 남자들만 갔다온다. 이날은 곡식을 심지 않는데 이유로는 이날에 곡식을 심으로 한심하게 난다고 하기 때문이다. (화성면 합천리, 이한숙,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 한식 때는 한식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간다. 이장을 청명, 한식 때도 많이 한다.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 한식차례는 쑥송편을 해서 놓는다.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 한식 때에 지내는 차례로 한식차례가 있었다. (남양면 매곡리 1구, 최창호)
- 한식날에 떡을 해 먹는 집도 있다(비봉면 신월리 1구, 조성매 외).
- 한식날은 조상님 산소를 찾아가 떼를 입히거나 한식 차례를 지낸다. 이것은 각 집안의 경제 사정에 따라 행하는데 대부분 기제사 지내는 식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산소에 가서 지낸다. 또한 이날은 '손없는 날'이라 하여 묘자리를 옮기거나 이장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찬밥 먹는 날이라고도 한다. (≪청양군지≫, 1995)
- 목면 대평 2리에서는 한식날이나 9월 9일에 마을 사람들이 자

손 없이 죽은 이들을 위한 제사를 마련해 준다. (목면 대평2리, 우홍명)

- 남양면 신왕리에서는 혼자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언을 받들어, 한식날 할머니의 밭에서 나는 비용으로 제사를 지내 준다. (남양면 신왕리, 전동수)
- 한식을 청명절이라 하고 동지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다. 성묘는 일 년에 네 번으로 정초, 한식, 단오, 중추에 한다. 제물은 술, 과일, 포, 식혜, 떡, 국수, 탕, 적 등이다. 중국에서는 한식을 냉절이라 하는데 그 유래로 인하여 우리도 이 날은 미리 장만해 놓은 찬 음식을 먹고 닭싸움, 그네 등의 유희를 즐기며 불을 쓰지 않는다. 중국의 춘추시대 때 개자추라는 진나라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문공을 모시고 있었다. 그러나 충성을 다하여 망명 19년까지도 모셨지만 그에게 오해를 받아 산속에 숨어 살았는데, 나중에 문공이 잘못을 뉘우치고 산에서 나오기를 권했지만 나오지 않아 불을 질렀는데 늙은 홀어머니와 함께 버드나무 아래서 타 죽었다. 그래서 이 날은 버드나무를 대문에 꽂기도 하고, 개자추의 죽음을 아파하여 불을 쓰지 않고 찬밥을 먹으니 냉절이라고 한 것이다. 대개 양력 4월 5~6일경이다. 이 날은 조상의 무덤에 떼를 다시 입히고 민간에서는 이 날을 전후하여 쑥탕, 쑥떡을 해먹었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9) 꽃샘

- 2월 중에는 바람이 많이 분다. 김칫독이 깨진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찬바람이 분다. 그러나 2월 바람은 동짓달 바람처럼 매

섭고 차지는 않다. 새움이 트고 싹이 나며 꽃봉오리가 지므로 풍신이 샘이 나서 꽃을 피우지 못하게 바람을 불게 한다고 한다. 그래서 꽃샘이라고 부르며, 이때에는 고기잡이를 나가지 않고, 먼 길의 배도 타지 않는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10) 2월의 점

(1) 좀생이점(2월 초)

- 2월 초에(날짜는 자세히 모르심) 좀생이별을 보고 점을 쳤는데, 별과 달 사이가 가까우면 병이 잘 난다고 하고, 멀어도 좋지 않다고 했다. (남양면 구룡리, 김동수)
- 2월 초하루 날부터 사흘째 되는 날까지 "비달(좀생이별)본다"고해서 별이 달의 왼편에 있는지 오른편에 있는지로 풍·흉을 점쳤다. 제보자는 자세한 것은 모른다고 했다.

  초하루날 콩을 볶는데, "근잠 볶자, 새삼 볶자"라고 하면서 콩을 볶는다. 근잠은 모를 파먹는 벌레고 새삼은 넝쿨같은 잡초의 이름이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2월 초엿세 날에 농사점을 친다. 좀생이라는 것이 밥고리(그릇)이다. 그것을 비달이라고 하는데 달이 요기만치 따라가면 풍년들고 요기만치 들면 흉년이다. 불이나게 쫓아가도 밥이 없어서 못먹고 찬찬히 가도 밥이 있으니깐 풍년이다(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 음력으로 2월 초나흗날부터 초이렛날까지 좀생이날이라 하여 좀생이를 보는 풍습이 있다. 좀생이라는 별의 위치와 달과의 거

리에 따라서 한 해의 점을 친다. 좀생이별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음력 2월 초순이 되면 달과 가까이 있다.

좀생이가 남쪽으로 가면 가물고, 북쪽으로 가면 물이 흔해서 좋다고 한다. 한편 달보다 앞서면 부지런히 서둘러서 농사를 지어야하고, 조금 뒤떨어져 가면 되는 데로 농사를 지으면 된다.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면 그 해 홍수가 진다. 이것을 '좀생이 본다'고 한다.

지금은 수리 시설이 좋아서 볼 필요가 없지만, 옛날에는 이 동네에서도 이 별을 보고 점을 쳤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 2월 6일 저녁에 좀생이별을 보고 1년 일을 점친다. 좀생이별은 묘성(昴星)으로서 여러개의 작은 별이 모여서 성군(星群)을 이루고 있으며 좀생이로 점을 치는 것을 좀생이 본다고 한다. 달과 좀생이가 나란히 가거나 또는 조금 앞서 있으면 길조이고, 그와 반대로 뒤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흉년이 들 징조라고 한다. 종샘이 보는 것은 농점의 일종이다(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2) 날씨점

- 2월 초하룻날 장닭꼬리가 흔들려도 태풍이 온다고 했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2월 초하룻날에 바람이 불면 봄바람이 많이 분다고 한다. 2, 3, 4월까지 바람이 세다고 한다. 비가 오면 외걸이 풍년든다고 한다. 비가 3번 오면 모든 것이 다 풍년이 든다고 한다(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3) 삼점

- 2월 초하룻날에 키가 작은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면 그 해의 삼이 자라지 않아 농사를 망친다고 한다. 그래서 키 작은 사람은 남의 집 방문을 삼가야 하며, 설혹 방문을 한다 해도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는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11) 2월의 생업세시

- 2월이 되면 농가에서는 농경 준비에 바쁘다. 농민은 농사가 잘 되어야 한 해를 근심걱정 없이 풍족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농사의 시작인 초경을 엄숙하게 행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초경 때에 소를 동쪽으로 세워 놓고 멍에를 씌운다. 밭이 남북으로 길게 있으면 쟁기질도 모통 남북으로 하지만 이때는 먼저 동서로 몇 골 간 다음 남북으로 간다.

  초경을 이렇게 하는 것은 풍작을 비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풍속이다. 그래야만 밭곡식이 잘 자라서 풍년이 든다고 믿기 때문이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 음력 2월 초에 구기자를 파종한다. 이 때에 밭을 갈고, 두둑을 손질하며, 새순을 심는다. 따라서 다른 농사보다 일찍 시작한다.

3월의 세시풍속

1) 삼짇날

- 윗대 제사를 한다. 제비가 온다고 하여 더운 바람이 부는 날이라 제사도 지낸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삼짇날에는 삼짇차례라 해서 차례를 지냈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3월 3일은 설날(1월1일), 단오(5월5일), 칠석(7월7일), 중구(9월9일)와 더불어 중절의 하나이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 오는 날이다.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삼월에 모든 이가 조를 짜서 산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 즐기는 것을 화전 놀이 또는 꽃달임이라 하고, 부녀자들이 머리를 감으면 머리결이 윤기가 나고 소담해진다고 하였다. 삼짇날 먼저 보는 나비의 빛깔로 나비점을 치는데 호랑나비나 노랑나비를 보면 길조라 하고 흰나비를 먼저 보면 양친 상을 당한다 하였다. 삼짇날의 절식은 두견화주, 두견화전, 꽃국서, 수면 등이 있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 삼짇날은 제비가 오는 날이라 해서 매우 좋은 날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날은 갓 태어난 아기의 첫머리('배안에머리')를 깎아

준다. 이렇게 하면 아기의 머리피부병이 없어진다고 하여 첫머리를 깎는 날로 정한다. (≪청양군지≫, 1995)

2) 화류놀이(꽃놀이)

- 옛날에는 했는데 남자들도 화류놀이를 했다. 여자들은 산에 올라가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장구치고 노래부르고 놀았다. 뒷동산으로 많이 갔으나 지금은 관광을 간다. 화류놀이를 할때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놀았고 남자도 솥걸어서 밥해먹었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3월을 맞아 일기가 청명한 날을 택해서 유행과 농부와 부녀자들은 각각 모여, 들과 산으로 경치가 좋은 곳을 찾아 놀이를 갔는데 이를 화류놀이라고 한다. 초목은 새싹이 돋아나고, 일기는 온화하며, 화조도 기뻐서 날아다니는 봄을 즐기기 위하여 떼를 지어 교외로 나가는 것이다. 화류놀이를 갈 때는 미리 통문을 돌려 장소와 날짜를 정하고, 각자의 기호에 따라 음식을 장만하여 하루를 즐긴다. 문장에 능통한 사람들은 즉흥시나 시조를 지어 읊고. 부녀자들은 안방가사를 읊으며, 농부와 아이들은 민요를 불러 흥을 낸다. 이때에 진달래꽃이 한창이므로 이것을 많이 꺾어 머리에 꽂아 멋을 부리기도 하고, 꽃 방망이를 만들기도 한다. 산에서 돌아오는 나무꾼의 지게 위나 소 바리 위에 진달래꽃이 꽂혀 있는 것도 이 무렵이다. 화류놀이 때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른다.

제화제화 제화하/얼씨고 절씨고 좋을시고/춘삼월 화전놀이를 간다/

춘향의 방문 앞/ 이도령 걸음으로/아그작 아그작 걸어서/
거들거리고 나간다

세모시 마당앞에 /금자라걸음으로/아그작 아그작 걸어서/
거들거리고 나간다/둥그다당실 동그다당실

에라 두덩실/연자버리고/마-거리고/거들거리고 나간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 봄철에 여자들이 산으로 가서 장구치고 놀기도 했다. 이 동네에서는 주로 뒷동산에 가서 놀았다. 풍장은 큰 일이 있을 때에 친다. 이번 봄에도 여자들이 산에 가서 놀았다. (비봉면 신월리 1구, 조성매 외)

3) 풀쌈놀이

- 풀쌈놀이는 풀이 돋아나는 계절이면 겨울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놀이다. 옛 문헌에 초전(草戰), 초희(草戲), 투초(鬪草), 교전희(交戰戲) 등으로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나라 어디서나 해오던 놀이로 짐작된다. 단 둘이서 놀이도 하고 여럿이 편을 갈라 놀기도 하는데, 풀줄기를 서로 엇걸어 당겨 누구의 것이 더 질긴가를 겨루는 풀싸움과 풀잎 대기가 있다. 친구들과 길을 가며 아카시아 한잎 한잎을 가위, 바위, 보로 따내어 가는 것도 풀쌈놀이의 일종이다. 논밭두렁에 많이 나는 토끼풀(다른 풀로 해도 된다)을 뜯어다가 그 줄기를 서로 엇걸고 잡아 당겨서 끊어지는 쪽이 지게 되는 놀

이다. 진달래꽃으로 할 경우 꽃술을 뽑아서 이것을 서로 잡아 당기면 된다. 이때 진달래의 술을 수꽃 술보다 암꽃 술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암꽃 술이 더 굵고 든든하며 걸어서 싸움하기에 유리하다. 꽃으로 싸움을 하는 것을 꽃싸움이라고도 한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4) 풀각시놀이

- 풀각시놀이는 어린 아이들의 인형놀이다. 옛 문헌에서는 이를 각시놀음이라고 전한다. 요즘엔 인형이 제품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따로이 만드는 일은 별로 없지만 옛날엔 손수 인형을 만들어야 한다. 풀각시 놀이라는 이름은 각시(인형)를 만드는 주된 재료가 풀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가. 19세기 초에 각시(인형)을 만드는 모습을 떠올려 보자. 각시놀음을 최초로 기록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와 〈오주연문장전산고(五州衍文長箋散稿)〉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처녀들이 풀을 줌에 찰 만큼 뜯어 쪽진 머리를 만들어서 깎아논 나무에 씌우고 붉은 치마를 입힌 것을 각시라하여 이부자리에, 베개, 병풍들을 차려 놓고 장난을 한다.'

인형놀이는 누가 배워주거나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에 따른 자연스런 놀이다. 아이들은 서너 살만 돼도 베개나 인형을 가지고 놀이를 한다. 인형을 친구 삼기도 하고, 부모들을 흉내내기도 한다. 그러면서 관찰력과 감정을 기르는 것이다. 아이들을 위한 인형이 셀 수 없이 많아진 요즘 풀각시 놀이가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인형에 비하면 옛 풀각시는

초라하기 그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놀잇감의 화려함이 아니다. 풍성한 놀잇감을 가지고 있는 요즘 아이들이 옛 풀각시놀음에서 얻었던 교육효과 보다 더 큰 것을 얻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일이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5) 공치기놀이

- 정산면 남천리의 공치기 주로 음력 3~4월의 늦은 봄철에 공을 많이 치며, 대략 15~20명이 편을 나누어 시합을 한다.

이곳에서 공치기는 나무를 하러 가는 젊은들이 주로 황덕굴에서 실시했다. 공을 치는 작대기는 지게 작대기 중에서 구부정한 것을 사용하며, 칠 때에는 작대기를 높힌다. 공은 소나무를 깎아서 사용하는데, 예부터 소나무는 '부엉이가 방구낀 나무'라고 알려져 있다. 경우에 따라 짚으로 만든 짚공을 만들어 치는 경우도 있다.

시합 방법은 중앙선에 공을 놓고 양쪽 선을 넘어가는 편이 점수를 얻는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 '따굴'이라 하여 중앙선에서 양편 대표 선수가 등을 대고 서로 서서 작대기로 서로 3번을 친 다음에 돌아서서 공을 친다. 이때 동작이 빠른 사람이 먼저 공을 치게 된다. 승패는 몇 골을 넣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1골씩 넣으면서 점수가 쌓이고 일정한 시간에 많이 넣는 편이 이긴다. 골을 넣는 시간은 금방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10~20분이 되어도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편 시합 중에는 작대기로 상대의 몸을 가격할 수 없다. 이 공치기는 제보자가 20세까지 놀았던 기억이 있다. 대략 49년

전까지 놀았으며, 환산하면 6. 25 정전 이전까지 놀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지게 위에 올라가 지게걸음을 하면서 놀았던 기억도 있다.(공주시 우성면 보연리, 김원중)

- 장평면 낙지리의 공치기는 나무를 한 짐씩 해 놓고 두 팀으로 나누어, 지게 작대기로 나무공을 치면서 노는 놀이이다. 공은 소나무를 잘라서 주먹만한 크기로 만든다. 한 패는 내려치고, 한쪽 편은 올려치면서 노는데, 범위가 너무 넓어서 쉽게 끝나지 않아, 밤늦게까지 놀게 된다.

주로 안장고개 근처에, 도랑이 있고 고개가 있는 곳에서 많이 놀았다. 놀이는 가운데에 공을 놓고 반대편을 향해서 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상대방의 공대에 공을 넣는 편이 이기게 된다. 사람의 수를 봐서 편을 나누고 구멍을 파서 놀이를 한다. 양쪽 끝의 가운데에 금을 그려서 공이 여기를 넘어가면 이기는 놀이이다. 15~17살까지 논 기억이 있다(장평면 낙지리 윤갑중, 심윤섭).

- 장평면 분향1리에서는 공치기를 한다. 두 편으로 갈라서, 둥근 나무공을 생나무로 쳐서 날리며 노는 놀이이다. 상대 골대에 쳐서 상대편이 받으면 죽고, 받지 못하면 한 점씩 먹게 된다. 상대 골대는 중앙에서 약 10미터 정도 거리에 위치한다. 공을 치는 생나무의 길이는 약 1미터 정도였다. 공에 맞아서 눈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놀이이다. 이 놀이는 골프 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한다.

주로 근처 망월산의 평평한 곳에 가서 놀았다. 이기고 지는

것은 어느 편이 공을 더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이 놀이는 먹고살기 힘든 일제 시대에 놀았기 때문에 내기 같은 것은 없었다. 놀다가 나무를 해 가지고 내려오기도 한다.(장평면 분향1리 조민행)

6) 화주 담기

- 진달래로 술을 담가 먹곤 했다. (남양면 구룡리, 김동수)
- 3월에는 진달래로 꽃전을 해먹었다.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씻나락(논에 벼 뿌리는 거)을 한줌 남겨서 찌어서 찔레꽃을 넣어 쪄서 먹었다.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7) 논점

- 정자나무의 잎이 피는 것을 보고 농사짓는 순서를 본다. 이 나무의 잎은 어떤 해는 꼬쟁이(아래)에서부터 잎이 피고 어떤 해는 밑에서부터 잎이 피는데 이걸 마른가리(마른 논, 높은 곳에 있는 논)가 있고 젖은 가리(물이 있는 논, 낮은 곳에 있는 논)가 있는데 나무의 잎이 높은 데가 봉을봉을 피고 낮은데(종다리)는 활딱 피면 물가리(물이 있는 논)부터 모를 심고 높은 데가 활딱 피고 낮은 데는 봉을봉을 피면 높은 논부터 모를 심는다. 이것은 특별히 절기 때에 보는 것은 아니다(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8) 3월의 생업세시

- 올벼인 경우에는 음력 3월에 못자리를 마련한다. 못자리는 바람이 잘 안 불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선택하여 바람이 없는 아침에 작업을 한다.
- 음력 3월에 비닐 하우스의 고추 모를 밭으로 옮겨 심는다.
- 음력 3월 말에 상추를 파종한다. 상추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르는 시기에 파종한다.
- 음력 3월 말경에 담배를 파종한다. 20일 후에 되면 색깔이 노르스름해지면 밑에서부터 따서 건조한다. 그래서 15일 정도 말린다.

4월의 세시풍속

1) 초파일 연등

- 초파일날에 불교 신자들은 절에 가서 불을 피운다. 이 마을에서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 식구이름을 쭉 쓰며 한 사람당 1개씩 다는 사람도 있고 가족으로 다는 사람도 있다.

(화성면 합천리 이한숙)

- 4월 초파일에는 절에 갔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초파일에 절에 가는 사람도 있다. (비봉면 신월리 1구, 조성매 외)
- 초파일에는 이날 개인적으로 무당을 불러 무당집에서 치성을 드린다. 초파일에 부처님을 믿는 사라들은 절에 가기도 한다. 절에 갈 때는 쌀과 초, 돈을 가지고 가서 불공을 드리는데, 대부분 아주머니들이 절에 가고 일부에서는 백미만 먹고, 흰무리떡을 한다. 또한 거리마다 등을 만들어 켜고 절에서 개인 등도 따로 켠다. (≪청양군지≫, 1995)

• 석가모니의 탄신일로 욕불일이라고도 한다. 이 풍속은 고려 초에 정월 보름, 이월 보름에 국가와 백성의 안녕과 복을 빌기 위한 행사에서 유래되엇다. 이 날은 절을 찾아 재를 올리고 연등을 단다. 불심으로 부처님께 복을 빌고 탑돌이도 하고 연등 행렬도 하였다.

이 날의 저녁을 등석이라 하여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하고 각 가정에서 오색의 종이를 바른 등에 불을 붙여 밖에 걸어 놓아 거리의 조망이 아주 화려하였다.

이 날 절에서는 참배객에게 절밥을 대접한다. 소찬으로 고기 없이 산채를 주로 하여 독특한 맛이 나는 별식을 낸다. 느티떡, 볶은 콩, 미나리 나물 등이 있다.(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2) 봉숭아 물들이기

• 백반 넣고 찌어서 아주까리 잎으로 싸서 한다. 백반이 없으면 소금을 넣어서 찌는데 곱게 빻는다. 여자들만 했고 시집가기 전까지 들었다. (화성면 합천리 이한숙)

• 소금을 넣어야 잘 된다고 하고 호박잎으로 감싸고 실로 꼬멘다. 주고 6,7세 정도되는 여자들이 했고, 남자들은 안 했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여름에 봉숭아가 피면 손톱에 물을 들였다. (운곡면 모곡리 김경혜, 최병희)

• 고형,(잡풀) 봉선화 잎만을 가지고 찌어서 손톱에 덴다. 묶는 것은 아주까리 잎으로 감싼다.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 봉선화는 단조로우면서 색깔이 은은하고 수분이 많아 꽃이다. 그래서 소녀나 부녀자들은 봉선화를 따서 손톱에 물을 들였다.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봉선화를 따서 소금이나 백반을 섞어 돌로 짓찧은 다음, 물들이고 싶은 손톱에 붙여서 비닐이나 헝겊으로 싸고 그 위에다 실을 총총 감아 하룻밤을 둔다. 다음날 풀어보면 손톱에 그대로 물들어 아름답게 보인다. 이러한 습속은 손톱을 아름답게 하려는 여심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붉은 색은 잡귀를 쫓는다 하여 벽사(辟邪)의 의미도 겸하고 있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3) 날씨점

• 4월 초닷세 이내에 비가 오면 40일 가문다.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4) 4월의 생업 세시

• 음력 4월 초에 일반벼는 못자리를 만든다. 한편 올벼는 이미 3월에 못자리를 만든다.

• 4월 초에 서석을 파종한다.

• 4월 초에 봄감자를 파종한다.

• 4월에 고추대를 세워주고 묶어준다. 고추 모를 옮겨 심고 바로 고추 대를 세워주는 경우도 있고, 심으면서 바로 세워주는 경우도 있다.

• 4월 초에 깨를 파종한다.

• 4월이 되면, 구기자의 자란 순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끈으로 묶어주며 가지치기도 한다. 가지치기란 순이 열린 가지를 잘라 주는 것을 말한다. 가지를 자르면 잘린 부분에서 여러 개의 새순이 돋아나 더 많은 구기자가 열린다. 이것은 다음달 중순까지 계속된다.

5) 수신제(水神祭)

목면 본의리 1구에서는 매년 4월 초순에 저수지 둑 수문 위의 정상에서 수신제를 지낸다. 이 제의에는 저수지가 1945년 완공된 이후, 1946년부터 안전을 위해 본의리 1구, 안심리 1구와 2구의 3마을 100여호(예전 140호)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수신제는 수리계원이 삽과 괭이를 지참하고 모여서, 저수지를 보수, 손질하고 수신제를 지낸다. 비용은 수리계에서 해마다 걸립을 해서 사용하며, 제사 후에 본의리 회관에 모여 풍장을 치며 먹고 마시고 논다. (목면 본의리 2구, 이배영, 김천식, 김원식, 김정식, 유병호)

5월의 세시풍속

1) 단오

(1) 단오날

- 명절로 여기고 그네 뛰고 돈 있는 사람은 단오날 아침에 제사를 지낸다. 단오날, 삼짇날, 한식차례, 파일(4월 초파일), 동지차례(팥죽에 새알을 넣음.) 절일에 모두 제사를 지낸다.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2) 익모초 캐기

- 단오날 서리 마르기 전에 익모초를 뜯어두었다가 여름에 더위들 때 삶아 먹으면 좋다.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 익모초는 더위와 배탈에 좋다. (화성면 합천리 이한숙)
- 쑥익모초를 뜯어서 달아놨다가 약으로 쓴다고 한다. 엮어서 말려놓는데, 더위들었을 때 좋다고 한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쑥으로 약을 쓴다고 했다. 쑥익모초가 더위 먹은 데 좋다고 한다. (운곡면 모곡리 김경혜, 최병희)

(3) 상추이슬에 분바르기

- 단오날 아침에 상추에 맺힌 이슬을 분에 개어서 바르면 기미, 주근깨가 없어진다고 했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단오 때는 상추잎이나 배잎에 맺힌 이슬, 감즙을 분에 개어서 바르면 좋다고 했다. (운곡면 모곡리 김경혜, 최병희)
- 상추이슬은 단오날에 받는다. 옛날에는 분이 각분으로 깨어서 물에다가 개어서 바른다.
- 상추이슬 이외에 배이슬, 보리앵두(단오에 먹는 앵두)따다 깨어서 물을 내어서도 쓴다.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 단오날에 칠갑분으로 발랐는데 박하분과 같이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크기로 분을 조금 떼네어 손바닥에 이슬과 함께 문질러 바른다. (화성면 합천리, 이한숙)
- 분이 없으므로, 상추이슬을 덜어다가 분 대신 바르기도 하였다. 특히 단오날 아침에 상추이슬을 바르면 그만이다. (비봉면 신월리 1구, 조성매 외)
- 박하분으로 발랐는데 조금씩 떼네어 바른다. 크기는 손가락 한마디 정도이다. (화성면 합천리 이한숙)

(4) 창포로 머리 감기

- 단오날에는 여자들은 창포로 머리를 감는다. (비봉면 신월리 1구, 조성매 외) 그리고 이날 여자들은 창포를 타서 창포물에 머리를 감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 머리가 빨리 길고 머리결이 좋아진다고 한다. 머리를 감을 때 특별히 머리에 밀지름(밀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6. 25 전까지 남양면 일대에서 행해졌다고 한다. (≪청양군지≫, 1995)
- 단오 때에는 여자들이 창포로 머리를 감았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단오를 일년 중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

라 하여 큰 명절로 여겼다. 그래서 음식을 장만하여 창포가 무성한 못가나 물가에 가서 물맞이 놀이를 하였다. 이때 여자들은 창포 이슬을 받아 화장수로도 사용하고 창포를 삶아 창포탕을 만들어 목욕하고 머리를 감았다. 어린아이들은 창포 삶은 물로 얼굴을 씻었다. 창포탕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창포를 베어다가 장독간에서 하룻밤을 재우며 밤이슬을 맞힌 다음, 잎사귀는 떼어내고 줄기만 가마솥에 넣어서 푹 끓이면 약간 거무스름한 빛을 띠는 창포물이 완성된다. 창포물을 만들 때에는 창포만 삶기도 하지만, 단옷날 중에서도 가장 양기가 왕성한 오시(午時)에 쑥을 넣어서 함께 삶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에 윤기가 흐르고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단오는 각종 전염병이 극성을 부리게 될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전염병은 나쁜 귀신이 퍼뜨린다고 믿었던 옛날 사람들은 향기를 가진 창포물에 씻어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였던 것이다. 또한 창포는 약효도 지니고 있어, 삶은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잎과 뿌리를 우려낸 물로 목욕을 하면 손발이 저린 증세도 가라앉는다. 다만, 약으로 사용하는 창포는 늪이나 강가에서 자생하는 것이라야 약효가 있다. 창포를 아주 신비한 힘을 가진 약초로 여긴 중국에서는 단옷날 창포로 만든 술을 마셨는데, 그 풍습이 일본에 전해져 재앙을 물리치는 약초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일본은 예전부터 단오를 '창포의 절구(節句)'라고 할 만큼 전통적으로 창포를 즐겼다. 특히 남자아이들의 날이라고 하는 5월 5일은 아이들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창포물에 목욕을 하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 창포 잎을 베개 밑에 깔거나, 창포 잎을 삶아 목욕을 하는 등의 습관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2001, 집문당)

(5) 그네뛰기와 씨름

- 단오날 그네 뛰고 놀았는데, 노는 사람은 놀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일을 했다. (남양면 구룡리, 김동수)
- 그네 뛰고 놀았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밤에는 그네도 뛰었는데, 남녀가 함께 배를 맞대고 뛰기도 했다. 그네를 뛰면 무좀이 걸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네 발판은 막대기 두 개를 짚으로 얼기설기 엮어서 만들었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단오 날 여자들은 그네를 뛰었는데, 남자들도 여름에 무좀 없어지라고 그네를 뛰었다. 창포물로 머리를 감았는데, 하는 사람만 하고 안하는 사람은 안했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옆집 처녀가 시집을 가면 실 한꾸리와 분 한 각을 선물에 주었다. 이것도 아주 친한 사람이어야 준다. 그 외에는 이웃에 노인 양반이 죽으면 죽 한 동이를 주었다. 팥죽은 오는 사람들 대접하라고 준 것이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단오날에는 그네뛰기와 씨름 등의 놀이를 한다. 씨름은 남자들의 놀이로서, 강변 모래사장이나 마을 공터에서 행한다. 이 놀이의 연령층은 다양하다. 씨름을 할 때는 '네팔드름', '반다름', '생꼭지잡기', '생다리걸기', '밧다리걸기', '호미걸이'의 방법이 있다. 네팔드름은 손으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미는 것이고

반다름은 배치기이다. 생꼭지잡기는 한 손으로 잡아당기고, 한 손으로 돌려 목을 잡고 누르는 것이고 호미거이는 다리로 상대의 다리를 쳐서 균형을 잃게 한 후 밀어치는 것이다. 그리고 생다리걸이는 안다리를 걸어 넘기는 것이며, 밧다리걸이는 바깥다리를 걸어 넘기는 것을 말한다.

비봉면의 그네뛰기는 1980년대 초반까지 마을의 큰 정자나무에 그네를 매달고 하였으나 근래에는 하지 않고 있다. 그네뛰기를 할 때 아낙네들은 앵두즙을 얼굴에 바르고 분을 칠한다. 분은 창포이슬을 받아 딱딱한 분을 으깨어 쓴다. (≪청양군지≫, 1995)

- 단오날에 마을에서는 그네를 매어 놓고 그네를 뛰었다. (남양면 매곡리 1구, 최창호)
- 단오날에 이 마을에서는 그네를 뛰었다. 그러나 씨름판은 열리지 않았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 그네뛰기 곧 추천(鞦韆)은 오월 단오날 주로 여자들이 많이 뛰어왔다. 큰 나무 가지에 동아줄을 틀어서 그네를 만들어 뛴다. 녹음이 짙은 사이에서 빛깔이 찬란한 옷을 입은 젊은 여자들이 많이 뛰는 모양을 보아왔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6) 단오 음식

- 단오 때에 특별히 먹은 음식이 없다. 다만 옛날에 친정 어머니께서 단오날에 쑥개떡을 해 준 기억이 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시집을 오니, 그런 풍습이 없으며, 다만 저녁에 그네를 뛰고 놀았다. (운곡면 위라리, 윤빈귀)

2)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 과일나무에 돌을 끼는데 습을 없애기 위해서 끼워둔다. 습이 많으면 과일이 나지 않는다. 나무 연령에 따라 한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단오 날 농가에서는 대추나무 시집보내기를 한다. 설날도 과일나무 시집보내기를 하는데 단오날에는 특히 대추나무를 시집을 보낸다. 이것은 대추나무가 많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으로 둘로 뻗은 가지 사이에다 돌을 끼운다. 또 단오날에 과수의 가지를 잘라 주면 많은 수확을 거둔다고 해서 잘라준다. 동국세시기에는 「단오날에 대추나무를 시집보낸다. 화력 신재(花曆新材, 중국인)에도 대추나무 시집보내는 것은 단오날 정오가 좋다고 했다. 또 정오에 도기로 여러과일나무의 가지를 쳐내야 과일이 많이 달린다고 했는데, 지금의 풍속이 여기서 비롯됐다.」라고 있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3) 날씨점

- 5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비가 오면 가물다고 했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4) 풍년제와 사직제

- 청양군 목면 대평 2리, 지곡리 2구에서는 최근 세운 정자 옆에 '사직단'을 세우고 모내기를 마치고, 다소 한가한 양력 6월 15일경에 풍년제와 사직제를 올린다. 이것은 대평2리 마을 입구에 1980년 8월 마을의 농지정리를 하며 세운 정자를 세우면서 시

작되었다.

제관은 목면 면장이 초헌, 나이 많은 어른이 종헌을 맡으며, 풍년제 제의를 위한 풍년정이라는 계에서 주관한다. 비용은 예전에는 조금씩 걷어서 지냈으나 요즘은 각 마을의 유지들이 성의껏 성금을 낸다. 제의식을 유교식으로 진행하며, 끝난 후에 농기를 꺼내 농기를 울리면 논다.

풍년제를 지내는 조직인 풍년정은 정자가 있는 대평리 2구와 길건너 마을인 지곡리2구가 함께 조직해서 두 마을 사람들이 함께 제를 올리며 음식은 두 마을의 부녀회가 해마다 각각 번갈아 가며 장만한다. (목면 대평2리, 우홍명)

5) 기우제

- 화성면 산동리 :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을 때, 마을 뒷산에 있는 용툼벙(용이 올라가다 떨어졌다는 곳)에 여자들만 참여한다. 치(키)를 갖고 용툼벙에 가서 머리에 쓰고, 키에 물을 담궈서 까부른다. 물을 떠오거나 풍장을 치지는 않았다. 지금은 수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 화성면 : 오수산, 면민(面民) 모두가 간다. 단, 부정한 사람은 스스로 가지 않는다. 면 사람들이 모두 오수산 가서 풍장 치고, 돼지 잡아 놓고 기우제를 지낸다. 밑에서 물을 떠다가 뿌리고, 키질하고 제사를 지낸다. 50여 년 전쯤 했다. 그 이후로는 한 적 없다(화성면 매산리 산동 3반, 최희선, 김순).
- 정산면 송학리 : 원천수가 되는 새달뜰에 있는 샘에서 하는데 여자들만 간다. 음식이나 술은 없었고, 여자들이 잘못해야 비온

다. 기우제는 여자들이 지냈는데, 남자들의 참여에 제한은 없으며 풍장친다. 샘있는 곳까지 가서 기우제를 지내고 샘에서 키에 물을 떠서 까불린다. 물을 까불리면 물이 튀어서 밑으로 떨어지므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여기며 기우제때는 여자들을 내세운다. 하늘에 부정타게 하는 것으로 치(키)를 가져가 물을 떠서 까부른다. 쇠스랑을 하늘로 세워두면 날 가뭄진다. 부정탄다라고 해서 안 나설 사람들이 나서서 하니깐 부정탄다고 한다. 여자들이 쓰는 물건인 쇠스랑을 세워두는 건 쓸 일이 없다는 의미로 가뭄다는 의미라고 본다. 25년 전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양수기가 들어오고 지하수 끌어쓰고 하다보니 사라졌다.

처녀도 가며 비오게 해다라고 소리를 지른 곳은 마을에서 남쪽 4㎞에 있는 곳으로 저녁 먹고 밤에 간다. 옛날에 도깨비 놀면 비온다라는 말이 여자들이 풍장치면서 노는 것을 의미한다. 여자들이 풍물을 치니 자기 멋대로 치고 하닌깐 도깨비 노는거나 마찬가지로 여겼다. 여자들이 풍장칠일이 없으므로 희귀한 일로 여기었다고 한다.

제관은 따로 뽑지는 않고 마을 여자들이 모두 올라가 제를 지낸다. 축문은 없고 두손 모아 비는 정도로 한다.

기타 여자풍장은 기우제때만 하는 것이고 기우제를 하는 방법은 근신, 미친짓하는 것 등이 있는데 빈다, 공손하게 하는 것은 순종법으로 하늘에게 순종하는것이고, 타협하는 것, 오감하는 것으로 싫어하는 짓을 하는 것 등이 있다. (정산면 송학리, 오영삼)

- 목면 신흥리 임장골 : 마을과 가까운 곳에 있는 강. 비가 오래

안오거나 저수지 물까지 마르면 며칠 동안 저녁 때 한다. 마을에서 쌀을 걷어서 제물 마련한다. 제의가 끝난 뒤 마을 사람이 모두 같이 나누어 먹는다. 여자들만 참여하고, 남자들은 집에 있는다. 풍장을 치면서 강으로 간 뒤 화톳불을 피워 놓고 치(키)에 물을 담아서 까부른다. 키는 쓰거나 들고 온다.

요즘에는 10리쯤 떨어진 마을 사람들이 마을 앞 강에 와서 기우제 지낸다. 본의리에 강이 없어서 주로 본의리에서 많이 온다. (목면 신흥리 임장골, 안정옥, 임희열, 윤성갑, 임경빈)

- 청남면 청소리 : 기우제를 지내는 날, 저녁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풍장을 치면서 금강에 가서 키로 물을 까부른다. 또, 금강 물을 병에 받아와서 조왕에 모신다. 떠온 물은 솔잎으로 집 안 여기저기 뿌리는데, 이것은 비오는 모양을 흉내낸 것이다. 이 물은 비가 오면 버린다. 한 20년 전쯤에 가물었을 때 했었고 요즘에는 한 적이 없다. (청남면 청소리, 김만영, 우제동, 황의경)
- 대치면 농소리 놋점 마을 :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마을 인근에 있는 물가 3곳에서 3일 동안 기우제를 지낸다. 여자만 참여한다. 꽹과리를 치면서 물가에 가서 병에 물 담아 온 뒤, 물병에 솔가지 꽂아서 집에 매달아 놓는다. 3일 동안 각기 다른 곳으로 가서 물을 떠온다. 3일 지나고 백무리(흰떡)를 해서 다 같이 나누어 먹는다. (대치면 농소리, 임춘재, 박신남, 복흥순)

6) 5월의 생업세시

- 음력 5월 초에 모내기를 실시한다. 모내기는 예전에도 두레를

하지 않았으며, 품앗이를 하는 경우는 있었다. 모내기 품앗이에는 쇠품이 있는데, 논갈이를 할 때 소가 없는 집의 논을 대신 갈아준 소의 노동력을 말한다. 하루치 쇠품은 장정 4일의 노동력에 해당한다. 모내기가 끝나고 15~20일 후에 초벌 김매기가 시작된다. 두벌매기는 초벌매기가 끝난 일주일 후에 시작한다.

- 5월 초에 보리를 수확한다.
- 5월 중순에 팥과 고구마를 파종한다.
- 5월 모심기 전에 마늘을 수확한다.
- 5월에 각종 밭작물의 김매기를 실시한다.
- 오죽이라고 검은 대나무를 5월에 심어야 잘 자란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따뜻한 날에 심는다. 오죽은 낚시대나 그외 장식품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7) 두레와 품앗이

(1) 대치면 대치리의 두레와 품앗이 · 고지

- 두레의 시기와 기간 : 두레는 주로 논매기 때에 이루어졌다. 논매기는 3벌을 매는 데, 아시매기, 두벌매기, 만물매기(세벌매기)를 한다. 두레는 세벌매기인 만물매기 때에 이루어진다. 두레의 기간은 보통 5~10일 정도이다.
- 두레꾼의 참여 : 두레는 남자 중에서 17세 정도부터 45~50세 정도까지 참여하였다. 이 나이에 해당하는 두레꾼 중에서 1가구에 1명씩 참여하였다. 따라서 여러 명이 있는 집에서는 교대로 두레에 나오기도 하였다.
- 작업 시간 : 오전 7시경에 시작하여 오후 7~8시에 끝나며, 경

우에 따라 일이 일찍 끝날 경우에는 6~7시에 마치기도 하였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아래의 정자나무에 집결하여 풍장을 울리면서 논매기를 하러 떠났다.

- 식사와 간식 : 아침은 집에서 먹고 나오며, 점심도 각자 준비한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 점심을 준비해서 내 오는 경우가 많다. 다만 논의 주인은 새참으로 오전과 오후에 각각 보리술을 내놓으며, 마늘과 고추장 등을 안주로 내 놓는다.
- 두레 기금 : 두레를 할 때에 논의 임자는 논의 크기에 따라 돈이나 쌀을 내 놓는다. 곧 1마지기 당 얼마씩을 동등하게 계산해서 내 놓는다. 이 돈은 마을의 기금으로 사용한다.
- 두레 소멸 시기 : 해방 전인 일제 말기에 약화되어, 해방 후에는 실시하지 않았다. 당시 두레가 약화된 이유는 일제의 징용, 군대 징집, 타지 이주 등에 의한다. 당시 7~9가구 정도가 본토에 징용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타지에 이루한 사람도 여러 집이 있었다.

  당시에 살기가 어려워서 전쟁 초기에 몇 홉의 배급을 받았으나, 나중에는 쌀을 구경도 못 했고, 심지어는 썩은 콩깻묵으로 연명을 했다. 이로 일로 인해 두레가 약화되었다.
- 품앗이 : 모내기 할 때에는 돈을 주고 품을 사거나 품앗이를 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두레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를 제대로 심지 못한다 하여, 두레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 고지 : 30년 전까지 고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려울 때에 쌀을 미리 빌려 쓰고 나중에 일로 갚는 것이다. 고지에는 2가지가 있는데, 쌀 5되를 빌릴 경우에는 '심는고지'라 하여, 모내기를 할

때에 참여해서 일손으로 갚는다. 그리고 쌀 2말을 빌릴 경우에는 '잔고지'라 하여, 모를 심는 일에서부터 바슴(수확)할 때까지 일손으로 갚는다. (대치면 대치리,)

(2) 정산면 송학 1리의 두레와 품앗이

- 두레의 전승 : 두레는 논을 맬 때에 하고, 모 심을 때나 밭을 맬 때에는 하지 않는다. 두레의 작업 기간은 보통 10일 정도이다. 이 마을에서 두레가 소멸된 것은 약 30여년 전이다. 오영삼 제보자는 30여년 전까지 두레패를 따라 다닌 기억이 있다. 기계화가 되고, 제초제가 도입되면서 논을 멜 필요가 없어지면서 두레가 사라졌다.
- 가입과 참여 : 두레에는 동네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한다. 일만 잘 할 수 있으면 가입한다. 17, 18세의 청년은 장정이라 하여 참여가 가능하다. 이 마을의 인원은 50~6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두레패에 들어가면 술 한 통을 내는 것으로 신고식을 대신한다.

  한편 일을 할 때에 나오지 않으면 일정한 품삯을 내놓는다. 한 집안에 한 사람씩 나오며, 여러 명이 있으면 있는 데로 나온다.

  다만 여자들은 두레에 참여하지 않고, 밥만 해 준다. 한편 두레 때에 부잣집에서 술과 음식을 내놓기도 한다.
- 두레의 시기 : 두레는 논 맬 때 주로 하였다. 논매기는 3번 하지만, 일찍 심으면 2벌 매기도 한다. 처음 매는 것은 땅을 뒤집어 놓는 것으로 '아시벌 한다'고 말한다. 아시는 처음 매는 것을 말한다.

  늦게 심으면 '무진걸 판다'라고 하여 땅이 딱딱해서 남들보다

늦게 매야 한다. 땅이 딱딱한 것을 팔려면 '무진걸 판다'고해서 매우 힘들었다.

모내기 때에 두레를 하지 않는 것은 흙물이 모두 틀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때에는 품앗이 형태로 한다. 소서 전까지는 물모라고 한다. 물모라는 건 수도작을 의미한다. 하지 때 모심기를 하는데 하지 전 후 3일이 모심기의 적기이다.

- 작업 방법 : 모임을 가져 두레 일정을 서로 상의한다. 따라서 "내일은 누구 집에서 하자"라고 일정을 짠다. 일하는 기구는 별도로 없고 주로 호미로 김을 맨다.

아침 7시 쯤에 풍장을 치고 징을 치며, "아무개네 논매기 들어가자"하면 사람들이 모인다. 그리고 기를 들고 논으로 나간다.

논매기를 할 때에도 풍장을 친다. 그래서 악기를 치는 사람은 일 하는 사람과 같이 논에 들어가면, 이들은 일을 하지 못한다.

새참은 아침, 저녁으로 나오며, 술은 수시로 먹는다. 술을 많이 먹으면 술에 취해서 논도 제대로 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나이 많은 어른들이 일을 잘 하라고 몽둥이로 때리는 경우도 있었다. 삽으로 발가락을 찍혀도 뭐라고 하지 못했다. 이것을 두레장수라고 한다.

- 두레풍장 : 두레 나갈 때 악기를 치는 것을 풍장이라고 한다. 치는 사람들은 풍장 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두레풍장은 논매러 갈 때, 올 때, 모 심을 때에 친다. 논풍장은 '쿵딱 쿵딱' 식의 사물 가락이며, 질굿은 느리게 치는 것으로 올 때와 갈 때. 식사 후 놀 때에 친다.

- 품앗이 : 모내기는 품앗이로 하였고, 논 10마지기 정도는 20명

가량이 하루 일을 해야 한다. 보통 돈이 있는 사람은 품을 사서 모내기를 하였다. 그리고 초가 지붕얹기도 품앗이를 하였다. 박대통령 시절의 새마을사업 때에 지붕개량과 두레가 없어졌다.

품앗이 일이 서로 같지 않아 일을 똑같이 해 주지 못할 경우에는 대신 다른 일을 꼭 해서 보답을 해야 한다. 품앗이를 할 때는 점심도 주고 막걸리도 주며, 요즈음에는 빵도 준다. 한편 보(洑)의 수리는 경작자가 했으며, 특별히 보제는 없었다. (정산면 송학 1리, 오영삼)

(3) 기타 청양의 두레

- 청양읍 적누리의 두레 : 논매기의 만물매기 때에 10일간에 걸쳐 두레를 한다. 예전에는 120여명이 참여했으며, 각 가정에서 1명씩 참여한다. 60년대에 소멸되었다. 꽹맥이, 장구, 징에 맞춰 일을 한다. (청양읍 적누리, 노병두)
- 청남면 인양리의 두레 : 6월 초순~7월 초순에 논매기의 2벌매기와 만물매기 때에 1달간 실시한다. 19살부터 참여하며, 180여명이 참여하는 큰 두레였다. 대동기를 앞세우고 두레풍장을 치며 출발하고 돌아온다. 두레에서 나오는 돈은 동네 기금으로 사용하였다. 이곳은 1960년 초까지 지속되었다. (청남면 인양리, 김명하)
- 정산면 남천리의 두레 : 60년대 중반에 소멸되었다. 이곳은 풍장에 사용하는 기물을 준비할 목적으로 두레를 실시하였다. 1마지기당 얼마씩을 갹출하였다. 두레의 구성을 보면, 좌상은 나이든 노인으로 기를 지킨다. 공원은 두레꾼에게 일을 시키며, 싸움을 붙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똑똑한 사람을 선정한다. 총

각마구리, 곧 총각대장은 어른의 심부름을 맡는다. 특히 쑥대와 짚대를 이용해 홰를 준비해서 불을 붙이면 이 불로 어른들이 담뱃불을 붙인다. 이 담뱃불 준비를 총각마구리가 한다.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김원중)

- 남양면 매곡리 1구의 두레 : 두레는 주로 논매기할 때에 했다. 보통 두벌매기 할 때에 하며, 이 때에 두레기로 영기가 있었다. 이 두레는 6.25 전까지 있었다. 한편 이 마을에서는 이웃 온암동하고 두레싸움도 했다. 일반적으로 품앗이는 모내기 할 때에 하고, 김매기 할 때에만 두레를 했다(남양면 매곡리 1구, 최창호).
- 청남면 상장 1리의 두레 : 이 마을의 두레는 70년대에 와서 없어졌다. 60년대 초까지 두레할 때에 어른들은 젊은 사람이 술을 먹고 실수하면 정자나무에 와서 종아리를 친 적도 있었다.

  70년대 와서 기존의 두레가 없어지고 반두레가 생겼다. 반두레는 지역단위로 고랑을 중심으로 모여서 일을 해 주는 것으로 '둥구레'라고 한다. 농기계가 나오면서 모내기가 필요 없자, 점차 두레도 없어지게 되었다. 둥구레도 90년대에 와서 농기계가 많이 나오면서 완전히 없어졌다. (청남면 상장 1리, 우성림)
- 청남면 천내리의 두레 : 두레는 여름철 논을 맬 때에 하며, 이 마을에서는 20년 전까지 두레가 있었다. 두레 인원은 80여명 정도 되었다. 나이 제한은 특별히 없이 일할 만한 나이가 되면 참여하는데, 보통 한 16살 정도부터 참여한다. 두레에 들어올 때는 동네에 술을 한 턱 내는데, 그걸 '꽁뱅이 술'이라고 한다.

  두레 중에서 좌상은 관리하는 사람으로 나이가 많으며, 좌중의 어른이다. 따라서 일을 잘못하면 벌을 주기도 한다. 두레에

참여하는 데에 가구 당 인원 제한은 없다. 늙어서 못하게 되면 두레에서 알아서 빠진다.

이 동네에는 두레기가 따로 있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 일하는 사람들 힘들지 않으라고 풍장을 쳐준다. 풍장은 북, 장구, 꽹과리, 징 4가지이다. 이 동네는 지금은 풍장을 전혀 치지 않는다. (청남면 천내리, 전철규)

- 목면 본의 2리의 두레 : 이 곳은 논매기의 아시매기, 두벌, 세벌매기 때에 두레를 사용하였다. 예전에 20살 이상의 남자들이 60~70명 정도 참여했다. 이곳 두레는 1960년대에 와서 소멸되었다. (목면 본의 2리, 김천식)

8) 두레싸움

- 정산면 광생리의 두레싸움 : 두레싸움은 상대편을 쓰러트리고 상처를 내는 것이다. 보폭이를 뽑아 휘둘렀다. 목면 오산리와 정산면 광생면과 싸웠다. 두레 때 읍내 같은 데서 깃대와 깃대끼리 맞절시키고 읍내는 큰집으로 여기고 동네와 동네끼리 맞절을 시켰다.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 목면 안심리의 두레싸움 : 두레를 할 때 양쪽에서 힘이 센 사람을 뽑는데 이 이유는 힘이 약하면 지기 때문이다. 두레를 메는데 딴 패가 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면 싸움의 조짐이 보이는데 좌상을 불르면 싸움이 시작된다. (목면 안심리 정명교)
- 대치면 대치리의 두레 싸움 : 일제 시대에 두레가 있을 때에는 아래의 광대울 마을과 두레싸움을 했다. 두 마을의 두레패가 만나면 서로 깃대로 인사를 하라고 요구하며 시비가 붙는다. 나중

에는 두 마을의 풍장패가 서로 어울려 노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대치면 대치리)

- 청양읍 적누리의 두레싸움 : 일제시대에 두레싸움을 한 적이 있다. (청양읍 적누리, 노병두)
- 청남면 인양리의 두레싸움 : 제보자가 어릴 때에 두레싸움이 있었다. 나무 잘 타는 사람이 상대의 '기(旗)목'을 빼앗으면 이기게 된다. 이것은 상대의 목을 베는 것과 같다. 곧 목을 빼앗겨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된다. 만약 기목을 빼앗기면, 기를 가지고 가지 못하고 버리고 가야 한다. 서로간에 치고 받기도 하고, 농악을 다루어서 승패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이곳 두레가 크기 때문에 다른 부락의 두레가 감히 덤비지 못한다. 한편 풀물(풍장)을 쳐서 그 실력으로 승부를 내기도 한다. (청남면 인양리, 김명하)
- 정산면 남천리의 두레 싸움 : 두레 때에 이웃 마을과 두레싸움이 있었다. 남천리에서는 새터울(안모동) 두레, 새울 두레, 굴티 두레가 있었으며, 이곳 봉현리에서는 인근의 묘제 두레와 두레싸움을 벌였다.

  두레 할 때에 풀물을 치면서 나가면, 이웃 마을의 두레와 마주친다. 이때 자진마춤으로 치면서 상대에게 '기문 열어달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상대의 3가닥 기줄을 끊으면 싸움이 벌어진다.

  두레싸움은 두레가 중지되었던 시기인 60여년 전(제보자가 10살 전후)인 일제 말기에 소멸되었다. 따라서 전쟁 이후에 두레가 일시 복원되었으나, 두레싸움은 복원되지 않았다.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김원중)

- 목면 본의 1리 무수동의 두레싸움 : 약 40년 전까지는 논매기 두레를 하다가 이웃 마을과 두레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마을은 인근 안심리, 마근동과 많이 싸웠다. 이 마을에서는 주로 이웃 안심리와 깃발싸움을 했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윤종오)
- 남양면 매곡리 1구의 두레싸움 : 이 마을에서는 이웃 온암동하고 두레싸움도 했다. 일반적으로 품앗이는 모내기 할 때에 하고, 김매기 할 때에만 두레를 했다. 두레는 주로 논매기할 때에 했다. 보통 두벌매기 할 때에 하며, 이 때에 두레기로 영기가 있었다. 이 두레는 6.25 전까지 있었다. (남양면 매곡리 1구, 최창호)
- 정산면 송학 1리의 두레싸움 : 두레를 할 때에 이웃 마을의 두레와 만나면 두레싸움을 한다. 두레 싸움이 격렬해서 사람이 죽어도 뭐라고 항의하지 못한다. (정산면 송학 1리, 오영삼)

6월의 세시풍속

1) 유두

- 유두날에 유두면이나 팥죽 수제비를 해먹었다. 유두날에 천둥이 치면 흉년이 든다고, 좋지 않다고 했다(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유두날에 아침에 천둥이 일찍 치면 가을이 빨리 온다고 하고, 늦게 치면 가을이 늦게 온다고 했다. (남양면 구룡리, 김동수)
- 유두할아버지가 비를 관장한다고 그날 전도 부쳐먹고 수제비를 만들어 먹기도 했다.

호박쟁병을 해먹기도 했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2) 유두차례

- 밀국수, 과일을 놓고 지낸다. 제사지내는 것과 같이 차리는데,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차린다. 장광에는 성주지신, 부뚜막의 조왕대신에게 차린다. 이것은 농사를 위하는 것이다.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 유두날에 비가 오면 가뭄이 든다고 했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유두가 되면은 "유두 울 때 됐다"라고 하며 하늘에서 천둥마냥

가만히 있으면 '웅'하고 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가 아침 일찍 들리면 서리가 일찍 와서 곡식이 모두 죽는다고 하고 점심 때 오면 서리가 정확하게 오고 저녁에 오면 곡식을 다 먹는다고 한다. 즉 이른 곡식, 늦은 곡식 모두, 서리가 늦게 오면 죽는다는 뜻이다. 어른들이 밭을 메다가 "이 소리 저 소리해도 늙은이 와야 배 갈란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때 늙은이는 서리를 말한다. 이 소리는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다(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 6월 보름을 유두라 한다. 이 때는 천둥이 치고 비가 오기도 하는데 이 빗물을 '유두물'이라 한다. 이날 여자들은 이 물로 머리를 감는다. 또한 이날 먹는 음식으로는 유두국수, 호박전 등이며 유두국수는 콩을 갈아 거른 콩국물에 국수를 넣어 만든 것이다. (≪청양군지≫, 1995)

3) 약수(藥水)

- 복을 전후해서 피서로 약수터를 찾는 사람이 많다. 우라나라에는 석왕사(釋王寺)의 약수, 삼방(三防)약수, 강서(江西) 약수, 달기 약수 등 유명한 약수가 많으며, 서울에만 해도 천호동의 약수를 비롯하여 남산과 정릉 등에 수많은 약수터가 있다.

  복중에는 이런 약수터에 많은 약수터들이 찾아온다. 약수는 바위 틈에서 솟는 자연수이며, 그 성분에 따라 여러 병에 특효가 있다고 한다. 약수터 근처는 노목이 울창하고 약수도 차가우므로 더위를 피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따라서 복중에는 피서도 하고 경치도 볼겸 많은 사람들이 약수터를 찾는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4) 하루걸이 치유법

-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인데 춥고 어지럽고 4시간 지나면 싹 없어진다. 사람을 멍석에 말아서 소를 사람을 넘기는데 놀라게 해서 병이 사라지라고 한 것이다. 망부석에 가서 입맞추고 인망석, 장군석이 있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하루걸이(말라리아)에 걸리지 말라고 다리 밑에 기어들어 갔다가 나왔다. 또 구럭(짚으로 엮은 바구니)를 쓰고 굴뚝에 절을 하기도 했다. 복날이 되면은 잘 걸리는데, 빗자락(빗자루)을 굴뚝에 꽂으면서 생주생기면서 당주니가 차리지 니가 꽂가지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낫다고 하는데 이것은 귀신이 눈이 찔러서, 눈이 빠지기 때문에 죽는다고 한다.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5) 6월의 생업세시

- 모내기가 끝난 후에 6~7월에 걸쳐 김매기를 실시한다. 김매기는 모내기가 끝난 후에 15~20일 정도 지난 후에 시작한다. 김매기는 초벌, 재벌, 세벌에 걸쳐 3회 연속해서 맨다.
- 6월 말에 가을감자를 파종한다.
- 각종 밭작물의 김매기를 실시한다. 밭작물의 경우, 보통 3번 매지만, 경우에 따라 2번만 매는 경우도 있다.
- 6월 말이 되면 구기자를 수확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수확을 시작하여 첫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수확은 계속된다.

7월의 세시풍속

1) 칠석

- 두레가 있는데 일정한 기간에 풍장치고 해적도 불면서 공동작업을 했다. 논 천평이 술한동씩 내고 한마디씩 돈을 정해서 남는 돈은 쌀을 팔아서 송편을 빚어서 나눠줬고 그날 술과 함께 놀았다. 이웃동네를 초대하기도 하면서 놀았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7월 20일부터 25일 사이가 되냐 호미를 씻을 수 있는데 이때에 돈을 받아서 보신탕 한 그릇 사먹으라고 한다. 일원오십전(쌀 한가마 정도)을 주었는데 일원오십전은 자기와 식구들, 주인까지 보신탕 한 그릇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칠성날은 칠성제를 지낸다고 해서, 미역국에 쌀밥을 해먹는 날이다. 삼신을 위한다고 장광에 청수 떠놓고 고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었다. 가을 농사지어서 처음 밥을 해서 부엌에 한 그릇, 방에 한 그릇, 장광에 한 그릇씩 놓았다. 가을에 추수해서 떡을 할 때도 그렇게 해놓았는데, 나무와 화장실에도 놓았다. 장광에 놓는 것은 터주떡이라고 하고, 부엌에는 주왕이라고 했다. 가져

다 놨다가 먹었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칠성날 시루에 백무리를 해서 개인치성을 올린다. 북향을 향해서 빌며 "칠성을 위한다" 라고 한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칠월 칠석날에는 마을 잔치가 열렸다. 마을끼리 어느 동네가 풍물을 잘 치나 시합도 했다.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 칠월 칠성날에는 집에서 백무리를 해먹고 미역국을 먹었다. (운곡면 모곡리 김경혜, 최병희)
- 밀떡으로 고사를 지낸다.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 칠석맞이 할 때는 쌀을 가지고 절에 갔다. (남양면 매곡리 1구, 최창호)
- 칠석날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 칠석날에는 떡을 해 먹었다. 백무리(백설기)를 장광(장독대)에다 놓고 빌었으며, 이때 청수도 함께 놓는다. 속으로 몰래 기도하기도 하였다. 떡을 장광에다 놓은 다음에 성주가 있는 방에 차려놓는다. (비봉면 신월리 1구, 조성매 외)
- 칠석날에는 견우와 직녀가 만날수 있도록 아들(까치)들이 오작교(징검다리)를 놓아주는 날이다. 이 때문에 까치의 머리가 벗겨졌다고 한다. 칠월 칠석에는 백무리와 미역국, 쌀밥, 호박전 등을 해 먹는다. 음식을 해 먹기 전에 집안의 할머니나 어머니들은 장독대에서 칠성님께 떡과 청수를 올리고 집안이 잘 되게 해 달라고 절을 하며 빌기도 했다. 이때 떡 위에는 촛불을 켜 놓았다. 또 절에 가서 제물을 바치도 하며 공양시에는 쌀, 과일,

돈, 초, 소지종이를 올린다. (≪청양군지≫, 1995)

- 7월 7일을 칠석이라 한다. 칠석 날에는 은하수에 까치와 까마귀가 오작교를 놓고, 동쪽의 견우성과 서쪽의 직녀성이 만나 슬픔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느라 대체로 날이 흐리고, 비가 온다고 한다. 부녀자들은 마당에 바느질 차비와 맛있는 음식을 차려 놓고 문인들은 술잔을 교환하면서 두 별을 제목으로 시를 지었다. 또한 볕이 좋을 때 옷과 책을 말린다. 집집마다 우물을 퍼내어 청결히 한 다음 시루떡을 해서 우물에 두고 칠성제를 지낸다. 음식으로 밀국수, 밀전병을 하고 잉어를 재료로 음식을 만들며 오이 김치나 복숭아, 수박으로 과일 화채를 만들어 먹는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2) 칠성제, 칠성고사

- 장평면 미당리에서는 매해 음력 7월 칠석날 아침 10시에 제물을 진설하고 미륵님께 칠성제를 올린다.

  부녀회의 주최로 부녀회원들이 모두 돈을 걷어 진행비를 마련하고 떡, 돼지고기, 제사음식 등을 장만한다. 돼지는 시장에서 사다가 통째로 엎어놓고 썼다. 요즘은 머리만 쓰고 몸은 따로 삶아서 먹는다. 이때 준비한 음식들은 모인 사람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같이 먹었다.

  장소는 미륵불 앞에 제상을 진설하고 지내며, 미륵님께는 막걸리 등의 술을 받아다가 올린다. 제주는 마을 이장이며, 면장과 군수도 참여한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 지낸다.

축문은 마을 선비들이 써서 읽으며, 복장은 미륵을 모시는 사람만 차려 입었다. 예전부터 미륵을 모시던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을 '미륵 모시는 사람'이라고 한다. 칠성 때만 되면 준비를 많이 하였다. 제사 때는 모두 절을 하였는데, 여자들은 절을 하지는 않았다. 절을 할 때는 마을 사람들이 먼저 하고, 윗사람들부터 여럿이 함께 절을 올렸고 그 다음으로 외지 사람들(손님들)이 절을 한 명씩 하였다.

제사가 끝나면 풍장을 치며 마을사람들이 다같이 신나게 논다. 5~6년 전부터 미륵불을 중심으로 크게 지내기 시작하였다. (장평면 미당리 서기복)

- 칠월칠석날 아이들 수명, 복을 관장하는 칠성님께 떡(백설기)을 해서 위한다. 지금도 위하는 사람이 간혹 있으나, 제보자는 위하지 않고 있다. (정산면 송학리 이정순)
- 애들 잘 되라고 칠성님께 위한다. 칠월 칠석날에, 떡을 백무리로 하여 장광에다가 위한다. 이것은 보통 애들이 10살 정도 먹을 때까지 위한다. (운곡면 모곡리 곽주순)
- 칠성날은 칠성제를 지낸다고 해서, 미역국에 쌀밥을 해먹는 날이다. 삼신을 위한다고 장광에 청수 떠놓고 고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었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개인 치성 : 칠성날 시루에 백무리를 해서 개인치성을 올린다. 북향을 향해서 빌며 "칠성을 위한다" 라고 한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장광 옆의 한 곁을 칠성당이라 한다. 칠월칠석날이 되면 전날 저녁인 육일에 하얀 백무리를 찌고 청수를 올린다. 칠성당은 아

이들 잘되라고 위하는 것이다. 삼신할머니가 아이를 점지해주셨다면 칠성은 자손을 보살펴 주신다. (대치면 농소리 임춘재, 박신남)

- 장광에 터주를 모시고 그 한 곁에 자리를 잡아 칠성당으로 여겨 모셨다. 칠성은 칠 형제라고 하였으며 칠월칠석날이면 하얀 쌀밥을 지어 올린다. 평소 보리밥만을 지어먹다가 칠석날이 되어서야 쌀밥을 지어먹었고 좀 넉넉한 집에서는 이날도 쌀을 빻아 흰떡을 찌어 올렸다. (대치면 오곡리, 김성아)

3) 백중(머슴날)

- 백중 때 머슴들이 농사일을 마무리하고 노는 날이었다. 용역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상관없는 날이었다. 따로 백중놀이는 없었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백중날은 머슴들에게 돈도 주고 해서 쉬게 했다.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 백중은 머슴들이 하루 노는, 머슴의 명절이다. 따라서 백중장이 별도로 섰다. 이날 주인은 머슴에게 옷도 새로 해 주고, 돈도 주면서 "하루 잘 놀다 오라"고 보낸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 백중을 머슴날이라고 한다. 청양에 칠월 열이틀날에 백중장이 서면, 술을 먹고 싸우는 일도 많았다. (비봉면 신월리 1구, 조성매 외)
- 머슴장이라고도 하며 이날은 남의 집 고용살이를 하는 사람이 쉬는 날이었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머슴날은 주인에 머슴에게 돈을 주는데 하루동안 노는 날이다. 머슴을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주인에게 개고기 한 그릇을 받친다. (남양면 구룡리, 김동수, 목면 안심리 정명교)
- 칠월 보름을 '백종' 또는 '백중'이라 하여 이날을 전후해서 종(머슴)들을 쉬게 한다. 머슴들은 주인들이 준 돈으로 하루 내지 이틀 동안 장에 나가 음식을 사먹고 마음껏 논다. 그래서 이날은 '머슴 노는 날'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은 머슴들이 장에 가기 위해 깨끗이 씻기 때문이다. 또한 백중에는 씨름을 많이 했으나 근래에는 하지 않는다. (≪청양군지≫, 1995)
- 7월 15일은 백중절, 백종일 또는 망혼일이라고 한다. 이 날에는 망혼을 위하여 절에서 제를 올려 극락으로 인도한다. 백중절엔 밀가루에 박잎이나 깻잎을 넣어 지지고 햇감자와 밀가루로 전을 부쳐 사당에 제향한다. 7월 보름을 전후하여 마을 형편에 따라 택일한다. 이 날을 초연 또는 머슴날이라 하여 호미씻기를 한다. 이때쯤엔 힘든 농삿일도 거의 끝나 호미를 거둘 때가 되었다는 데서 온 말이다. 이 날은 농사가 잘된 집의 머슴을 뽑아 상을 내리고 술로 노고를 위로한다. 7월의 시식으로 증편, 밀전병, 육개장, 게, 전유화, 오이 김치, 깻국탕, 김칫국, 냉면, 어채, 열무 김치, 생실과 등이 있다. '농가월령가'의 7월령에는 각종 밑반찬을 마련하는데 적당한 시기라 하여 애호박, 도라지, 더덕, 깻잎 부각, 풋고추, 부각, 감자 녹말 등을 마련하여 저장하여 두었다 쓴다. 가을철에 접어들어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게장, 게찜, 두부, 햇실과, 떡 등을 만들고 멸치젓, 어리굴젓도 담근다. 7월에는 입추, 처서, 말복의 시절 행사가 있다.(임동권, ≪한

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4) 호미씻이

- 호미씻이 날을 머슴날이라 부르는데, 7월 15일을 전후해서 그 마을 형평상 적당한 날을 택하여 정한다. 각 가정에서는 제각기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산이나 계곡을 찾아가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즐긴다. 농부들의 휴일인만큼 농악을 치며 흥겹게 놀고 그 마을에서 농사가 가장 잘 된 집의 머슴을 뽑아 일을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술을 권해 위로해 주기도 한다. 그러고 나서 삿갓을 씌우고 소 위에 태운 후 마을을 돌아다닌다. 그 머슴의 주인은 마을 사람드에게 술과 밥을 한턱 낸다. 호미씻기는 농사일이 거의 끝나 호미가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호미를 잘 씻어 둔다는 데서 나온 풍습이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5) 천렵

- 산, 강에서 천렵을 하였다. 금년농사를 짓기 위해서 천렵 그 다음날에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 냇가에 가서 고기도 잡고 가제도 잡았다. 잎새 만발할 때 가는 것이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동네사람 몇몇이 시원한 산 속으로 들어가서 가제를 잡아 술 한잔 마시면서 노는 것을 말한다. 가제는 돌을 들어올리면 나온다. 잡은 가제는 가져간 솥을 걸고 양념을 해서 끓여 먹는다. 도구는 뜨끔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다. (목면 안심리 정명교)

- 삼복 더위에 채일(천막)을 쳐놓고 개 한마리 잡아서 솥단지를 가져가서 국말이나 찌개를 끓여 먹는다. 그리고 풍장을 치면서 노는데, 이것을 '동네 천렵간다'고 한다. 동네 전체가 다. (목면 안심리 정명교)

6) 복날

- 삼복 때는 '복쟁이국'이라 해서 복(생선)으로 국을 해 먹었다. 한편 개를 잡아서 복달음(보신탕)을 해 먹기도 하였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삼복 때는 개를 잡아먹거나 팥죽을 쑤어 먹었다.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 삼복에는 팥죽을 먹었고, 얼마 되지 않아서 '복달음한다'고 삼계탕이나 개를 잡아서 먹는다.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 복날의 음식으로, 올 초복에도 동네에서 몸보신을 위해 개장국을 끓였다. 깨와 졸(부추)을 넣어서 끓여 먹는다. 지금은 여유가 있어서, 식당에 주문해서 끓여 먹는다. 개를 식당에 맡기면 잘 알아서 끓여 주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개장국보다 오히려 낫다. (운곡면 위라리, 윤빈귀)
- 복날에 닭을 많이 잡아먹는다. 그런데 개를 잡아 보신탕을 해 먹는 집도 있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 복날에는 개고기를 먹는다. 지금도 이 동네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집이 있다. 개고기는 머리 부분도 먹는다. 홍역할 경우, 개의 머리를 거꾸로 해서 기름받아다 먹기도 했다. (비봉면 신월리 1구, 조성매 외)

- 삼복은 초·중·말복으로 구분하는데 행사는 구분하지 않는다. 이날은 '복달음'이라 해서 삼계탕이나 보신탕을 먹는데, 삼계탕이나 보신탕은 '더위를 막는다'고 하여 즐겨 먹는다. 유부녀는 '저릅(겨릅)'을 갖고 다니며 호박넝쿨을 때린다. 저릅이란 삼나무의 껍데기를 벗겨낸 하얀색의 속대를 말한다. (≪청양군지≫, 1995)

7) 두레 먹기(먹두레)

- 두레가 다 끝난 후에 칠석이나 백중 때에 날을 잡아 두레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 먹고 노는 것을 먹두레라고 한다. 이날 품값을 계산한다. 한 집안에서 2인이 두레에 참여할 경우(두슬포)에도 이날은 모두 참여한다. (청남면 인양리, 김명하)
- 칠월이 되어 두레일이 다 끝나면 '두레먹는다'고 한잔씩 술을 마신다. 이 날 논매기한 논의 크기에 따라 한 마지기에 얼마씩 돈을 걷는다. 자기 동네에서 두레먹으면 이웃 동네 사람들을 청해서 같이 먹는데, 보리술을 먹고서 서로 술에 취해서 싸움을 한다.

  두레 먹는 시기는 대개 7월 칠석 쯤에 많이 한다. 두레가 없었진 시기는 약 40년이 넘었다.(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 두레가 끝나고 칠월 칠석날에 술을 먹고 노는데, 이것을 "두레먹는다"고 한다. 여름철에 일하고 이 날 모여서 논 매고 받은 품값을 계산하고, 모두 술 먹고 즐겁게 논다. (청남면 천내리, 전철규)
- 두레일이 모두 끝나면 대개 7월 칠석날을 잡아 하루 논다. 이

날은 술을 먹고 풍장을 치고, 씨름도 하며 논다. (정산면 송학 1리, 오영삼)

8) 삼삼기

7월이면 농가에서는 삼삼기를 했다. 기계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필요한 의료는 자가 생산을 해서 충당해야 했다. 겨울철의 의복은 면직이나 견직으로 만들어 입었지만, 여름철은 주로 땀이 배지 않고 시원하기 때문에 마직으로 해 입었다. 삼을 삼는 일은 부녀자들의 일이다. 7월이면 마을의 부녀자들이 넓은 마등에 모여 낮아 구수한 옛날이야기의 꽃을 피워가면서 삼삼기를 하는데, 이런 집단 작업을 둘레삼이라고 한다. 이렇게 집단 작업을 하는 것은 힘들고 지루한 줄 모르고 일을 할 수 있으며, 서로의 우정을 두텁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레삼을 할 때에는 피로를 잊기 위하여 구성진 가락으로 삼삼기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우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오랜 전통이 있는 풍습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제 3대 유리왕 때에는 왕도를 육부로 나누고, 공주의 주관하에 그 부내의 부녀자들이 7월 15일부터 집단적으로 삼삼기를 시작하여 8월 15일에 그 성적에 따라 승부를 정하고, 패자는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승자를 대접하였다고 전한다. 이때에는 가무백희(歌舞百戱)가 연출되었다고 하며, 지금의 둘레삼 삼기는 그때부터 내려온 민속이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9) 7월의 생업세시

- 음력 7월 칠석 즈음되면 논매기가 3벌(만물매기)까지 마무리된다. 따라서 7월 칠석 시기에 날을 잡아 두레를 먹인다. 이것은 김매기 두레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회계를 하고, 음식을 차려 서로 노고를 치하하고, 풍장을 치며 논다.
- 피를 뽑은 다음에 '걸러대기'라 하여 물을 대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 일주일 정도는 논에 물을 대고, 다시 3~4일 정도는 물을 뺀다. 이런 걸러대기를 반복하는데, 이것은 벼이삭을 잘 여물게 하기 위함이다.
- 7월 초가 되면 감자를 수확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7월내에 상추, 오이, 담배 등을 수확한다.
- 7월 말부터 8월 초에 이르러 깨를 수확한다.

8월의 세시풍속

1) 추석

- 한가윗날은 큰 명절로, 차례를 지내며, 상차림은 보통 제사 때와 똑 같이 한다. 송편 속은 가장 맛있는 팥고물을 쓴다. 그리고 국은 소고기국을 끓이며, 토란국은 끓이지 않는다. (운곡면 위라리, 윤빈귀)
- 추석을 가위라고 하며,(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또는 중추절, 한가위, 보름명절이라고 한다.(목면 안심리 김재복)
- 추석날에는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갔다.(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추석날에는 차례를 지내고, 햇곡식으로 제사를 지낸다. 추수 전에 추석이 돌아오면 전에 추수했을 때 두었던 곡식으로 제사를 지낸다.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 추석에는 송편을 해먹는다. 송편 속에는 콩, 밤을 넣어서 만든다.(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 예전에 벌초는 8월 초하루에 했다. 특히 이 날에 하면 좋다고 한다. 요즘은 7월 말쯤 한다. 그때 일주일을 전후로 해서 한다. 요즘은 직장 때문에 거의 일요일에 벌초를 한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 추석 때에는 농사일이 바빠서 놀 수가 없다. 그러나 이날 풍장을 치기도 하였다. 추석에는 송편을 해 먹었는데, 속에는 참깨와 콩을 넣었다. 이 지방에는 만두가 거의 없다. 설날에는 떡국을 하고, 추석에는 송편을 해서 먹는다.

일반적으로 추석에는 수확이 어렵다. 한편 추석이 늦을 때는 올벼를 심지 않아도 된다. 올벼는 양력 9월 하순경에 이미 추수를 한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 추석 때는 풍장을 쳤다. (남양면 매곡리 1구, 최창호)

• 추석에는 햇곡식으로 송편을 하며, 토란국도 해 먹었다. (비봉면 신월리 1구, 조성매 외)

• 팔월 보름을 추석, 혹은 한가위, 중추절이라 하여 반달 모양의 송편을 만들어 조상님께 차례를 지낸다. 차례상에는 집안에 따라 다르지만 송편만을 놓는 집과 송편과 밥을 같이 놓기도 한다. 차례를 지내고 나면 성묘하러 가고 성묘를 갔다 와서 풍장을 치거나 씨름놀이를 하며 논다. (≪청양군지≫, 1995)

2) 친정 가기

• 추석날에는 어른들이 허락을 해서 며느리가 친정에 갈 수 있게 해주었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제 돌일 때(시집온 지 만으로 1년 되는 날) 친정에 가는데 제 돌은 시집을 온 만1년이 되는 달에 간다. (2월에 시집을 오면 다음해 2월에 친정에 간다.) 친정에 갈때는 치마나 신발 등을 깨끗이 빨아서 입고 가는데 버선도 1죽(10개), 인절미 한동구리, 엿도 한동구리를 가지고 간다.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 추석 무렵,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일가 친척의 부인네 들 사이에 반보기를 하는 풍속이 있다. 옛날 부녀자들은 외출이 자유롭지 못해서 만나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자주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8월쯤에 서로 통문을 보내어 일자를 정하고, 두 마을 중간에 있는 경치 좋은 곳을 택해서 서로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간다. 특히 친정어머니와 출가한 딸이 서로 보고 싶으나 시집살이가 심하여 기회를 얻지 못할 때에는 반보기를 한다.

양쪽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동안의 회포를 풀고 서로 음식을 권하며, 소식을 묻고 하루를 즐기다가 저녁에는 각기 집으로 돌아간다. 마치 요즘의 소풍 같은 것이다. 겨우 한나절 정을 나눌 수 있다는데서 온보기가 못되고 반보기라고 한 것이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3) 송편

• 고로는 생콩, 콩가루를 주로 넣고 밤을 넣었다. 깨는 옛날에는 넣을 수가 없었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송편을 해 차례상에 올린다. 밤, 콩, 녹두, 팥, 흑염자 등이 송편 속에 들어간다. 신곡(햅쌀)으로 쌀을 빚어서 송편을 만들어서 차례를 지냈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4) 목화꽃 눈 치료

• 8월 보름이면 목화꽃이 피는데 보름 직전에 피는 꽃을 따다 두었다가 정기(눈 뒤집어지는 것)날 때 효과가 있다. 종기는 느릅나무뿌리가 좋다.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5) 토주고사

• 대치면 광금리에서는 땅을 지켜주는 토주신을 위해 8월 추석 전날인 14일날 저녁에 보름달이 뜨면 제사를 지낸다.

장광에 짚을 깔고, 떡을 시루째로 갖다 놓는다. 술은 놓지 않고 떡만 준비하는데, 떡은 팥과 콩 등 마음대로 넣어도 된다. 북쪽으로 절을 두 번 반 하는데, 북쪽은 어른이라 하여 높은 방위로 친다. 1년 농사 잘 짓고 집안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빈다. 현재까지도 집집마다 다 위하고 있다. 기독교인도 하고 있으며, 절은 하지 않고 기도로 대신한다.

위하는 사람은 여자가 하며 시어머니와 며느리 중에서 한사람만 하며, 목욕재계를 한 깨끗한 몸으로 위한다. 부엌, 장광, 방 세곳에서 하는데, 장광 옆에 샘이 있을 경우 샘에서도 지낸다. 떡을 집안 곳곳에 떼어놨다가 추석날 아침에 가져다가 먹는다.(대치면 광금리 노광호)

6) 조왕고사

• 부엌에는 조왕신이 있다 하여 조왕신의 상징인 조왕단지를 모셔 놓고 1년 내내 물을 담아 두는데, 매일 맑은 물을 갈아 두는 집도 있으나, 대게 설·한식·추석에 갈아넣는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7) 8월의 세시놀이

(1) 가마싸움

• 가마싸움은 수시로 했는데, 사람 한 명을 태워서 싸우기도 했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2) 널뛰기

- 여자들은 널을 뛰었는데, 밤나무로 만든 넓은 판 위를 구르며 놀았다. 남자는 널을 뛰지 않고, 여자들만 뛰었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8) 8월의 생업세시

- 8월 초가 되면 올벼를 수확한다. 벼베기를 시작하기 약 보름 전에 논에 물을 뺀다. 따라서 논이 마른 다음에 벼베기를 시작한다.
- 8월 중순부터 고추를 수확하기 시작한다. 고추는 9월 초까지 계속 수확한다.
- 8월 말에 마늘을 파종한다.

9월의 세시풍속

1) 중양절 구일차례

- 삼짇날에 왔던 제비가 강남으로 떠나는 날이다. 중양(重陽), 또는 중구(重九)라 한다. 중구란 말은 9가 겹쳤다는 뜻이고, 중양이란 홀수인 숫자가 2개 겹쳤다는 뜻이다. 중국의 시인 도연명 때부터 시작된 풍습으로 술친구를 찾아가거나 술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 9월 9일 날은 농사가 잘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구일차례를 지낸다. 추수를 빨리 한 집에서는 햇곡식으로 하고, 추수를 못한 집은 묵은 곡식으로 차례를 지냈다. (남양면 구룡리 김동수)
- 9월 9일 날에는 '구일초'라 해서 아홉 개씩 아홉 번 엮어서 말린 풀을 약으로 썼다. 임산부에게 좋다고 한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9월 9일에는 구일차례라 해서 한식과 같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었다. 추석 때 차례를 못 지낸 사람이 구일차례를 지냈고, 추석 때 차례를 지낸 사람은 따로 지내지 않았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중양절에는 집집마다 산소에 가서 '구일차례'를 지낸다. 차례의

대상은 4대까지이며 집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차례는 한식차례나 구일차례 중 하나를 택하여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지역에서는 한식과 구일은 의미가 같다고 한다. (≪청양군지≫, 1995)

2) 술 담그기

(1) 솔주

- 조선 소나무의 솔잎과 솔방울로 술을 담는다. 솔방울은 대추만큼 켰을 때에 따고, 솔잎은 아무 때나 따서, 이것을 이용해 술을 담가 먹었다. (화성면 합천리, 이한숙)

(2) 국화주

- 국화를 꺾어다가 술을 빚는데 넣는다. 주로 황국(노란국화)만 쓰며, 국화를 따다가 말려놓았다가 담기도 한다. 국화주에 버가 속을 넣으면 머리가 아프지 않다고 한다.(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 각 가정에서는 국화꽃 잎을 따서 찹쌀가루와 반죽하여 단자를 만들어 먹는데 이를 국화전이라고 한다. 봄의 진달래 화전과 함께 계절 시식으로 빼 놓을 수 없는 국화전을 가을의 미각을 새롭게 한다. 또 술에 국화를 넣어서 국화주를 빚기도 하는데 그 향기가 일품이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3) 가을 씨름판

- 가을에 되면 인근 안심리에 장에서 씨름판이 벌어진다. 이 장은 철마장이고 하는데, 4, 9일장이다. 근래에 교통이 좋아지면서 이 장은 없어졌다. 씨름판이 벌어지는 시기는 추수 전이다. 이것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를 걸고 대개 5일 정도 씨름을 했다. 씨름하는 방법은 한사람이 질 때까지 계속해서 상대방과 붙는 방식이다. 따라서 대적할 사람이 없을 때까지 계속 한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다 대적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 우승한 사람에게 시장 번영회에서 내 놓은 소를 상금으로 준다. 씨름이 없어진 것은 한 40년쯤 되었다. 이때 여러 놀이패도 와서 놀았는데, 남사당패도 있고, 노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4) 소풍

- 9월은 단풍의 계절이다. 9월이 되면 푸르던 산과 들은 갖가지 색으로 곱게 물들어 누구라도 한번 찾아가 하루를 즐기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그래서 단풍이 좋은 산이나 명승고적지에는 많은 소풍객들로 붐비게 된다. 이러한 가을소풍의 풍속은 어제 오늘 시작된 놀이가 아니고, 먼 옛날부터 9월이 되면 글방의 학동들은 물론 노인, 청년, 부녀자들도 각각 모여 단풍과 명승지를 찾아가 음주와 가무로 하루를 즐겼다.

  특히 이때 선비들은 천자만홍의 단풍을 주제로 시를 짓고, 부녀자들은 내방가사를 읊었으며, 농부들은 농악을 울리며 즐겼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5) 9월의 생업세시

- 추수한 벼를 논바닥에 널거나, 볏단을 묶는다. 벼를 타작할 때에는 개상질이나 호전기 등으로 하였으나, 지금은 콤바인을 사

용해 동시에 타작과 동시에 이삭과 검불 쭉정이을 제거한다.

- 9월 초가 되면, 콩, 서석, 팥 등을 수확한다.
- 9월 중순에 밀을 파종한다.

10월의 세시풍속

1) 가을고사

- 운곡면 모곡리 노루목에서는 음력 10월에 가을고사를 지낸다. 새벽에 목욕제개를 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자식들과 가정을 위하여 빈다. 장광의 토주와 안방의 성주대신, 부엌의 조왕, 문간의 수문장, 마당 한복판 천도신, 변소에 떡을 갖다 놓는다. 떡은 쌀가루와 팥으로 케떡을 만들고 집안 구석구석에 두었다가 마을사람들을 불러 함께 먹는다. 물과 떡을 함께 올리고 탕국이라 하여 무수를 예쁘고 반듯하게 썰어 맑은 국을 끓여 올린다. 천도신은 천신과 구분하며 가정에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천도제를 올린다. (운곡면 모곡리 노루목마을, 송명구)
- 가을에 햇곡이 나면 좋은 날을 받아서 고사를 지냄. 주로 여자들이 지낸다. 먼저 장광 앞에 황토를 뿌리고 짚 깔고, 상 위에 시루떡, 물을 놓고 터주지신(장광)부터 위하고, 성주(방)을 위하고, 시루에서 떡을 떼어서 대문, 방, 장광, 굴뚝, 툇간, 화장실 등 집안 곳곳에 갖다 놓음. 부엌에서 떡을 찌기 때문에 따로 떡을 떼어놓지 않음. 금줄은 치지 않고 문 앞에 황토만 뿌린다. (운곡면 모곡리 김선녀)

- 대치면 농소리에서는 가을에 곡식을 수확하면 가을고사를 지낸다. 가을 떡은 내 몸이 깨끗할 때로 날을 잡는다. 떡은 팥시루떡을 한다. 이날 한 케떡은 물과 함께 성주와 토주 이외에 대문, 화장실, 뒤주, 큰 기계, 외양간 등에 갖다 논다. 장소를 옮길 때에는 떡부터 옮기고 물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갈아서 담는다. 물그릇은 하나로 계속 쓰고 올렸던 물은 마신다. 가을고사는 토지를 위하는 것이므로 유황을 모시지 않는다. (대치면 농소리 임춘재, 박신남)
- 수확을 다 한 후에 상달 고사를 지내는데 이를 '갈떡해 먹는다'라고 한다. 그러나 근래에는 거의 해먹지 않는다. 한 해 농사를 무사히 잘 지었다는 의미에서 가을떡을 해 먹는다. 떡은 팥을 넣은 팥시루떡으로 하는데 시루떡이 다 되면 시루를 떼지 않은 채로 놓고 청수를 부뚜막에 올려놓고 절을 하며 마음속으로 집안의 평안과 화평, 자손번창, 농사의 풍작을 기원한다. 이어 장광에 청수와 시루를 옮겨놓고 그 위에 '불쌀'을 올려놓는다. 부엌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기원을 한다. 다시 시루와 청수를 방으로 옮겨 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기원한다. 그렇게 한 후 화장실, 굴뚝, 대문 등 집안 구석구석에 떡을 조금씩 놓고 이웃집에 떡을 돌린다. (≪청양군지≫, 1995)
- 10월 초닷세부터 열흘 안에 고사를 지낸다. 1년 열두달 좋게 해달라고 하는데 시루떡을 해놓고 불밝히고 절을 한다. 장독에 놓고 절하고 나와서 대청에 놓고 절하고 방에 성주께 절하였다. 떡은 시루체 놓고 동태를 썰어 탕을 해서 놓는다. (화성면 합천리, 이한숙)

- 10월 상달에는 고사를 지냈다. 좋은 날을 잡아서 지낸다. (목면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 시월 중에 좋은 날을 택해서 집안이 편안하고 잘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안택을 한다. (≪청양군지≫, 1995)

2) 성주제, 성주고사

- 10월 상달이 되면 어느 가정에서든지 말날이나 길일을 택해서 성주에게 제사를 지낸다.

성주신은 가내의 안녕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으므로 특히 정성을 들여 햇곡식으로 술과 떡을 빚고 각가지 과일을 장만하여 성주제를 지냈는데 주로 가족의 평안을 기원했다.

이 성주제는 주부에 의해 간략하게 거행되기도 하지만 부잣집에서나 크게 하고 싶을때에는 무녀들을 초빙해서 굿을 하기도 한다. 지방에 따라 성주제를 성주굿·성주받이굿 또는 안택굿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도 시골에선 많은 가정이 성주를 모시고 있다.

함경도 지방에는 성주제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풍력제가 있는데, 성주가 아닌 단군에게 제사한다는 점이 다르다. 제주도에서는 십월만곡대제(十月萬穀大祭)라고 해서 신곡으로 제찬을 마련해 놓고 본향당신(本鄕堂神)에게 제사를 지낸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 정산면 송학리에서는 농사를 지낸 다음인 가을에 성주신를 모신다. 성주는 '삼만육천성주대신'이라 칭한다. 성주는 방에 모시는데, 종이(창호지)를 꽃처럼 오려서 쌀(1숟가락 정도)을 넣어

서 벽에 달아매어 놓는다. 1개만 놓는다. 추수한 후 첫 쌀을 떡을 해서 모신다.(정산면 송학리 이정순)

- 운곡면 모곡리에서는 가을에 농사를 지은 다음에 성주를 위한다. 위하는 시간은 저녁이며, 떡은 시루팥떡을 하며, 탕국을 끓여서 같이 놓는다. 떡은 시루째 부엌과 장광, 방으로 옮기며 3곳 이상에 갖다 놓고 위한다. 한편 밀가룰 개어서 벽에 던져서 붙여놓고, 감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불받이 쌀에 꽂아놓는 방법도 있다. 경을 읽는 사람이나 무당을 데려다 축을 읽기도 한다. 성주는 특별한 신체는 없다. 한번 정월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주를 위한다. (운곡면 모곡리, 유계순, 박상전, 김선녀)
- 대치면 농소리에서는 가을 떡을 하고 난 뒤에 때에 따라 경 읽는 이를 불러다 안택을 한다. 집 앞에 황토를 뿌리고 부정한 것이 접근 못하게 한다. 고사를 지낸 후에는 그 흙을 쓸어내고 사람들의 출입이 자유롭게 한다. 집안 남자들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써서 금줄처럼 늘여 붙여 놓는다. 안방의 성주께 떡시루를 올리고 물, 과일, 밥, 맑은 국, 돈, 초를 올린다. 점쟁이는 안방에 들어와 북과 꽹과리를 치고 경을 읽는다. 북은 시작할 때 먼저 치고 경을 읽으면 서는 꽹과리를 친다. 꽹과리는 밑에 짚을 말아 움직이지 말라고 십자로 괴어둔다. 북은 떡가루를 치는 채 위에 올려둔다. 안택은 저녁 먹고 시작해서 한 두 시경에 끝난다. 하루 저녁 점쟁이를 불러와 경을 일고 점쟁이에게 주는 비용은 십 만원 정도이다. 끝나고 나면 점쟁이는 사람들에게 간다는 인사를 하지 않고 제물로 올렸던 쌀과 돈을 가지고 조용히 나간다. 안택이 끝나고 난 뒤의 떡은 가족들이 나눠먹는데 집밖

에 키에 담아둔 떡은 다시 가져 들여오지 않는다. 밖에 둔 것은 길의 객귀들 먹으라고 놔둔 것이므로 집안에 다시 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날은 외양간에도 소가 잘 자라라고 성주에 올렸던 떡을 떼어다 놓는다. (대치면 농소리 임춘재, 박신남)

3) 조왕고사

- 정산면 송학리에서는 가을, 정월에 걸쳐 일년에 2번 조왕신에게 고사를 지낸다. 부엌은 밥해먹고 사는 곳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신을 모시는데, 이를 조왕신이라고 하며, '팔만사천제대조왕대신'이라 칭한다. 지내는 시간은 저녁 때이다. 떡시루, 물, 불받기(생쌀 1사발에 초를 꽂아서 불을 켜놓음)를 준비한다.(정산면 송학리 이정순)
- 운곡면 모곡리에서는 가을에 농사를 지은 다음에 성주와 함께 조왕도 위한다. 시간은 저녁이며, 떡은 시루팥떡을 하며, 탕국을 끓여서 같이 놓는다. 떡은 시루째 부엌과 장광, 방으로 옮기며 3곳 이상에 갖다 놓고 위한다. 정월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왕을 위한다. (운곡면 모곡리, 유계순, 박상전, 김선녀)

4) 터주고사

- 정산면 송학리에서는 농사를 지낸 다음에, 터주를 모신다. 터주는 장광(장독대)에 모신다. 성주와 같은 날 모시는데 성주보다 터주가 더 어른이므로 터주를 먼저 위한다. 떡시루와 불받기(생쌀 1사발에 초를 꽂아서 불을 켜놓음)를 준비한다.(정산면 송학리 이정순)

- 대치면 군량리에서는 가을에 추석 지나고 김장할 때쯤, 음력 10월 중순쯤에 터주를 위한다. 10월이 상달이기 때문이다. 날짜는 각 집집마다 좋을 날을 택일해서 한다. 특별한 명칭은 없고 "장광에 시루 해놔야지."한다. 떡은 케떡을 준비하는데, 팥과 찹쌀(맵쌀을 섞어도 됨)로 만든다. 하루 중 저녁때에 어두워진 다음에 하는데, 부엌, 장광, 방에 순서대로 위한다. 떡은 시루째로 올린다. 부엌에선 시루째 놓은 상태에서 청수를 떠다놓고 별다른 행위는 없으며, 장광과 방에서는 절을 하면서 집안과 자손들이 잘되라고 비손한다. 바닥에 짚을 깔고 시루를 놓고 청수를 떠다 놓는다. 시루 밑이 뚫려있기 때문에 뭔가를 까는 것이라고 하며, 꼭 짚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다 위하고 난 다음에는 떡을 떼어서 대문, 광, 굴뚝, 샘, 농기구, 변소 등에 놓는다. 지신들 먹으라고 떼어놓는 것이다. 30여분 정도 놔두었다가 걷어서 먹는데, 단 변소에 떼어 둔 떡은 먹지 않고, 기르는 가축이 있으면 가축에게 준다. 십여년 전부터 안하고 있는데 이유는 귀찮아서 그런 것과 동네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안하게 되었고, 지금은 절에 다니는 사람만 하고 있다.(대치면 군량리 윤승임, 조명순)
- 운곡면 모곡리에서는 가을에 농사를 지은 다음에 성주, 조왕과 함께 터주도 위한다. 시간은 저녁이며, 떡은 시루팥떡을 하며, 탕국을 끓여서 같이 놓는다. 떡은 시루째 부엌과 장광, 방으로 옮기며 3곳 이상에 갖다 놓고 위한다. 정월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터주를 위한다. (운곡면 모곡리, 유계순, 박상전, 김선녀)

5) 시제

- 10월에는 좋은 날을 잡아서 시제를 지냈다. (남양면 구룡리, 김동수)
- 시제의 대상은 5대조 이상의 조상으로 조상에게 후손들이 공동으로 지내는 제이다. 음식은 차례 음식과 유사하나 여기에서는 시루떡을 더한다. 시제는 남자들만이 참가한다. (≪청양군지≫, 1995)
- 10월에는 시제를 지냈는데, 날짜는 초종에서 보름까지 기해서 제일 높은 할아버지로부터 말 할아버지까지 시제를 지냈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10월에는 시제를 지냈다.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4대 조상까지는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지만, 5대 이상의 조상들에 대해서는 10월 15일을 전후하여 한번에 제사를 지내므로, 이를 시제 또는 시축, 시향이라고 한다.

시제 때에는 원근의 후손들이 모두 묘 앞에 모여 제를 지내며, 제물은 후손 중에서 만들거나 또는 묘소를 관리하는 산지기가 제실에서 세찬과 세주를 마련하여 집단으로 지낸다. 시제의 경비는 묘에 소속된 전답을 마련하여 그 수확으로 마련한다. 시제 때에는 많은 자손들이 모이는 것이 자랑이며, 묘자리가 명당일수록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전한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6) 김장하기

- 10월 말경에 김장을 담그는데, 따로 날을 잡는 것은 아니고 날이 좀 따뜻한 날에 동네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도와가며 담궜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입동 때 하는데 옛날에는 100포기이상 했다.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날은 이 집 저 날은 저 집으로 돌아가면서 김장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포기도 하지 않고 오가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 10월에 김장을 한다. 대개 음력 10월 15일경부터 한다. 김장에는 젓갈을 넣는다. 새우젓, 황새기젓을 푹 고아서 받아서 양념해서 넣고, 굴도 넣는다. 김장에는 동치미, 깍두기, 총각김치, 백김치, 짠김치를 담는다. 짠김치는 소금을 많이 넣어 하루 정도 절여서 담근 김치로 봄에 먹는다. 예전에 소금은 마을마다 다니는 소금장수에게 구입했다. 대개 봄과 가을 1번에 걸쳐 소금을 샀다. (비봉면 신월리 1구, 조성매, 명성옥, 김천수, 정풍자)
-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담그는 일을 김장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김치가 없어서는 안될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김장이 매우 중요하다. 김장은 입동을 전후해서 그 해의 일기에 따라 담그는 데, 무와 배추가 얼기 전에 해야 한다. 김장김치는 배추·무를 주재료로 하고, 미나리·갓·마늘·파·생강과 같은 향신미의 채소를 부재료로 하여 소금·젓갈·고춧가루로 간을 맞추어 시지 않게 겨우내 보관해 두고 먹는 침채류(沈菜類)의 하나이다. 김장김치는 5℃ 전후의 낮은 온도에서 온도의 변화 없이 익히고 저장하여야 맛이 좋고 변질되지 않으므로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통 김치광을 따로 두어 그곳에 김칫독을 묻고 짚방석을 만들어 덮는다. 짚방석을 덮는 풍습은 방한의 효과뿐만 아니라, 볏짚에서 잘 번식하는 김치의 숙성에 필요한 미생물을 번식시키려는 목적도 지닌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 11월 하순경에 김장을 한다. 남자들은 김장독 묻는 일을 해준다. 지금은 김장독을 묻지 않는다. 그리고 식구가 없기 때문에 김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김칫독을 몇 개를 묻었다. 김치 중에서 짠지라고 하여 봄철에 먹기 위해 짜게 담근다. 그리고 속에 장아찌를 넣는다. 이곳에서는 일반 배추김치를 짠지라고 한다. 그리고 무로 담은 것을 김치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깍두기는 이곳에서도 깍두기라고 한다. 그 외에 동치미, 백김치도 담가 먹는다. (목면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 김장은 양력으로 동짓달(음력 10월)에 담근다. 김장으로는 배추김치, 무김치, 겉절이를 담는다. 양념으로는 파, 마늘, 소금, 고춧가루, 젓갈(까나리젓), 생새우, 미나리, 갓, 무를 넣는다. 젓갈은 장에서 사온다. 김장은 땅에다 묻어 정월~2월까지 먹는다. (남양면 매곡리, 김점배)
- 김장은 양력 11월 20일 경에 해서 양력 3~4월까지 먹는다. 예전에는 대개 배추를 100여 포기로 담갔다.

  양념으로 무, 고추가루, 액젓, 갓, 파. 굴을 넣고, 젓갈로 멸치액젓이나 까나리액젓을 사용했다. 굴은 임시로 먹을 때 조금 넣어서 담근다. 한편 동치미에는 무, 파, 소금, 고추김치 담은 것

(고추향) 등을 넣는다.

젓갈은 청양장(2, 7일)에서 사온다. 김장을 담을 때에는 혼자 하는 경우나 딸, 며느리를 불러서 같이 하기도 한다. 특별히 품앗이를 하지는 않는다.

김장은 광의 플라스틱 통에 넣어 먹는다. 옛날에는 장독에 놓지 않고 부엌에 놓고 먹었다. (운곡면 위라리, 윤빈귀)

- 김장을 담는 시기는 음력 10월이며, 음력 2월까지 먹는다. 김치에 특별히 넣는 속은 없다. 대개 무수(무)만 넣으며, 젓갈은 멸치 젓국이나 조개 젓국을 사용했다. 동치미에는 무, 파 등을 넣어 먹었다. 김장을 땅에 묻으면 더 오래 먹으나, 제보자의 경우에는 묻지 않았다. (대치면 대치리, 강재금)
- 김장은 음력 10월에 담근다. 배추를 100포기 이상 담갔다. 양념으로는 무수(무), 고춧가루, 파, 조기젓국, 황새기젓, 새우젓(팔팔 끓여서 식혀서 넣음) 등을 사용했다. 새우젓은 팔팔 끓여서 식힌 다음에 사용했다. 김장을 할 때에 시어머니와 품앗이를 하였다. 김장은 광에다 들여놓고 먹었다. (청양읍 군량리, 조명호)

7) 손돌이추위

- 10월 20일을 '손돌이추위' 라 해서 그 해 겨울이 추운지 덜 추운지를 가늠했다. 이날 날이 추우면 그 해 겨울 날씨가 춥고, 이 날 춥지 않으면 덜 추운 것으로 생각해서 '핫것'이라는 솜으로 만든 옷에 들어가는 솜의 양을 따졌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10월 20일은 '손돌맹이 쥐날'이라고 해서 이날 추우면 겨울에

춥다고 했다.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 10월 20일은 손돌날로 날씨를 봐서 겨울 날씨를 점쳤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10월 20일에 관례적으로 불어오는 심한 바람을 손돌풍 또는 '손석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있다. 고려시대의 사공 손돌이가 임금이 탄 배를 저어 통진과 강화 사이를 가게 되었는데, 풍랑에 밀려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자 임금은 손돌에게 다른 뜻이 있다하여 그의 목을 베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로 이곳을 손돌목이라 부르며, 이날이면 해마다 으레 강풍이 심하게 부는데 억울하게 죽은 손돌의 원한이 바람을 되어 분다고 해서 손돌풍이라고 불렀다. 강화도 사람은 손돌풍이 불 때에는 배를 타지 않는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8) 무오(戊午) 말날(馬日)

- 10월 오일(午日)을 말날이라 하여, 특별히 말을 위하는 풍속이 있었다. 이날이면 팔떡을 해서 마구간 앞에 차려 놓고, 말의 무병과 건강을 비는 고사를 지냈다.

우리 민족은 가축 중에서 말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위했기 때문에 때로는 말을 위한 고사까지 지낸 것이다. 말은 옛날엔 가장 좋은 장거리 교통수단이었을뿐만 아니라 그 노동력을 농사일에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가축에 비해 영리해서 주인을 따랐으므로 말에 대한 당시의 풍속이 이해됨직도 하다. 조선시대의 ≪시용향악보(時用鄕樂譜)≫에는 마제(馬祭)때 부르던

노래인 군마대왕(軍馬大王)이 전해지고 있다. 10월 말날 중에서도 무오일(戊午日)을 상마일(上馬日)로 쳤는데 그것은 戊와 茂가 음이 같아 말의 무성을 기원하는 마음에서였으리라 믿어진다. 또 말날 중에서도 병오일(丙午日)때에는 고사를 지내지 않았다. 이 역시 丙과 病의 음이 같아 말의 병을 꺼려한 데서 생겨난 것이라고 믿어진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서문당 1999)

- 말날은 천왕 서낭이 천안 담부리는 날이다.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 10월 무오일에는 팥떡을 해 먹었는데, 장광이나 부엌, 화장실 등 여러 군데 곳곳이 놓았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9) 메주 쑤기

- 메주는 10월 또는 9월에 쑤어서 띄운다. 단 동짓달엔 쑤지는 않는다. 메주를 쑤는 방법은 솥에다 콩을 씻어서 넣고 종일 불을 때면 콩이 물렁물렁해 진다. 이것을 도구통(절구통)에 넣고 쪄서 메주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말려서 띄운다. 띄울 때에는 아무 것도 넣지 않고 그냥 따뜻한 방에다 띄운다. 잘 띄워서 안이 노랗게 되면 다음 해 2월이나 정월에 장을 담근다. (청양읍 군량리, 조명호)
- 메주는 10월 한달 동안 적당히 날을 잡아서 쑨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 메주는 음력 9~10월에 많이 쑨다. 메주는 겨울 내내 방에서 띄운다. (비봉면 신월리 1구, 조성매 외)

• 메주 쑤기 : 메주는 9~10월에 많이 쑨다. 메주는 겨울 내내 방에서 띄운다.(비봉면 신월리 1구, 조성매, 명성옥, 김천수, 정풍자)

10) 10월의 절식

• 10월의 별미로 만두국을 들 수 있다. 밀가루를 만죽해서 둥글납작하게 만든 다음, 고기와 야채를 다져서 넣고 싸서 장국에 끓인다. 때로는 만둣국에 밥이나 흰떡을 썰어 넣어 먹기도 한다. 10월에 가정에서 강정을 만들어 간식으로 먹는다. 찹쌀가루를 물과 술에 반죽하여 둥글거나 모나게 만들어 기름에 튀겨 꿀을 발라서 먹는다. 강정은 꿀을 칠한 위에 깨·콩·잣 등을 묻히기도 하는데, 그 묻히는 것에 따라 깨깡정·콩강정·잣강정 등으로 명칭이 모두 다르며 잔치 때에 많이 쓰인다. 또한 이때에 쑥을 뜯어 쑥국을 끓여 먹는 것도 별미이다. 10월에 들면 추위가 시작되므로 음식도 뜨거운 것이 환영받는다. 화로에 불을 피우고 전골틀을 올려놓고 쇠고기·달걀·파·고춧가루·마늘·당근 등의 갖은 양념을 넣고 지져서 먹는데 이것을 열구자탕 또는 신선로라고도 하며, 이렇게 먹는 것을 난로회(煖爐會)라고 한다. 열구자탕과 신선로는 잔치 때에 대개 마련한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11) 10월의 생업세시

• 10월 초에 가을보리 늦물을 파종한다.

• 10월 중순에 감자와 고구마를 수확한다.

• 10월 말에 파를 수확한다.

12) 10월 산신제와 장승제

- 운곡면 신대리 2구 도로뜸에서는 시월 초 이틀에 산신제와 장승제를 연이어서 지낸다.

산제는 밤 11시 정도에 지내고 장승제는 12시경에 지낸다. 비용은 동네의 논 9마지기가 있어서 수확물을 팔아서 동네기금으로 마련한다. 산신제에서 가장 중요한 제물은 돼지이다. 돼지를 잡아서 산제를 지내고 그걸로 마을 잔치도 한다.

예전에는 풍물치며 마을사람 다 올라갔는데 지금은 제관들과 짐꾼만 간다. 제물은 제관들끼리만 먹고 돼지는 다음날 가져온다. 산신님 드시라고 하루 두고 온다.

제의가 모두 끝나면 소지를 올리는데 소지는 산신소지, 마을 소지를 올린 후에 제관들 소지를 올린 후에 마을 사람들의 소지를 올리는데 대주만 올리는 게 원칙인데 다른 식구들의 소지는 소지값으로 5천 원~1만 원정도 내면 올려주며 외부에 나간 사람들의 것도 올려준다.

제를 지내기 3일 전에 오영산내끼(왼새끼)줄을 마을입구, 당, 축관, 제관, 도가네에 친다. 금줄에 종이, 숯검덩을 꽂아 놓는다. 도가네는 고기를 먹지 않는데, 마을 사람들도 조심을 한다. 제관이 오영산내끼를 만들어서 친다. 1주일동안 정성을 드린다. 산신제가 끝나면 마을회관에서 술 한잔하고 놀다가 노신제(장승제)를 지내러 간다. (운곡면 신대리 2구 도로뜸 이정순)

- 운곡면 모곡리 노루목 마을에서는 10월 초하루에 산신제를 지낸다. 산신당은 마을 뒤의 큰산 밑에 있다. 예전에는 산 중턱의 벌판에서 깨끗이 청소만을 하고 제를 올렸으나 지금은 제당을

지어 그곳에서 올린다.

당 안에는 위패가 모셔져 있고 위패에는 '월라산 산신지위'라고 한자로 적혀있다. 또한 음식을 차릴 때 쓰는 상과 그릇 등이 함께 보관되어 있다.

9월 31일 저녁에 산에 올라가 제를 올리고 다음날 아침에 남은 제물을 가지고 내려온다. 마을에 출산과 초상 등의 부정이 있으면 날을 연기한다.

노루목 마을은 현재 20여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의 산신제에는 마을 사람들의 종교와 무관하게 모두 참여하고 있다.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오래 전부터 노루목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며 산신제를 지내왔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마을의 산을 '월라산'이라고 부르며 월라산의 여신이 마을과 마을사람들의 안녕을 보살핀다고 이야기한다.

산신으로 여신이며, 제관은 그 해에 생기복덕이 닿는 이로 선정한다. 임원은 음식을 장만하는 화주와 제사를 올리는 제관, 축을 읽고 소지를 올리는 축관 세 명을 뽑는다. 이중 화주가 제의 총책임을 맡아 경비 등을 관리한다.

비용은 마을의 공동기금과 가구당 걷은 돈으로 함께 충당한다. 모시는 산신이 여신이므로 술은 올리지 않고 식혜를 올리며 소도 황소로 가려잡는다.

황소는 장에서 사오는데 이때 잡털이 없는 것으로 산다. 소를 잡는 것은 제를 지내는 당일에 제당 앞에서 잡는다. 소를 잡는 사람은 마을 밖에서 잡을 줄 아는 이를 따로 불러온다고 한다. 잡은 소는 가죽만 벗기고 각을 쳐서 그중 한 부분을 올린다. 잡

은 소의 부분으로 탕을 끓이는 데에도 사용한다.

제의 절차를 보면, 9월 그믐날에 산에 올라가 우물을 청소하고 소를 잡고 제물을 올린다. 그 날 늦은 시간에 임원으로 뽑힌 제관, 축관, 화주 세 명만이 제사를 올린다. 축관이 축을 읽고 소지를 올린다. 축은 매년 축관으로 선정된 사람이 새로 쓴다. 절을 하고 축을 읽고 소지를 올리는 것으로 절차가 끝나면 제관들은 그 날 저녁을 당에서 묵는다. 다음날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올라와 제를 지내고 남은 밥과 탕으로 식사를 하고 부녀자들이 그릇을 치우고 제물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간다. 축관이 마을 사람 각각 모두의 소지를 올린다.

제물의 구입에 드는 경비는 일체 화주가 관리하고, 제를 끝나고 그 이튿날 결산을 보며, 사용한 비용을 공개한다. (운곡면 모곡리 노루목마을, 송명구, 김선녀)

11월의 세시풍속

1) 동지(冬至)

- 11월 중에 천세력에 정해 있는 동지가 있다. 하지는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데 비하여,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데 비하여,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11월을 가리켜 '동짓달'이라고 할 만큼 이 달의 동지는 유용하다. 또한 동지를 악세 혹은 작은 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옛날에 동지를 설로 삼았던 데서 나온 말이며 민간에서는 흔히 팥죽을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은 것으로 쳤다 한다. 동짓날 부적으로 액자를 써서 거꾸로 붙이면 악귀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동짓날 일기가 온화하면 다음해에 전염병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며,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우면 풍년이 들어 대길조라고 점친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2) 동지팥죽

- 노동지에는 팥죽을 해먹고, 애동지 때는 팥떡을 해 먹었다. 팥죽을 집 밖 여기저기에 뿌려놓아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남양면 구룡리, 김동수)

- 동지 때는 팥죽을 쑤어 먹는데, 애동지 때는 아이들이 많이 죽는다해서 팥죽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동지 때 팥죽을 먹는데, 애동지 때는 애들이 많이 죽는다해서 팥죽을 하지 않고 떡을 해먹는다. 떡은 각자 먹고 싶은 것을 해 먹었다고 한다. (운곡면 모곡리 김경혜, 최병희)
- 동짓날 팥죽을 해먹었다. 집안에 안택하는 시기로, 동지를 해가 바뀌는 시기로 본다. 그 집의 잡귀가 어디가 약한지 보고 내미는 시기로 팥죽을 뿌려서 액을 막는 것이다. 집 안팎으로 추녀 안에는 다 뿌린다. 애동지 때는 팥죽을 쑤지 않고 팥떡을 해먹는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동지 때는 팥죽을 쑤어 먹는다. 애동지 때는 팥죽을 먹지 않는데, 재수가 없다고 한다.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 동짓날 솔잎으로 팥죽을 해서 먹으며, 구신(귀신)없애기 위해서 한다. 팥죽을 뿌리면서 '백 가지 농상'(100가지 모두 없어져라)이라고 말한다.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
- 11월 동지에는 팥죽에 새시미(새알심이)를 넣어 팥죽을 끓여 먹는다. 애동지때에는 팥죽을 먹지 않는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 동지가 초순에 드는 소동지에는 팥죽을 해먹지 않았다. 중동지는 중순, 노동지는 20~30일 사이에 들 경우이다. (남양면 매곡리 1구, 최창호)
- 동지에는 팥죽을 쑤어 먹었는데, 속에 새알심을 넣어 끓인다. 애동지에는 팥죽 쑤어 먹으면 애들이 죽는다고 하여 팥죽 대신

에 시루떡을 해 먹는다.

중동지에는 팥죽을 쑤어 솔잎으로 찍어서 담벼락에 바르고 동서남북에 뿌리기도 한다. 곧 팥죽을 바가지에 퍼서 저녁에 시간을 맞추어 뿌린다. 이 일은 집안에서만 뿌린다. 이것은 집안에 아무런 일이 없고 잡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비봉면 신월리 1구, 조성매 외)

- 동짓날에 팥죽을 쑤거나 떡을 쪄서 먹는다. 동지는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가 있는데 애동지 때에는 팥죽을 쑤지 않고 떡을 해먹는다. 그리고 노동지에만 팥죽을 쑤어 먹는다. 애동지에 팥죽을 해먹지 않는 것은 이날 팥죽을 쑤면 아이가 죽는다고 한다. 팥죽을 쑤면 팥죽 속에 있는 새알심을 나이 수대로 먹는다.

이때 해마다 시간에 맞춰 팥죽을 쑤어 먹으면 더욱 좋다고 하고 팥죽은 마귀를 쫓는다 하여 팥죽을 마당이나 벽, 대문에 뿌린다. 집안에 따라서는 방안에도 뿌리기도 한다. 팥죽을 뿌리면서 "잡귀 잡신 물러가라"고 한다. (≪청양군지≫, 1995)

- 동짓날에는 어느 가정에서나 팥죽을 쑤어 먹는다. 팥을 삶아 으깨거나 체에 걸러서 그 물에다 찹쌀로 단자를 새알만큼씩 만들어 죽을 쑨다. 이 단자는 '새알심'이라고 한다.

동지팥죽은 먼저 사당에 놓아 차례 지낸 다음, 방과 마루, 광에 한 그릇씩 떠나 놓으며, 대문에나 벽에 팥죽을 수저로 뿌리고 난 후에 먹는다. 이것은 팥죽이 액을 막고 잡귀를 없애 준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 팥죽은 이 밖에도 화를 막기 위한 주술로도 쓰이거니와 고대 중국의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즉 홍강이란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동짓날에 죽어 역귀가 되었다. 그

런데 이 역귀는 팥을 무서워했고 동짓날 죽었으므로 이 날에는 팥을 쑤어 귀신을 쫓는 풍속이 생겼다고 한다. 이밖에도 팥은 그 색이 붉어 축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잡귀를 쫓고자 할 때에 사용되고 있다. 또 팥죽을 동네에 있는 고목에도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 액을 막기 위한 하나의 축귀 풍습이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 팥죽은 끓이지 않는다. 예전에 시어머님께서 끓였으나, 한번은 아기 엉덩이를 덴 다음에는 팥죽을 하지 않았다. (운곡면 위라리, 윤빈귀)

3) 메주 띄우기

- 양력 12월쯤에 달았던 메주를 떼서 띄운다. 내놨다가 식혀서 팔맹이(곰팡이)가 난 것을 깨끗이 씻어서 말린다. (운곡면 위라리, 윤빈귀)

4) 11월의 절식

- 겨울철 음식으로 냉면이 있다. 냉면은 메밀로 국수를 하고 김칫국물에 무김치, 돼지고기, 배, 삶은 계란 등을 넣어 먹는데 차게 먹는 것이 특징이다.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 뜨거운 것을 먹는 것이 상식이나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 영하의 추운 날에도 냉면을 먹는 것을 별미로 알았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 겨울에는 고구마를 많이 먹는데, 특히 불에 구어서 군고구마로 많이 먹었다.(비봉면 신월리 1구, 조성매 외)

5) 11월 산제

- 운곡면 위라리 1구의 산제 : 위라리에서는 11월 1일에 산제를 지낸다. 산제당은 뒷산 텃골에 있다. 마을에서 산쪽으로 약 20여분 들어가서 위치해 있다. 예전에 당은 초가집에 흙벽으로 된 1칸 정도의 크기였다. 처음 지은 시기는 불분명하며, 1997년에 개축하였다.

예전에 산신제는 음력 11월 1일에 지냈으며, 성황제는 정월 보름에 지냈다. 그러나 지금은 11월 1일에 통합해서 하루에 모두 지낸다.

화주는 1명이고, 근래에는 음력 10월 20일에 선정한다. 화주에 뽑히면 집에 금줄을 친다. 그리고 3일 전부터 목욕재계하고, 기도를 드린다. 한편 축관을 1사람 뽑는다. 제관은 엄격하기 때문에 나이를 따지지 않고, 결혼만 하면 화주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보자도 30대에 제관을 한 적이 있었다.

제물로 해방 직후인 약 55년 전에는 소를 통채로 올린 적도 있다. 6. 25 이후 어려울 때에는 소머리만 사용한 적도 있다. 일제시대에는 돈이 없어서 흑염소도 사용했다. 근래에는 주로 흑돼지를 사용하는데, 돼지는 11월 1일 날 오전에 잡아서 오후 5경에 올린다.

제의 과정를 보면, 산제는 화주가 3일전부터 목욕재계하고, 3일간 기도를 드린다. 산제에는 화주, 축관, 돼지 잡는 사람을 합쳐 4사람이 올라간다.

절은 4배씩 3번 한다. 화주가 먼저 4배한 다음에 집에서 만든 식혜를 올린다. 이곳에서는 전통적으로 술은 사용하지 않는다.

술을 산제당 뒤의 바위에 붓고 다시 잔을 올리고, 축을 3번 읽는다. 그리고 4배한 다음에 소지를 한다. 소지는 축관이 하는데, 각 집안의 세대주 한사람씩 올린다. 25년 전까지는 마을 주민들 모두 소지를 올려주었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세대주 한 사람만 올리는 것으로 바꾸었다. 만약 세대주가 여자면 올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화주, 축관이 4배한 다음에 끝낸다. 근래에는 100여명의 소지를 올리느라 3시간정도 소요가 되어, 거의 9시가 되어서 끝난다.

제사가 끝나면 떡과 과일을 가지고 내려온다. 그리고 다음 날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점심을 함께 먹는다. (청양군 운곡면 위라리 1구, 장인환)

12월의 세시풍속

1) 납일과 납향

- 납일날 바람이 불고 눈이 심하면 쥐구멍에 눈바람이 들어가 그 다음해 풍수가 심하다고 한다. 납일 눈이 오면 그 눈을 가지고 떡국을 해먹으면 몸에 좋다고 했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동지로부터 세 번째 미일(未日)인 납일에 그 해의 농사 형편과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신에게 고하는 제사를 납향이라고 한다.

납일 밤에 농촌에서는 새잡기를 하는데, 서너 명의 청소년이 패가 되어 그물을 가지고 어두운 밤에 새가 사는 지붕 추녀를 찾아다니며 새를 잡는다. 그물을 새 구멍있는 추녀에 대고 막대기로 추녀를 호되게 치면 새가 놀라 나오다가 그물에 걸린다. 또 새가 많이 자는 숲에 가서도 이렇게 해서 잡는다. 납일의 새고기는 맛이 있을 뿐아니라 아이가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납일에 새를 잡으려고 애를 쓴다.

그리고 이날 내린 눈은 약이 된다고 해서 곱게 받아 독에 담아 두기도 한다. 눈 녹은 물을 두었다가 김장독에 넣으면 맛이 변하지 않으며, 의루와 책에 바르면 좀을 막을 수 있고 한다. 또한 그대로 두었가 환약을 달일때 쓰기도 하고, 눈을 씻으면

안질에도 걸리지 않을 뿐 아니라 눈이 밝아진다고 한다. 옛날에는 납일에 궁중의 의약국인 내의원에서 환약을 만들어 헌납했으며, 나라에서는 사신에게 나누어주었다. 이 날 엿을 고기도 하는데 설탕이 없던 옛날에는 당분을 엿에서 얻었으니 엿을 만드는 일도 매우 중요했다. 밤에 엿기름 물을 부어 삭힌 다음 겻불로 밥이 물같이 되도록 끓인 뒤에, 그것을 자루에 넣고 짜낸 다음 다시 끓여서 식히면 굳어져 엿이 된다. 엿을 고기 시작하면 이튿날 새벽에 완성된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2) 첫눈

- 첫눈 내린 것이 두통에 좋다고 한다. 첫눈을 받아서 국수를 해 먹었다. 제보자는 직접 하지는 않고 그렇게 듣기만 했다고 한다. (운곡면 모곡리 김경혜, 최병희)

3) 참새잡기

- 12월 겨울이 되면 참새를 잡아 구어 먹었다. (남양면 구룡리, 김동수.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겨울에 참새가 일년동안 많이 주어먹어서 살이 찌고 맛이 좋다고 해서 잡아먹었다. 특히 납향날에 많이 잡아먹었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섣달 그믐날 밤에 새를 잡는다. 겨울철 새고기는 맛이 진미이며. 특히 제석의 새고기는 약이 된다고 해서 농가에서는 제석에 새잡기를 한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4) 제석일

(1) 잠 안 자기

- 잠을 자면 눈썹이 희게 된다고 하며 자는 아이들에게는 흰색으로 칠한다.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 그믐날에는 대문을 열어놓고 불을 밝히고 밤을 새었다. 음식장만을 하고 대청소를 하였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섣달 그믐날에는 밤에 잠을 자면 안 된다. 가정에서 그 해 이루어진 것을 그 해 해결한다는 의미로 돈이나 곡식 등을 빌리거나 빌려준 것을 갚고 받는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그믐날에는 묵은세배를 하고, 밤새 불을 밝혀 놓는다.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 섣달 그믐날 방·뜰·부엌·문·화장실 등 집안 구석구석에 불을 밝혀 놓고,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우는데 이것을 수세라고 한다. 불을 밝히는 것은 잡귀의 출입을 막는데 있으며, 부뚜막 솥 뒤에도 불을 밝히는데 조왕신은 12월 25일에 말미를 받아 천제에게 가서 1년 동안의 자기 집일을 모조리 보고하고 그믐날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한다.

이 날 밤을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밤 늦도록 윷놀이·옛날이야기·얘기책 읽기 등 흥미있는 놀이로 시간을 보내며 잠자기 않으려고 애를 쓴다. 잠자는 아이가 있으면 눈썹을 흰 가루를 묻혀 두고 설날 아침에 눈썹이 셌다고 놀려준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2) 빚 청산하기

- 섣달그믐이 되면 한해동안 빌려준 물건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내 물건을 남의 집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안 된다고 한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1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0일을 '섣달 그믐'또는 '제석', '제야'라 불기도 한다. 연중에 있었던 거래의 종결을 맺으니 빚이 있는 사람은 해를 넘기지 않고 이날에 모두 청산을 한다. 그래서 남에게 받을 빚이 있거나 물건값의 외상이 있는 사람은 이날 찾아다니며 받아야 하며 만일 자정이 넘도록 받지 못한 빚은 하는 수없이 정월 보름까지는 독촉을 못하고, 받을 수 없게 된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3) 묵은 세배

- 설날 전날에 묵은세배를 한다.(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섣달그믐에 가족들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음식을 장만한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 섣달그믐날을 '제석' 또는 '납향'이라 하여 자식들은 한 해를 마감하는 의미에서 부모님께 '묵은 세배'를 한다. 또는 엿을 고아 먹는다. 이 엿은 보통 때처럼 수수와 엿기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약초와 곡류를 고아서 만든 것으로 약으로 사용한다. 이날은 또한 설 준비로 인해 분주하게 보낸다. (≪청양군지≫, 1995)
- 섣달 그믐날 저녁에 사당에는 절을 하고, 설날 세배하듯이 어른에게 절을 하는 것을 묵은 세배라고 한다. 1년의 마지막 순간에 이 해도 무사히 다 지나간다는 인사를 드리는 것이며, 조상의

산소에 성묘도 한다. 이 날 밤에는 늦도록 초롱불을 밝히고 묵은 세배꾼들이 골목길을 누빈다. 이때는 김, 북어, 고기 등을 갖고 간다. 평시에 나라에서는 백성에게 세 가지를 금했는데 주금, 송금, 우금이 있다. 그러나 세모나 정초에는 세찬이나 차례에 쓸 육류 때문에 잠시 우금을 해제한다. 조선의 고기 요리는 쇠고기를 으뜸으로 여겨 쇠고기 요리가 많다. 설놀탕(설렁탕), 족편, 돼지고기찜 등이 있다.(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4) 대청소

- 주부들이 세찬을 만들 때에 남자들은 집 안팎 대청소를 한다. 실내 청소는 부녀자가, 집 주변의 청소는 남자가 한다. 높은 곳은 깎고 , 얕은 곳은 메우며, 외양간도 치우고, 거름도 퍼내서 설맞이 준비를 하는 것이다. 묵은 해의 잡귀와 액은 모두 물러가고 신성한 가운데 신년을 맞이하려는 마음의 준비이다. 옛날 궁중에서는 난복이라 해서 진자 수집명의 의식을 갖춰 축귀를 했으며, 각 가정은 대청소로 축귀를 한 셈이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5) 12월의 산신제

- 정산면 천장리의 산제 : 천장리에서는 12월 마지막 날에 산신당에서 산제를 지낸다. 산신당은 상탕, 하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당의 형태가 아닌 제단의 형태로, 산신당에는 위패도 없고, 그림도 없고, 장소만 정해져 있다.

  산신제는 음력 12월 말일 저녁 10시 30분경에 지내는데, 이날

은 설날 전이라, 외부인이 오지 않아서 부정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 택일은 "산신하강일"이라고 하여 산신이 내려오는 길일을 봐서 잡는다. 동계장, 이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등이 모여서 정한다.

제관은 12월초에 동계장, 이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등이 모여서 택일한다. 산신 내려오시는 길일이라 하여 책을 보면서 택일한다. 생기복덕이 제일 좋은 사람으로 선정한다.

제관과 화주는 합쳐서 3명을 선정하는데 화주는 2명으로 상당, 하당을 따로 뽑으며, 제관을 뽑는데 축은 없다. 제관으로 선정이 되면 외지출타를 하지 않는다. 근신 기간은 1주일이며 회관에 있는 농기를 화주네 세우고 금줄을 드린 후에 산에서 퍼온 황토를 뿌려둔다. 집안에서 정성을 드리는데 예전에는 얼음목욕재계를 하였고, 술, 담배, 비린 고기, 고기는 먹지 않는다.

제관들도 기를 꽂아놓지는 않지만 마음으로는 똑같이 정성을 들인다. 옛날에는 추위에도 얼음을 깨고 목욕을 했다고 하나,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술, 담배도 끊고 비린 음식, 고기 등도 일절 금한다. 이 때는 농한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일이 없어서 출입을 제한하여도 상관없다.

동네 입구에는 금줄을 쳐둔다. 외지 사람들에게 이 동네가 지금 정성을 들이는 시기임을 알려주어, 외지 사람 특히 부정한(상을 당한 사람 등) 사람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였다. 황토도 같이 뿌린다. 황토는 산에 깨끗한 산자락에 가서 퍼다 놓는다.

외부인이 모르고 들어올 경우, 동네 사람이 얘기를 하여 나가도록 한다. 외부인은 무조건 참여를 못한다. 요즘 방송국 등에

서 촬영을 요구하였으나 외지인, 특히 여자와 총각은 절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제물은 동네 주민들(동계장, 이장 등)이 시장에 가서 장을 본다. 시장 보러 가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상을 당한 사람, 부인이 임신을 한 사람, 시신을 본 사람 등)은 제외되며,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참여하지 않는다. 특별히 지정해 놓은 가게는 없고, 장을 보러 간 사람들이 봐서 좋은 물건으로 고른다. 장을 볼 때에 특별한 금기 사항은 없고 제사에 올릴 물건에 맞추어 사기만 하면 된다.

제사음식으로는 비린 것(생선)은 쓰질 않는다. 과일과 동네에서 농사지은 쌀로 한 떡, 밥, 그리고 고기는 돼지를 쓴다. 돼지는 산 놈을 끌고 와서 화주 집 앞에서 제사 당일에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부정한 사람은 제외) 준비를 한다. 통돼지를 통째로 제물로 쓰는데, 내장 같은 것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깨끗이 닦아서 전혀 빼놓거나 삶지 않고 그대로 다 넣어서 제물로 쓴다. 미역과 김도 쓰는데, 이는 비린 음식으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제물로 사용한다. 미역과 김을 올리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옛날부터 제물로 함께 사용하였다.

과일은 삼색실과로 깎지 않고 그대로 올린다. 떡은 백무리를 쓴다. 장승제 때는 채떡(고물 넣은 떡)을 올린다.

술은 집에서 제사 지내기 일주일 전에 빚어 놓는다. 결국 화주는 제사 날짜 정해지고 화주 집앞에 금줄 치면 바로 하는 일이 술을 빚는 일이다. 술은 예전에 누룩으로 빚었으나, 지금은 쌀만 이 동네에서 나는 걸로 하고 담그는 재료는 거의 사다가

한다. 포는 북어포를 쓰는데 말려서 쓰므로 비리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통돼지를 그대로 잘 잡아서 깨끗이 잡아다 산신당에 가서 제사를 다 지내고, 장승 있는 곳에까지 가서 거기서 또 제사를 지낸다.

음식 준비는 화주의 집에서만 이루어지는데, 화주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깨끗한 사람들이 가서 같이 마련한다. 장승제 음식은 산신제 음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따로 마련해야 한다. 결국 상탕, 하탕, 장승제 세 곳의 음식을 준비한다. 단, 돼지만 두 번 사용한다. 돼지는 상탕에서는 쓰지 않고, 하탕에서만 쓰며, 그 돼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장승제에서도 사용한다. 상탕, 하탕은 제사를 제관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같이 지낸다. 장승제는 상탕 제관, 하탕 제관, 화주 그렇게 셋이 다같이 지낸다.

제사 음식은 상탕, 하탕에 조금씩 떼어놓는데, 산신제에서는 산신님 잡수시라고 떼어놓고, 장승제에서는 노신님 잡수시라고 떼어놓는 것이다. 모든 음식을 고루고루 다 떼어놓으며, 바닥에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백지 위에 올려서 놓는다. 상탕과 하탕 각각 똑같이 떼어놓는다.

제사 지내는 시간은 저녁 먹고 채비해서 올라가면 밤 10시 반 정도이다. 제사는 술 석 잔 올리고, 세 번 절하고,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제관이 올리는데, 상탕, 하탕, 장승제 이상 세 군데에서 동네 전체 호수가 40여 호가 넘는데 그 수만큼 각각 다 올

린다. 소지를 올리는 순서는, 산에 가서는 산신님 소지를 제일 먼저, 장승제에서는 노신님 소지를 가장 먼저 올리며, 사람 소지 중에서 제일 처음 올리는 사람은 동네에서 가장 연장자를 올린다. 여자는 올리지 않는다. 그리하여 소지 올리는 순서는 산신님(장승제에서는 노신님), 화주, 제관, 연장자 순서로, 상탕, 하탕, 장승제 이상 세군데에서 똑같은 순서로 올린다.

결산은 그 이튿날 제사 다 지낸 후에 이루어진다. 현재 43호가 남아서 제사를 지낸다. 제사 지내는 비용은 동네에서 호당 만원정도를 걷는다. 현재 43호 정도라 모자라는데, 부유한 집안도 있고 면장 등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제가 끝나는 날 결산하고 돼지를 삶아서 먹으며 논다. 결산하고 농악놀이, 윷놀이를 한다.

산신제와 관련되는 설화가 전한다. 산신제를 지내는 날짜를 잡고 준비하는 도중에 동네에 초상이 났다. 그렇다고 해서 산신제를 미룰 수도 없고 해서, 산신제는 산신제대로 지내고 초상난 집도 상을 치렀다. 그런데 노인 양반들이 산신제를 지내고, 칠갑산이 세 번 울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천둥 울리듯이 산이 울었다고 한다. 그 뒤부터는 더욱 정성 들여 올려야겠다고 동네사람들이 느꼈다. 이 동네에서는 새로 이사온 사람들도 이 산신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감을 갖지 않고 협조해준다. (정산면 천장리, 이해선)

- 화성면 구재리 3반의 산신제 : 화성면 구재리 3반과 2반은 산신제를 12월에 손 없는 날을 잡아 지낸다. 날짜는 원각사 스님이 잡는다.

산제당은 마을 위쪽에 있는 산 근처에 있다. 2003년부터는 마을 위쪽에 새로 지은 원각사 산신각에서 제를 지낼 예정이다.

제의를 지내는 시간은 저녁 5시 정도 어둑어둑해지면 제물을 가지고 올라간다. 제관의 선출은 동지섣달에 동네 반계를 통해서 남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정성을 드리는 3~4명을 선출한다. 제관으로 선출이 되면 부정하지 않도록 정성을 드린다.

제비 마련은 마을에 계가 있어서 그것으로 대신한다. 15년 전까지는 걸립을 했으나 현재는 반계라고 해서 그것을 제비로 사용한다.

제일 저녁 5시정도 어둑어둑해지면 올라가는데 주당만 올라가서 하며, 다른 사람들은 밑에서 기다린다. 제물을 진설하고 절을 한 후에 술을 올리고 소지를 올리는 순이며, 축은 없다. 소지는 호주만 올린다. 제 지내는 동안에는 마을 전체가 정숙하며, 제 지내기 전에도 정숙한다.

제를 지내는 기간에는 음식을 가리는데 고기는 절대 먹지 않는다. 예전에 마을 사람 중에 산제당 주변에 산소를 쓰려 했으나 동네 사람들의 여론 때문에 쓰지 못하였으며, 산제당 주변에는 부정하지 않게 항시 깨끗하게 한다. (화성면 구재리 3반, 이해준)

윤달의 세시풍속

- 윤달에 아무 탈이 없다고 해서 묘 이장을 하고, 집수리를 하고, 수의를 짓는다. 지금은 상을 당하면 전화 한 통화로 쉽게 수의를 구할 수 있었으나, 예전에는 그렇지 못하여, 윤달에 미리 수의를 지었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 윤달에 수의를 해 입었다. (남양면 매곡리 1구, 최창호)
- 윤달은 4년에 한 번씩 돌아와 이것이 끼면 그 해는 1년이 13개월이 된다. 이 달은 '손 없는 달'이라 하여 집수리나 이장 등을 하고, 수의(상옷)를 만든다. (≪청양군지≫, 1995)
- 수의는 자신의 것을 자신이 직접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웃의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 이웃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 윤달이 지나가 전에 완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의는 자신의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에는 만들 수 없었으며, 자신이 집안의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수의를 제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수의는 일반적인 옷보다 크게 만드는데, 이는 주검이 딱딱하게 굳어서 수의를 입히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수의의 보관은 상자 등에 넣어서 집안 깊숙한 곳에 잘 보이지 않게 한다. (≪청양군지≫, 1995)
- 수의는 자신보다 어른이 살아 계시면 수의를 만들 수가 없다. 여

자는 명주로 만든 원삼까지 입힌다. 제보자의 할머니도 신부들이 입는 원삼을 입혀 드렸다. 수의는 윤달에 만들면 좋으며, 형편대로 만든다. 수의는 예전에는 하나하나 따로 입혔는데, 지금은 쉽게 하려고 한꺼번에 껴서 입힌다. (비봉면 중묵리, 이용희)

- 윤달은 평년보다 한 달이 더 있는 달로 공달이라고도 하며, 속담에 송장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고 할 만큼 무슨 일을 해도 지장이나 부작용이 없는 달이다. 또 집수리·이사 등에도 지장이 없으며, 혼례를 올리고 수의(壽衣)를 만들어 놓으면 좋다고 한다. 따라서 부정이나 액을 타는 일은 이 달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가 많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 윤달을 '가외달'이라고도 했다. (남양면 구룡리, 김동수)
- 윤달을 "군색 들었다"고 하고 이때 수의를 만들었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최종기)
- 윤달은 거저 생긴 달로, 동티가 없는 달이라 해서 집수리도 하고 무덤도 고친다. 결혼은 하지 않는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제보자 명단

◆ 화성면

- 화성면 광평리, 김진섭(남, 65세, 보령 출신, 3살 때 이주, 산제계장.), 2001. 7. 25, 서종원, 송지영 조사.
- 화성면 홍산1리 통뫼 마을, 오하영(남, 83세, 신왕리 태생, 11살에 홍산리로 이주함, 화주 3번 지냄), 2002. 7. 24., 송지영, 김현경 조사.
- 화성면 매산리 산동 3반, 최희선(여, 72세, 청양면 출생), 김순(여, 74세, 19세에 화성면에서 시집 옴), 2002. 7. 24., 송지영, 김현경 조사.
- 화성면 매산리 산동마을, 조성진(남, 70대, 6~7대), 서상득(남, 57세), 신순자(여, 52세), 안건식(남, 59세), 조영행(남, 57세), 2002. 7. 24., 이동아 조사.
- 화성면 구재리 3반, 이해준(남, 57세, 구재 3반 현 이장, 매산리에서 4대째 거주, 구재리 3반으로 15년 전에 이사옴), 2002. 7. 24., 이동아 조사.
-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남, 79세, 3대), 조병철(남, 79세, 4대), 최종기(남, 79세, 10대), 2002. 7. 24., 최지연, 오애정 조사.
-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남, 68세, 12대째, 이영순 할머니의 아들) 2002. 7. 25, 오애정 조사.
- 화성면 합천리, 이한숙(여, 77세, 942-4531), 2002. 7. 25, 최지연

조사.

• 화성면 불물리 이영순(여, 89세, 보령군 청남면 16세에 시집옴), 2002. 7. 25, 최지연 조사.

◆ 청남면

• 청남면 왕진리1구 원왕진(元王津), 김정운(남, 67세, 농업, 2대 거주, 경주 김씨, 다수의 유사 경험이 있으며, 올해에도 유사를 역임함. 불교, 부친이 평택에서 이주), 2001. 7. 28. 제보자의 집, 정형호, 서종원 조사.

• 청남면 왕진리 1구 창현마을, 김용구(남, 65세, 광산 김씨, 14대 거주), 2001. 7. 28., 마을의 공동샘 옆, 정형호, 서종원 조사.

• 청남면 동강리 한호분(여, 66세, 인양리 출신, 시집은 22세때), 2001. 7. 28., 김혜연, 이동아 조사.

• 청남면 동강리 윤치순(남, 64세, 동강리 출신, 15대째(오백년가량) 거주한 토박이), 2001. 7. 28., 김혜연, 이동아 조사.

• 청남면 동강리 김방순(여, 67세, 부여면 송관리 출신, 시집은 19세때, 연락처: 942-7575), 2001. 7. 28., 김혜연, 이동아 조사.

• 청남면 상장 1리, 우성림(남, 58세, 3대 거주, 새마을 지도자, 6남매, 942-7252), 마을 정자나무, 2001. 7. 28 , 홍정모, 김선숙 조사.

• 청남면 천내2리, 전철규(남, 85세, 담양 전씨, 17대째 거주, 아들이 이장), 2001. 7. 28., 김혜연, 이동아 조사.

• 청남면 인양리, 김명하(남, 63세, 농업, 19대 거주, 연양 김씨, 어릴적부터 신명이 좋았음. 16세부터 12발 상모를 돌리고, 19세

부터 법고잽이 역할을 함. 벼농사 이외에 주로 수박 농사 지음, 자식은 4남매.), 마을회관, 2001. 7. 29. 정형호 조사.

- 청남면 내직2리, 김태홍(남, 65세, 7대), 김태선(여, 71세, 부여 부암리 출생, 22살에 내직2구로 시집옴), 2002. 7. 23., 이동아, 김현경 조사.
- 청남면 청소리, 김만영(남, 88세, 마을에서 서당 훈장 역할을 했음), 우제동(남, 80세, 아산 출생, 14세에 이사옴), 황의경(남, 63세, 현재 장화), 2002. 7. 23., 임장혁, 송지영 조사.

◆ 대치면

- 대치면 대치리, 염태섭(남, 77세, 농업, 2대 거주, 파주 염씨, 부친이 보령 광천에서 이주), 2001. 7. 27. 제보자의 집, 정형호, 송지영 조사.
- 대치면 대치리, 강재금(여, 78세, 충청도 출신, 24살 시집 와서 32살에 남편이 사망해서 혼자 됨, , 아들 2, 딸 2, 4남매, 기독교), 2001. 7. 27, 송지영 조사.
- 대치면 광금리, 노광호(남, 57세, 이장, 학력이 대졸로서 전직 교사, 제보능력 탁월, 현재 생업으로 동충하초 재배), 2001. 7. 27., 김혜연, 이동아 조사.
- 대치면 산정리 김계순(여, 81세), 2002. 7. 25, 오애정 조사.
- 대치면 시전리 비끼내마을, 정영택(남, 60세 5대 이상 거주), 2002. 7. 26., 임장혁, 이동아 조사.
- 대치면 오곡리, 박선자(여, 59세, 23세에 공주군 신흥면 처흥리에서 시집옴), 김성아(여, 76세, 18세에 시집옴), 2002. 7. 26.,

김현경 조사.

- 대치면 농소리 놋점마을, 임춘재(여, 62세, 24세에 청양읍에서 시집옴), 박신남(여, 72세, 17세에 청주에서 시집옴), 2002. 7. 26., 조사자 송지영, 김현경.
- 대치면 농소리 놋점마을, 복흥순(여, 72세, 주정리에서 17세에 결혼), 2002. 7. 26., 임장혁, 이동아 조사.
- 대치면 농소리, 최재만(남, 77세, 12대 거주, 탐진 최씨, 축관 다수 역임, 기억력 우수, 박학다식, 호의적), 2002. 7. 27, 정형호, 최지연, 오애정, 류재인 조사.

◆ 운곡면

- 운곡면 위라리 1구, 장인환(남, 62세, 인동장씨, 2대 거주, 아버지 고향은 공주군 사곡면 하월리. 75년부터 20년간 서울에서 거주한 후 귀향, 예전에 서당 다님. 제관을 여러 번 역임), 제보자의 집, 2001. 7. 26., 정형호, 서종원 조사.
- 운곡면 모곡리, 곽주순(여, 66세, 고향은 예산, 시집은 21세때, 94세인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그분이 민간신앙에 워낙 지극 정성이었던 탓에 영향을 많이 받았음), 2001. 7. 26., 김혜연, 이동아 조사.
- 운곡면 모곡리 노루목마을, 송명구(남, 69세, 7대째 거주), 2002. 7. 25., 임장혁, 김현경 조사.
- 운곡면 모곡리 노루목마을, 김선녀 (여, 17세에 시집, 26살 모곡리 옴), 2002. 7. 25., 송지영 조사.
- 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 임연화(여, 72세, 운곡면 추강리에서

19살에 시집옴), 2002. 7. 24., 임장혁, 이동아 조사.

- 운곡면 신대리 2구 도로뜸 이정순(여, 65, 공주 신풍에서 23에 시집), 2002. 7. 25, 이동아, 송지영 조사.
-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남, 83세, 논곡리에 3대 째 살다가 50년 전에 이주), 2002. 7. 26, 오애정 조사.
- 운곡면 모곡리 김경혜 (여, 86세, 대치면 오룡리에서 17세 때 시집옴), 최병희(여, 75세, 대천에서 19세 때 시집옴), 2002. 7. 26, 최지연, 오애정 조사.
- 운곡면 신대리, 윤광희(남, 80세, 16대), 이계준(남, 77세), 양진석(남, 74세), 2002. 7. 27., 최지연 조사.

◆ 비봉면

- 비봉면 신월리 1구, 조성매(여, 69세, 주 제보자), 명성옥(여, 61세), 김천수(여, 77세), 정풍자(여, 61세, 942-2238), 2001. 7. 26., 정형호, 서종원 조사.
- 비봉면 관산리, 김동준(남, 80세, 청양읍 청수리에서 4살 때 이주. 현재 노인회장), 제보자댁, 2001. 7. 26. 이동아 조사.
- 비봉면 중묵리 먹뱅이마을, 이기순(여, 75세, 청양읍 출생, 먹뱅이 마을로 18세에 시집옴), 이의철(남, 66세, 7대, 제관경험), 2002. 7. 25,. 임장혁, 김현경 조사.

◆ 정산면

- 정산면 천장리, 이해선(남, 55세, 5대째 거주, 전주 이씨, 이장 5년째), 2001. 7. 24., 이동아, 김혜연 조사.

• 정산면 송학리, 오영삼(남, 58세, 3대째 거주, 농업을 주로 하시며, 지관도 하셨고, 독학으로 민간의료를 배웠다), 하송마을회관, 2001년 7월 24일, 정형호, 이동아 조사.

• 정산면 용두리 1구, 이신우(남, 66세, 경주 이씨, 3대 거주, 포천에서 피난), 김흥배(여, 69세, 공주 국사봉이 고향), 2001. 7. 27., 서종원 조사.

• 정산면 남천리, 김원중(남, 69세, 농업, 3대 거주, 달궁소리 충남지역 기능보유자,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공주시 봉황동에서 동학으로 조부가 이곳으로 피신함. 30대부터 이곳 봉현리에서 이장 일을 함.), 제보자의 집, 2001. 7. 29. 정형호 조사.

• 정산면 남천리, 김원중(남, 69세, 농업, 3대 거주, 달궁소리 충남지역 기능보유자,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공주시 봉황동에서 동학으로 조부가 이곳으로 피신함. 30대부터 이곳 봉현리에서 이장 일을 함.), 제보자의 집, 2001. 7. 29. 정형호 조사.

•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남, 76세, 5대), 2002. 7. 23, 최지연, 오애정 조사.

◆ 남양면

• 남양면 매곡리 1구, 최창호(남, 67, 현 이장, 5대 거주, 모친이 한때 무업 종사), 김기창(남, 47세, 2대 거주), 이상각(남, 56세, 3대 거주), 2001. 7. 25., 마을 정자나무 밑, 정형호, 서종원 조사

• 남양면 매곡리 1구, 강산분(여, 55, 예산면 용순마을에서 35년전에 시집와서 계속 거주), 2001. 7. 25., 마을 정자나무 밑, 이동아 조사.

• 남양면 온암 1리, 임형기(남, 70세, 보령 출신, 3살 때 신앙리, 9살 때 이곳으로 이사), 2001. 7. 25., 정형호, 이동아, 김혜연 조사.
• 남양면 신왕리, 전동수(남, 55세, 3대, 이장 역임), 2002. 7. 23., 이동아, 김현경 조사.

◆ 목면

• 목면(木面) 본의(本義) 1리 무수동(無愁洞), 김홍식(남, 76, 안동 김씨, 공주군 의성면 어천리에서 6. 25때 이주.), 윤종오(남, 78, 칠원 윤씨, 4대 거주), 2001. 7. 28. 마을 입구 정자나무, 정형호, 서종원 조사.
• 목면 본의2리, 김천식(남, 61세, 10대째 거주, 현재 동막리 이장), 2001. 7. 28., 이동아, 김혜연 조사.
• 목면 신흥리 임장골, 임경빈(남, 78세), 안정옥(여, 77세), 임희열 (여, 70세), 윤성갑(남, 69세, 현재 이장), 2002. 7. 23., 임장혁, 송지영 조사.
• 목면 대평2리, 우홍명(남, 66세, 3대, 풍년제의 제무10여년간 맡아옴), 2002. 7. 23., 이동아, 김현경 조사.
• 목면 안심리, 정명교(남, 65세, 5대), 김재복(남, 73세, 9대째거주), 2002. 7. 23., 최지연, 오애정 조사.

◆ 장평면

• 장평면 낙지리, 윤갑중(남, 76세, 4대째 거주), 심윤섭(남, 73세, 3대째 거주), 2001. 7. 29., 김혜연, 이동아 조사.
• 장평면 분향1리 조민행(남, 78세, 4대째 거주), 김완수(남, 58세, 중

림리에 살다가 30년전 이사), 2001. 7. 29., 김혜연, 이동아 조사.

- 장평면 미당리, 강평길(남, 73세), 서기복(남, 83세), 2002. 7. 22., 미당 노인회관, 정형호, 류재인 조사.
- 장평면 도림리 마재, 강영순(남, 67세, 4대 거주, 진주 강씨, 호장 경험, 토박이, 박학다식, 79년 온천개발, 89년부터 본격 온천 개발, 현재 도림리 온천 개발 회사의 사장, 호의적), 2002. 7. 23., 정형호, 류재인 조사.

◆ 청양읍

- 청양읍 적누리 1구, 노병두(남, 66세, 농업, 16대 거주, 교화 노씨), 2001. 7. 27. 정형호, 송지영 조사.
- 청양읍 학당2리, 김재옥(남, 68세, 5대째 거주, 제관 경험 다수) 2001. 7. 27., 이동아, 김혜연 조사.

▣ 참고문헌

≪청양군지≫, 청양군, 1995.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임동권, ≪한국세시풍속연구≫, 집문당, 1985.

≪구미·선산의 세시풍속≫,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2.

≪칠갑문화≫ 11호 - 청양의 민속 -, 청양문화원, 2001.

청양의 세시풍속

인 쇄 : 2002년 10월 20일
발 행 : 2002년 10월 30일
인쇄처 : 대명제책사
발행처 : 청양문화원
발행인 : 안 종 일
전 화 : (041)943-4774, 943-4889

* 이 책은 국·군비를 지원 받아 발간하였음.